

5

주체103(2014)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5호

(루계 제799호)

## 차 례

백두산의 메아리(시) .....	김길성(3)
봄날의 소원(시) .....	함영근(3)
전국의 첫삽우에(시) .....	류민호(4)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5)
마두산혁명권력지압사시조(시조) .....	박상민(5)
<b>주체문학의 대강</b> .....	(22)
4월의 환희(시) .....	곽명철(7)
<b>단편소설</b> 화창한 봄날의 이야기 .....	한철순(8)
어머니와 아들의 상봉(시) .....	한옥란(22)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신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 (평론) .....	김해월(23)
백두산마을의 노래(시 묶음) .....	오상철, 박상철, 로옥선, 강철, 서봉제(27)
가 내 삶을 빛내주네 .....	리동일(36)
병사는 총대로 말한다 .....	주설혁(42)
사 행복의 속삭임 .....	변혜영(52)
황해금강 장수산 .....	류정실(69)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담겨져있고 민족적 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조아사상문화에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수〕 행복의 계단 .....	리 성 식(29)
〔필〕 건설속도에 대한 생각 .....	박 경 철(41)
땅속물은 얼지 않는다(실화문학) .....	박 경 원(30)
청천강편역(시 묶음) .....	한원희, 곽명철, 김성철, 김명철, 유련희, 리신환(37)
밝은 거리(단편소설) .....	리 룡 운(43)

단편소설	기다려주는 사람 .....	황 동 선(56)
	가을풍경 .....	리 순 호(70)

◇ 평 론 ◇

빛의 철학과 형상의 매력 .....	김 학(53)
눈에 보이는것, 심장에 미쳐오는것(단평) .....	백 현 숙(68)
충강시강(시) .....	리 명 학(55)
두 목수(전설) .....	옥 성 일(80)

# 백두산의 메아리

김길성

감격의 화산이 터져올랐는가  
환희의 열풍이 싹고왔는가  
백두산마을 삼지연땅에 울려퍼지는  
감격의 환호성  
기쁨의 환호성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기다려왔노라  
이날 이 순간의 감격과 기쁨

감격의 열풍에  
백두의 천리수해도 더욱 푸르려 설레이고  
삼지연대기념비 나팔수도  
기다렸다는듯 은빛나팔 추켜들어  
온 세상에 환희의 기쁨 노래하여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차디찬 눈보라 헤치시며  
여기 항일의 옛 전장 백두산아래 첫 동네  
삼지연마을 찾아주신 그 환희 그 기쁨  
아직도 귀가에 쟁쟁한데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산아래 첫 동네 삼지연  
또다시 찾아주신 그 환희  
모란봉악단의 노래 넘치게 하신 그 기쁨  
밀림도 못 잊어 설레는데

백두산마을에 울려퍼지는  
인민의 환호성  
조선의 환호성  
세대를 이어 영원무궁할  
백두산의 영원한 메아리여!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 봄날의 소원

함영근

오늘부터 모내기전투란다  
농민들이야 바쁜 때가  
제일 좋은 철이지  
동창도 밝기 전인데 벌써부터  
이집저집에서 문을 나서는 발걸음소리

부지깽이도 뾰다는 봄철  
농민들 마음이야 더하지  
프락포르 모뜨는기계 모내는기계  
설비점검 합격인데  
기세를 부쩍 올려보자꾸나

원수님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지  
올해는 농업전선이 주타격방향이라고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나 믿음이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불이 달렸지

어서 가자 논벌로  
온 나라가 벌에서 사는 계절  
일감은 많아서 더 신나고  
일할 시간은 길어서 더 좋다  
우리 분조 이악쟁이쳐녀들아  
총각들한테 뒤져서야 되겠느냐

장군님손길아래 넓어진 벌  
원수님 높이 모신 이 좋은 세월에  
성실한 땀으로 결구어가자꾸나

땅에는 농민의 땀방울이 보약이라더라

기계소리 넘치는 들판에 흥겨운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풍요한 가을의 교향곡 아니나  
하루일감 오전에 해제길 욕심도 좋고  
제집 마당가에 꽃모를 옮기듯  
간진 일شم씨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원수님  
물고기풍년이 그리도 기쁘시여

어로공들과 물고기더미옆에서  
사진을 찍으신 모습 뵈오며 가슴뜨겁던 우리  
우리도 난알풍작을 이룩하고  
원수님 모시고 사진을 찍자꾸나

아, 바다엔 물고기풍년  
파원엔 과일풍년  
들에는 풍작이룬 오희의 바다  
사회주의농촌테제 꽃피는 이 땅에  
올가을에는 농민들의 소원중 소원인  
원수님을 이 별에 모시고 사진을 찍자꾸나

## 건국의 첫삽우에

류 민 호

5월의 보통강반  
실버들 춤추는 유보도에 서니  
생각도 바닥없이 깊어가고  
가슴은 마냥 뜨거움에 젖어라

예가 아니던가  
한줄기 비가 내려도 불안에 떨던 곳  
범람하는 흙탕물이 마을을 휩쓸어  
생명을 앗아가던 원한의 토성량

이제는 눈물의 흔적마저 사라졌구나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건물  
백화만발한 공원  
사람들도 꽃물결되어 흐르는가

못 잊어라  
백두밀영의 우등불가에서  
무르익히신 건국의 원대한 뜻  
해방된 조국에 안고오시여  
애국의 첫삽을 쓰신  
우리 수령님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을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불러  
제힘을 믿고 억세게 틀어쥔 무죄주먹으로  
하늘도 땅도 쥐락펴락 마음대로 길들일  
자연개조의 봉화를 지퍼주셨거니

내 가슴벅차게 안아보노라

수령님 몸소 쓰신 첫삽에서 시작된  
보통강개수공사  
이 땅에 락원을 펼친 전변의 나날들을

잊지 못해 이리도 소중히 안아보노라  
그날의 5월의 봄빛 푸르른 강반에  
건국의 첫삽으로 몸소 흙을 떠올리며  
백두산위인들이 흘리신 애국의 땀방울  
애국헌신으로 불멸할 그 자욱

해빛눈부신 행복의 거리여  
내가 말해다오  
보통강반의 은빛제방따라 숲처럼 솟아난  
멋쟁이 희한한 선경의 모습들이여  
위대한 건국의 첫삽이 반들어올린  
로동당시대 선군시대 애국의 기념비들이여

나는 환희에 휩싸여 우리르노라  
대원수님들의 애국의 높은 뜻을  
필생의 보람찬 위업으로 새기시고  
새 세기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시는  
창조와 건설의 불세출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아, 5월의 건국의 첫삽을 쓰신  
수령님의 한생의 그 념원  
장군님의 불타는 그 리상  
강성조선 금수강산 이 땅우에  
꿈 아닌 부귀영화의 현실로 꽃피우리라!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본부가 자리잡고있는 김정룡의 집에서 동만의 각 현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핵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원정문제와 근거지창설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원정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부대안에서 두세갈래로 갈라져 격렬한 논쟁을 벌리던 청년들도 이 원정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단행된 1932년 5월 1일의 시위도 결국은 적들앞에 핵심들을 로출시키고 병안시가를 피로 물들인 가슴아픈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 모든 모험적인 시위로 하여 병안지방의 혁명조직들은 무데기로 파괴되었다. 5.1절시위를 기점으로 병안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은 급속한 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당지도부는 무력건설과 유격구건설을 중단하고 목릉, 동녕, 왕청 등지로 제가끔 흩어져갔다. 혁명을 포기한 일부 사람들은 병안현성으로도 흘러들어갔다.》

시 조

###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시조

박 상 민

#### 별 무 리

한그루 또 한그루  
분명 나무들이건만  
나에겐 반짝이는 별무리로 보인다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같은 구호나무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  
한점한점의 구호문헌들에선  
투사들의 눈동자가 빛나고있다  
투사들의 신념의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산마루의 깎아지른 절벽은  
투사들이 지닌 신념의 메부리인듯  
새움 띄우며 불어오는 바람은  
나무에 글발을 새기던 투사들의 숨결같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가슴

《우리는 김장군 받드는 백두산의 별무리》  
한자를 쓰고는 붓을 멈추고  
저 멀리 백두산을 우러르며  
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미소 그러보면  
그날의 투사들의 모습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의 모습!

《일편단심 조국광복》

치욕스런 머슴살이에 불을 지르고  
태양의 품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긴 투사들  
조국해방의 그날을 그리며  
한자 또 한자

항일대전의 눈보라속에서  
그리도 안기고싶던 조국땅이건만  
이 땅은 아직도 일제의 발굽밑에 신음하거니  
찾아야 할 조국과 행복찬란한 미래가  
투사들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려  
조국의 훈향에 취할수 없었던 투사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조국해방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최후결전의 앞장에 선 투사들  
오늘도 우리앞에 신념의 글발을  
가슴가슴에 새겨주고있나니

내 그들의 모습같은 구호나무앞에서  
태양을 옹위하는 영원한 별무리를 본다  
오, 그날의 그 님을 가슴에 새기며  
나 또한 원수님 결사옹위법이 될 마음  
이 마음속에 한자한자 새기노라

#### 뜻깊은 상봉

그날  
마두산비밀근거지를

정애하는 원수님 찾아주셨을 때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에 충실한 항일투사들이

그이를 마중하기 위해 정렬하듯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구호나무 구호나무

얼마나 뵈고싶던 그이이시던가  
얼마나 안기고싶던 그이의 품인가  
양지쪽 그이를 모실 밀영주변엔  
대한절기의 추위속에서도 버들개지 움트고  
정갈한 샘물은 그들의 마음처럼 솟고

눈속에서도 신통질은 계절인듯  
참나무 오리나무가지엔  
다롱다롱 달려 향기풍기는 다래  
жат송이 가득 떠인 잣나무 푸른 숲  
골안에 가득차흐르는 맑은 공기...

바람은 세차 눈가루 날려도  
해빛은 벌써 새 움을 틔우는가  
오솔길 헤치시며 한그루  
츠렁바위 넘으시며 또 한그루  
구호문헌 새기던 투사들의 이름  
한사람한사람 불러주실 때  
수령님명령 받고 백두산을 내리던 그날처럼  
씩씩한 대답소리 골안에 메아리치는듯

사령부의 최후공격작전을 위해  
일제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마두산비밀근거지창설에 바친  
항일혁명투사들의 공적을 만대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아, 세월을 두고 기다리고기다려온  
그이와의 뜻깊은 상봉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으로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온 나라 온 세상에  
혁명의 태양 수령님을 받들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위훈을 빛내주시며  
그들과 마음속 이야기도 나누시었다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듯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고 웨치는  
구호문헌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으셨다

행복이여라  
영광이여라  
백두산을 떠나 마두산에 있으면서도  
마두산을 백두산으로 꾸려온 투사들  
수령과의 상봉은 있어도 리별은 없었다

## 전적지의 새여

전적지까진 아직  
많은 령을 넘어야 하건만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반갑다며  
멀리까지 마중나온 전적지의 고마운 새여

새여 너는  
투사들과 함께 여기서 살았거나  
오늘도 투사들의 숨결 흐르는 저 숲에서  
그들의 발자욱소리 안고왔느냐  
밀영의 안내자인양 이 나무 저 나무 옮겨왔으며  
답사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딱따구리

너는 수십년세월 여기서  
대를 이으며 지켜오고있지 않느냐  
투사들의 뉘이며 불굴의 신념  
혁명적이며 주옥같은 명문장이 새겨진 구호나무  
그 한그루 한그루 지키는 초병인듯  
낮이나 밤이나 나래를 접은적 없었으리

행복한 새여  
너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 그 어느 숲에서도 볼수 있건만  
여기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 보는 너의 모습  
참으로 류달라 답사의 길 다그친다

한번 와보면 열백번을 오고싶은 곳  
그날에 벌써 해방된 조국을 그리며  
《조선이 독립되면 김일성장군 대통령》  
은 세상을 향해 웨치던  
영원불멸할 투사들의 목소리 듣고싶다

오, 전적지의 새여  
너는 반가운 손님맞이에 신명났어도  
내 마음은 너를 앞서달린다  
《마두산을 백두산으로!》  
투사들이 남긴 신념의 글발  
내 마음의 나래가 되어

## 백두산의 눈보라여

대한절기의 칼바람이  
옷깃을 찢을듯 달려들어도  
땀에 젖은 얼굴 들어  
마두산정점을 바라보는 순간

백마의 갈기인양 하늘을 치뚫고오르는  
눈보라 눈보라

백두산의 눈보라다!

## 4월의 환희

곽명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그 감격이 너무도 커  
온 나라가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진다  
이 세상에 오직 그이만이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어  
선군으로 이 조선을 빛내이실분이어서

무엇으로 다 이야기하라  
2013년 3월의 선언만으로도  
원수님의 위업 다 노래할수 있으리  
아직은 누구도 엄두를 못 내본  
미체의 심장부에 섬멸의 화살표를  
단호히 그으신 그 하나만으로도  
선군정장의 담력과 배짱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할수 있으리

이런분이 우리의 운명을 끝까지 맡아주시기에  
우리의 환희는 이처럼 뜨겁고  
이런분이 내 조국의 태일을  
선군으로 억척같이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감격은 이처럼 눈물겨운것 아닌가

진정 우리의 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력사의 이날이 있어  
내 나라는 백두산대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최후발악하는 원쑤들의 멸망은  
더더욱 앞당겨지리니

이 어지리라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오늘의 이 환호성은  
조국의 고지마다 울려퍼지는 승리의 만세소리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를 우뢰처럼 진감하는  
승전의 메아리로

오, 세월이 흐를수록  
행복이 더해질수록  
우리 더더욱 절감하게 되리라  
우리에게선 선군령장 김정원수님이 계셔야 함을  
그이만을 충정다해 더 잘 받들어모셔야 함을

아, 청년 달리는 터칠수 없는 이 걱정  
달리는 전할길 없는 이 감격을  
열광의 환호에 담고담으며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러  
세기의 영광을 삼가 드리노라!

《마두산을 백두산으로!》  
구호문헌을 새겨보는  
이 가슴에 터져오르는 웨침이여  
나는 여기서 백두산의 눈보라를 맞는다

백두산밀영에서  
한자한자 새겨안았던 구 호문헌  
오늘은 여기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 다시 본다  
백두산이 마두산으로 옮겨진듯  
눈보라도 백두산의 눈보라인듯

오, 눈보라여 백두산의 눈보라여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빛나는 곳에서  
선렬들이 싸운 곳마다에서

혁명의 넋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우는  
천만군민을 그 눈보라속에 세워다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찾아주신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 호흡하는  
백두산눈보라에 이 심장 달아온다  
선군혁명천만리에 붉은기 추켜들고나갈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나래를 달아준다

오, 추억깊은 백두산의 눈보라여!  
오, 생각깊은 마두산의 눈보라여!

—마두산혈명전적지에서—





한 철 순  
그림 김 광 석

1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어느덧 도철령마루우에 올라섰다. 이 령을 내려서서 북쪽으로 좀더 가면 덕산이 나진다. 동컨산마루우로 이글이글 타번지는것 같은 황백색태양이 슬며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점점 자기 자태를 드러내며 솟아오르는 아침해는 순간에 령마루우를 진한 감빛으로 물들이며 키높이 자란 나무우듬지들사이로 눈부신 해살을 뿌려준다. 차창으로 흘러드는 청신한 공기를 마시며 새들이 우짖는 숲의 광경을 부감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르며 뒤좌석에 앉아있던 도의 책임일군 리범국이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숲속의 공기가 청신한데 아침해돋이를 부감하면서 잠시 쉬고가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리범국을 돌아보며 존안에 미소를 그리시었다.

《어서 가시오. 활짝 핀 사과꽃을 구경하는것이 아마 아침해돋이를 보는것보다 못하진 않을까요.》

약간 갈리신듯 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리범국은 또 밤을 새우신 그이의 로고가 헤아려져 불시에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불철주야의 현지지도를 하고계시는 장군님이시다. 장군님께서 최전연초소에서 밤새 차를 달려 도에 도착하시었을 때는 동이 아직 트지 않은 이른새벽이었다. 큰길가

에서 기다리고있던 리범국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신 그이께서는 선자리에서 이제 곧 덕산군에 가자고 하시었다.

장군님의 의도를 다는 알수 없었던 그는 잠시라도 쉬고가시자고 간청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오히려 새벽잠을 깨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한시바삐 떠나자고 하시였었다. 그리하여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에 오른 그였다. 그의 귀전에는 방금전 차에 탕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잠간 섰을 때 장군님을 모시고 온 한 수행일군이 조용히 귀뜸해주곤 이야기가 그냥 울려왔다.

새해 정초부터 최전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께서 이제 며칠후면 또다시 머나먼 길을 떠나실것 같다는것이다. 일군들이 이번 길을 떠나시기 전에 다문 하루라도 편히 쉬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었다고 한다.

언제나 휴식을 뒤로 미루어오시던 그이께서 이번에는 흔연히 응하시며 그렇다면 사과꽃구경을 가자고 하시었다. 수행일군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그처럼 유명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나 고산과수농장, 지어 파일군의 사과꽃도 이제는 한물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분명 사과꽃구경을 가자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시듯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지금 사과꽃을 보자면 북쪽으로 가야 하오. 저

덕산과수농장에서 현대적인 사과밭을 만들어놓고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구만. 그곳 지배인이 여성인데 일을 잘하는 모양이요. 내 그래서 사과꽃구경도 할겸 그곳으로 가자는거요. 이번에 천연부대에 갔다가 제창 그쪽으로 가지요.》

장군님의 말씀에 일꾼들은 놀랐다. 최전연초소도 철령을 넘어 먼곳에 있는데 천리도 넘는 북방의 덕산까지 갔다오자면 왕복 수천리가 되기때문이다.

《저… 장군님! 덕산과수농장은 이제 갓 일떠서서 별로 이름도 없는 자그마한 농장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런 곳이기때문에 더 가보아야 하오.》…

승용차가 가파로운 산굽이를 돌아 넓은 도로에 나서자 장군님께서서는 리범국을 돌아보시었다.

《덕산과수농장 지배인의 이름이 김송순이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음… 그가 한때 처벌문제때문에 고민이 많았을게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모습을 상기해보시려고 의자등받이에 옷몸을 실으며 차창밖 멀리를 내다보시였으나 선뜻 떠오르지 않으시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가보자고 생각해오신 그이이시었다. 사내대장부들도 선뜻 결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녀성의 몸으로 해낸것이 놀라우시고 기쁘시었다.

아무리 천리먼곳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라 해도 성과가 있으면 찾아가 축하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은 장군님이시었다. 일꾼들은 이제 이틀 후 먼길을 떠나셔야 하기때문에 다음기회로 미루자고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더 미룰수 없다고 생각하시었다.

꽃피는 계절을 놓치고나면 그가 자랑하고싶어하는 사과꽃바다를 보아주실수 없는것이다.

덕산군은 그이와 인연이 깊으신 고장이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자동네》명지리가 그곳에 있었다.

《그때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저같은 편협한 일꾼들때문에 그는 아마 씻을수 없는 파오로 매장되었을것입니다.…》

리범국의 자책어린 목소리를 들으시며 《김송순…》하고 불러보시는 장군님의 눈앞에는 몇년전에 있었던 일이 생생히 떠오르시었다.

## 2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집무실창가에 서계시었다. 정원의 저 나무우듬지에서는 한쌍의 자그마한 매새가 쫓지를 달작거리며 무엇인가

열심히 재깍거리고있었다. 그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다시금 손에 쥐신 문건에 눈길을 떨구시었다.

《…명지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공명심에 빠져 농장에서 애지중지하던 오랜 사과나무들을 몽땅 찍어버렸다. 그 나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아시는 사과나무들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농장의 좋은 위치에 있는 논 100정보를 사과밭으로 만든다면서 제 마음대로 상급의 승인도 없이…》

《사과밭으로 만든다…》

그이께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조용히 뇌여보시었다. 한개 농장일군이 상급의 승인도 없이 제마음대로 논을 사과밭으로 만들고있다면 심중한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관리위원장은 명지협동농장에 온지 몇해 안되는 김송순이라는 녀성이라고 한다.

그이께서는 《김송순… 김송순…》하고 불러보시며 집무실안을 천천히 거니시었다.

웬일인지 그 이름이 귀에 익으시었다. 혹시?…

그러자 이번에는 그것을 부인하기라도 한듯 리범국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린다.

《공명주의에 사로잡혀 귀중한 논을 제 마음대로 사과밭으로 만들고 력사가 오랜 과일나무들을 찍어버린 그를 법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방금전 내각에서 파수부문을 맡아보고있는 리범국(당시 법국은 내각에서 일하고있었다.)이가 한말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문제가 한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것이여서 내각에 다시 알아보시었다.

《법에서 처리한단 말이지. 오랜 과일나무를 찍어버렸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뇌여보시었다. 아마도 제 마음대로 오랜 과일나무들을 다친것때문에 문제가 더 엄중해지고 당중앙위원회에까지 제기된 모양이였다.

창밖은 어느새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열심히 재깍거리던 매새들은 벌써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가버린듯 잠잠해지고 정원등들은 파르스름한 불빛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이의 사색은 점점 깊어졌다. 그가 왜 오랜 사과나무들을 찍었을까? 논을 사과밭으로 만들 때에는 무슨 사연이 있어하는 일이겠는데…

더우기 남자도 아닌 녀성일군이라는 점에 더 원심이 가게 되시었다.

장군님께서서 집무탁으로 오시는데 리범국이 조용히 들어섰다. 제기된 의견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려고 그를 찾으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리범국을 데리고 소파에 가앉으시며 물으시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제기된것입니까?》

《예, 도에서 농업성에 올려보낸것입니다.》

《도에서?… 동무의 견해는 어떻게? 동무 파수부

문을 맡아보니 잘 알지 않소?)

장군님의 물음속에 리범국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죄송스레 말씀드렸다.

《사실 명지협동농장은(전문과수농장으로 전환되기 전의 이름) 아직 국영전문과수농장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습시다. 논을 과수밭으로 돌리는 문제가 심중하여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관리위원장이 너무 서두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주의가 있다는 말이겠소?》

《저… 그가 찍어버린 나무들은 수확량이 지난 시기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비배관리를 잘하면 아직은 괜찮게 수확을 낼수 있는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나무들에서 높은 수확을 내기 위해 아글타글할 대신 이젠 늙었다면서 새 품종의 사과나무로 교체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것 같습니다. 더우기 문제는 그것이 오래전에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사과나무들이라는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도 그 문제는 용서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음…》

장군님께서서는 무겁게 일어서시여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명지리!… 사과가 잘되는 고장이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높은 현금수입으로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린 관리위원장과 작업반장을 나라의 첫 과수영웅으로 내세워주셨다.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 참가한 그들의 토론을 들어주신 수령님께서 온 나라가 다 명지리처럼 부자동네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그것이 벌써 근 40년전의 일이다. 사람들은 그때의 그 사과나무들을 수령님께서 아시는 사적나무라고 불렀다. 이젠 그 사과나무들도 늙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단순히 력사가 오래다고 보배로 되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리동무! 명지협동농장이 아직 전문과수농장이 아니라 해도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나선것은 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소? 더우기 덕산이야 사과고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사과맛 또한 좋기로 소문나지 않았소?》

장군님의 사려깊은 말씀의 뜻이 가슴찌릿하게 안겨와 리범국은 눈을 습벅거리며 말씀을렸다.

《장군님! 제 이제 그곳에 내려가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궁정을 표시하시였다.

《왜 승인없이 논을 사과밭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자면 모가 있어야겠는데 무슨 타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오.》

《알았습니다, 장군님!》

리범국은 어깨를 쭉 펴며 힘있게 보고드렸다.

장군님의 집무실을 나선 그는 그길로 덕산으로 내려갔다.

### 3

우리 나라 동서해안을 휩쓸고지나간 《태풍 10호》의 후과는 엄청난것이였다. 김송순은 리당비서 박용국과 함께 태풍피해를 입은 농장형편을 료해하려고 아침일찌기 길에 나섰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비가 있는 사창골쪽으로 가느라니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어린 사과나무들이 비바람에 넘어진것들이 도간도간 보였다. 물도랑들도 형체없이 파괴되였다. 혁명사적비로 올라가는 사창골 도로도 골개물에 몽청 잘리웠다.

강바닥에는 큰 돌들이 땅속에 박힌것처럼 앉았고 모래와 자갈들이 짙 깔려있었다.

《비서동지! 정말 억이 막히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꾸려놓은걸 한두시간내에 이렇게…》

김송순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박용국의 둥그런 얼굴에도 침통한 빛이 어렸다. 그러나 입에서는 인차 현현한 말소리가 튀어나왔다.

《또 번듯하게 꾸립시다. 더 든든하게! 더 현대적으로! 자연이 이기나 인간이 이기나 어디 한번 겨뤄보잔 말이요.》

김송순은 피곳 고개를 돌렸다. 박용국은 언제 얼굴에 그늘을 지웠었던가싶게 빙긋이 미소를 짓고있었다. 김송순은 이윽히 그를 쳐다보다가 더운침을 꿀꺽 넘겼다. 그리고는 호—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웃고있는 리당비서를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이 생겼다. 아무리 벼락이 떨어진대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막아주고 이끌어주는 당일군이였다.

《고마워요. 힘을 주셔서…》

그들은 혁명사적비를 돌아보고 내려오면서 복구대책을 토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송순이 갑자기 탄성을 지르며 도로옆의 사과나무밭으로 다가갔다. 비물에 흙이 씻기우면서 허영게 뿌리가 드러난 사과나무에는 철늦은 꽃이 피어있었다.

《아이, 사과꽃!》

김송순은 사과꽃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루만졌다.

《그래도 넌 죽지 않고 폭풍을 이겨냈구나. 장하다. 조금만 참아! 내 이제 네 보금자리를 더 튼튼하게 꾸려줄게. 응?》

김송순은 사과나무아지들을 쓰다듬으며 속삭이였다. 그리고는 박용국을 돌아보았다.

《비서동지! 이 나무도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있어서 모진 광풍에도 변함없이 꽃을

피운것 같애요. 이 나무를 사적비앞에 옮겨심었으면 좋겠어요.》

김송순은 박용국의 대답을 기다릴새없이 두손으로 조심히 나무를 뜨기 시작하였다. 가느다란 실뿌리 한오리라도 상할세라 닭알 다루듯 하는 그를 보며 박용국은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애써 삼켰다.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사적비가 건립되던 날 우리 고장에 백두산3대장군의 사적이 있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그였다. 그리고는 사적비가 모셔진 사창굴 주변과 앞벌에 사과밭을 꾸려놓았다. 자갈을 한알두알 추어내어 기름진 옥토로 만드느라 그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사과나무모를 가슴에 정히 안고 다시 사적비쪽으로 올라가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박용국의 눈앞에는 새 품종의 사과나무모를 만들어내느라 애를 써온 그의 헌신이 뜨겁게 안겨왔다.

...박용국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 농장에서 운영하는 《남천3호》발전소기술개진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송순이 불쑥 들어섰다. 어디서 오는지 김송순의 길쭉한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내뿜었는데 손에는 도면말이가 쥐여져있었다.

《비서동지, 저앞의 눈에 몽땅 키낮은사과나무를 심는것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예돌줄 모르고 직방치기로 말하기 좋아하는 김송순임을 잘 알고있었지만 박용국은 우물에 가 승냥찾는것 같이 동당지 않는 말에 두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그건 무슨 말이요?》

《반대입니까?》

《허, 이런... 앉아서 이야기하오. 콩밭에다 서술을 친다고 두부가 되요?》

그제서야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것을 느꼈는지 김송순이 얼굴을 붉히며 의자에 앉았다.

《제가 다른 농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곳에 와서 봐도 그렇고... 우리 북쪽지방은 서해안의 벌방보다 강녕이나 벼농사가 잘 안됩니다. 벌방을 따라앞서보려고 안타깝게 뛰어나다녀보았지만... 그저 그식이 장식입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다릅니다. 제가 좀 타산을 해보니 사과를 심는것이 벼나 강녕이를 심을 때보다 몇배나 더 큰 실리가 납니다. 얼핏 계산해도 벼보다는 15배, 강녕이보다는 20배가 되니 놀랄 정도입니다.》

수첩을 펼쳐놓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김송순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일단 결심이 서면 우물쭈물 재지 않고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그를 잘 아는 박용국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우리 농장은 옛날부터 사과고장으로 이름이 높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첫 파수영웅들도 우리 농장에서 나왔구...》

《웁소. 조성록관리위원장과 작업반장을 하던 동

무의 아버지가 같은 날에 영웅이 되었지. 허허...》

박용국이 갑자기 웃자 김송순도 새무룩이 웃었다. 박용국이 감회깊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동무의 아버지 김시주영웅이 평양에 갔을 때 돈뭉음이 들어있는 배낭을 풀어놓아 백화점 판매원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1960년대에 생겨났지. ...》

그랬다.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북청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부글부글 끓었었다.

예술영화 《사과 딸 때》도 이곳에서 찍었다. 이제는 아득히 지나가버린 근 40년전의 일이다.

《그때 수령님께서 온 나라가 다 명지리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교시하시었는데... 오늘에 와서 우린 다른 농장들이 발전하는데 비하면 뒤떨어지고있습니다.》

김송순의 말에 박용국은 무엇인가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는것을 느꼈다. 원래 명지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옛날 해동성국으로 이름떨친 발해국의 명지성에서(오늘의 덕산군 주서리) 오랑캐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를 제일먼저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던 명지리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체제의 빛발아래 살기 좋은 파일고장으로 전변되었다.

그런데 최근년간에 와서 명지리가 점점 앞자리를 내놓는 물이 많아졌다. 사과나무들도 나이먹어서인지 수확량이 해마다 줄어들었다.

김정숙어머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려는 군당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손탁이 세기로 이름난 주서리관리위원장 김송순이 명지리관리위원장으로 왔고 군당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박용국도 리당비서로 한해 먼저 임명되었다. 새로 온 관리위원장이 녀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통이 크고 완강한가 하면 살뜰한 섬세성과 인정미로 대변에 농장원들과 친숙해지는것을 보고 박용국은 몹시 만족하였었다. 김송순은 관리위원장으로 온 다음날부터 지력을 높이고 사과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뛰어나다녔다. 그러나 노력한데 비해 성과는 적었고 도적인 순위에서도 여전히 앞선 축이 못되고 언제나 중간쯤에서 멎어있었다. 승벽심 센 송순은 안타까웠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밤에는 늦도록 무엇인가 쓰고 그리며 혼자 애쓰더니 이런 엉뚱한 생각을 내놓은것이다. 박용국은 치미는 흥분을 누를길없어 주먹으로 책상을 탕 내리쳤다.

《좋습니다. 합시다. 난 절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덕산풍토에 맞는 사과나무모도 그렇고 준비가 간단치 않을겁니다.》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그저 비서동지만 밀어준다면 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송순의 방에는 불이 꺼질줄 몰랐고 친절어머니가 저녁밥을 싸가지고 사무실로 나오는 것이 어길수 없는 일과처럼 되었다.

우리 덕산의 기후풍토에 맞는 사과나무는 어떤 것이겠는가. 우선 추위에 잘 견디고 열매가 많이 달리며 맛이 좋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밤에는 그렇게 사과나무재배와 관련한 기술서적들을 파고들고 낮에는 당면한 농사일때문에 농장원들과 함께 논밭에서 보냈다.

오래동안 사색하고 연구하던 그는 사과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매지에 주목이 갔다.

여기 북방땅에서 자라는 매지종자를 심어 줄기가 연필대만큼 굵어졌을 때 키낮은사과나무가지를 접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실험해보니 확신이 생겼다. 김송순은 어느 쉬는 날을 택해 몇몇 농장원들을 데리고 아흔아홉굽이 후치령으로 향했다. 강산엔 눈이 하얗게 덮여있었지만 언제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있을수가 없었다. 평중턱에서 농장원들과 헤어져 그리 높지 않은 벼랑우에 올랐을 때 그는 매지열매가 벼랑쪼에 도둑히 쌓여있는것을 발견하고 환성을 올렸다. 다른 곳은 흰눈이 무릎을 넘게 쌓였지만 그곳만은 벼랑이 우묵해서 눈이 없었다. 그는 급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벼랑중간쪼에 이르자 저아래가 아찔하게 내려다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두눈을 꼭 감았다.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벼랑끝에 나가야겠는데 손으로 잡을만한 나무가지 하나도 변변한것이 없었다. 잠시 어쩔가 망설이던 그는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발뼉발뼉 끝으로 더듬어나갔다. 벼랑끝에 있는 사시나무가지를 한손으로 붙잡고 우묵진 곳의 열매들을 한줌두줌 주어 배낭에 담았다. 이제는 몇알 남지 않았다. 그것도 마저 담으려고 손을 뻗치던 그는 그만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순간 그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아!—》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어쩔새없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배낭만은 놓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관리위원장동지!—》하는 부름소리에 겨우 의식을 차린 그는 몸을 일으키다가 《아—》하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넘어졌다. 허리와 어깨박죽이 쭈서나고 장판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모진 아픔속에서도 배낭이 무사한가를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를 보고 농장원들은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런 피타는 노력속에 육종시험이 성공했다.

시험포전에 심은 새 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모들에 꽃이 피어났을 때 김송순은 꽃가지에 불을 대고 눈물을 흘렸다. 후치령의 높은 지대에서 찬눈비에 잘 적응된 매지나무에 접붙이한 다수확품종가지에서는 첫해부터 열매가 맺혔다. 김송순은 한견으로 는 눈을 사과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내밀

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승인되지 않아 그는 도와 군으로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해마다 10만여그루의 사과나무모가 생산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김송순은 마침내 용단을 내려 리당비서와 토의하고 눈을 사과밭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에는 무조건 승인을 받으리라 단단히 마음먹었던것이다.

그는 한견으로는 사과나무지대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한견으로는 측량작업을 진행했다.

승인을 받는 즉시 사과밭을 만드는데 총동원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더는 미룰수가 없었다.

#### 4

과학기술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에 갔던 김송순이 농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저녁노을이 비껴 무렵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마중나온 사람들속에서 한 반장에게 가지고온 함을 가리켰다.

《이번 길에 가져온 접가지인데 추운 지방에 적응된거래요. 많지 못한테 관리를 잘해서 한대도 죽이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청사 2층에 있는 자기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리당비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늘 하던 버릇대로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안에는 박용국이가 책상을 마주하고 혼자 앉아 있었는데 담배연기가 짙 차있었고 재털이엔 꾀초가 무드기 쌓여있었다. 김송순은 제잡담 창가로 다가가 창문부터 활짝 열어제켰다.

《무슨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셨습니까?》

《수고했소. 온다는 소식을 군당에서 들었소.》

동문서답격으로 하는 여느때없이 무거운 리당비서의 목소리에 김송순은 의아해서 눈을 살짝 치켰다가 아직 먼 출장길의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해 새 무릎이 웃었다.

《비서동지! 어쩌다 외국에 갔다는게 기념품 하나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김송순은 의자를 당겨 자리에 앉으며 진심으로 미안해하였다.

《기념품은 무슨... 새 품종의 사과나무 접가지를 가져왔으면 그보다 더 큰 기념품이 어데 있겠소?》

박용국은 숨이 막힌듯 목단추를 끌러놓았다.

참관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김송순은 남들이 기념품을 마련하려고 백화점에 갈 때 사과나무접가지를 구하려고 사과나무밭으로 갔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낮에 군당일군들에게서 들었던것이다.

박용국은 그 말을 들으며 김송순의 진정과 헌신에 가슴이 뜨거워졌었다. 농장원들에게 무엇 하나 더 주지 못해 마음쓰는 그가 왜 남들처럼 기념품

사러 백화점에 갈 생각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돈을 아꼈다가 깡그리 집가지구입에 썼다. 그런데 그런 일군을 왜 절고들며 뒤다리 잡아당기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에게 사과떡을 입히자고 애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박용국은 오늘 오전에 군인민위원회에 갔다가 김송순관리위원장에 대한 신소가 당중앙위원회에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줄곧 담배를 피우며 속을 태우고있었던 것이다.

김송순은 박용국의 무거운 기색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며 조심히 물었다.

《비서동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어디 아프지...》

《위원장동무!... 군인민위원회에 갔다와야겠소... 동무가 도착하면 급히 보내라고 했는데... 도파수련합회사에서 부원이 나왔소. 함께 가지요.》

《예? 무슨 일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난 박용국은 김송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뜰이나 엄중한 얼굴이 더 어두워 보였다. 많은 이야기가 그의 역실역실한 두눈에 어려 있었다.

《가보면 알게 되오.》

잠시후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군인민위원회에 도착하였다. 김송순이 청사안에 들어가고 박용국은 초조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인민위원회청사문이 활짝 열리더니 김송순이 뛰쳐나왔다. 그는 계단 밑에 서있는 박용국을 보지 못한듯 자전거에 몸을 싣고 정신없이 몰아탔다.

《위원장동무!...》

박용국이 뒤쫓아오며 소리쳤으나 그는 못 들었는지 그냥 달려갔다. 흩어진 머리카락이 뒤로 날리고 발디디개가 맹렬히 오르내리는것을 보니 그가 무척 격동되었다는것이 알렸다.

김송순의 눈앞에는 도파수련합회사 부원인 조인국의 갸펏한 얼굴이 떠올랐다. 조인국은 전 관리위원장 조성록의 아들이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도에 배치받은 그는 오래간만에 만난 유치원시절의 소꿉동무판계는 전혀 모른다는듯 날카로운 어조로 따지고들었다. 아니, 그런 판계이기때문에 더 격분해서 그러는듯 했다.

《위원장동무! 사과나무들을 왜 찍었소, 엉? 그게 어떤 나무들이기에 그렇게 망탕 찍는단 말이요?》

《저...》

김송순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격한 추궁에 당황해서 미처 대답을 못했다. 조인국이 얼마나 격분해서 책상을 치며 소리쳤던지 그가 한 말이 다 기억나지 않았으나 마지막에 한 말만은 가슴을 도

끼로 마구 찍어내는것 같이 아픈것이였다.

《동무가 어쩌면 그럴수 있소? 그 사과나무들은 우리 아버지세대들이 피땀으로 가꾼 나무들이라는걸 모르는가 말이요? 동무 한사람의 이름을 내는것이 그리도 중요한가?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던 사과나무들을 동무에게 맡긴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 전세대가 간절히 부탁했는데 어쩌면 그럴수가 있소? 도덕의리도 모르는 너절한... 법앞에 나설 준비를 잘하시오.》

김송순의 눈앞에는 그가 내민 종이장들에 씌어진 글들이 언뜻언뜻 안겨왔다. 《비옥한 논...》, 《사과나무를 망탕 찍고...》, 《공명심에 들떠...》 그는 어떻게 손도장을 누르고 그 방을 뛰쳐나왔는지 모른다. 가슴속에는 그 어떤 울분이 마구 고삐 치며 끓어올랐다. 진심이 배반당한 쓰라림과 좌절감, 원망과 실망...

농장으로 뛰어드는 다리를 건너서자 박용국이 김송순을 따라잡았다.

《관리위원장동무!》

김송순은 그만에야 길가의 아카시아나무밑 등에 자전거를 들이박으며 어쩔새없이 나가넘어졌다. 허공에 뜬 자전거앞바퀴가 맹렬한 속도로 돌아간다. 마치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피어올라 내뿜지 못한 억울함을 바퀴가 대변하는듯싶었다. 박용국이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관리위원장동무! 다친텐 없소?》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던 김송순이 천천히 머리를 었다. 그의 쌍까풀진 두눈에는 억울해하는 눈물이 샘솟듯 솟아올랐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서동지!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수가 있습니까. 제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어쩌면 이리도...》

《진정하오, 위원장동무!》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제가 이제 무슨 낮으로... 사람들앞에... 나서겠습니까.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자리를...》

《...》

《장군님의 뜻에 맞게 우리 농장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리자고 한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예? 비서동지!》

《...》

박용국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더니 길옆에 앉아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는 빼금빼금 담배를 피우기만 했다. 김송순은 가슴속에서 그리도 세차게 끓어번지던 걱정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자 대신 의문이 머리를 드는것을 느꼈다. 무엇인가 못마땅할 때면 성을 내거나 소리치기보다 침묵으로 대하기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감정을 눅눅하고 불안에 잠기게도 하는 박용국이였다.

《왜? 왜 말이 없습니까? 비서동지야 절 잘 알지 않습니까?》

박용국이 또 한번 후 한숨을 내쉬었다.

《잘 알지요, 위원장동문 한번 결심하면 후회하지 않고 완강히 실천하는 사람이란걸... 그러니 마음먹은대로 자릴... 내놓는 수밖에...》

《에-에?》

김송순은 자기처럼 믿어온 리당비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줄 몰랐다는듯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찌겠소?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주대가 약하고 신념이 부족한 인간인데... 위원장동무! 력사가 있는 사과나무들을 찍어내고 논을 사과밭으로 만들자고 할 때 동무는 무엇을 생각했소. 장군님을 다시 농장에 모시고 기쁨을 드리겠다는 하나의 신념으로 용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말이요? 그런데... 그쯤한 일에 주저했다니... 그러면 절해고도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의 신념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난관이 도대체 뭐가 말이요?》

박용국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준절하였다. 가뜰이나 웅글은 목소리가 진폭되어 김송순의 가슴을 쿵쿵 두드려댔다. 불현듯 림종을 앞둔 시각에 아버지가 하던 말이 귀전을 때렸다.

《송순아! 우리 명지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많이 받아온 영광의 고장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와 관리위원장을 나라의 영웅으로 키워주셨는데... 보답을 다 못하고... 가는구나. 장군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오시면 기쁨을 드릴수 있게 일을 잘하거라. 온 나라가 다 명지리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내 세워주시던 수령님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꼭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심을 결심을 하고 오랜 사과나무들을 찍어낼 때 마을의 좌상인 최로인과 몇명의 늙은이들이 현장에 나타나 도끼를 빼앗으며 웨치던 말도 귀전을 때린다.

《관리위원장!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어떤 나무들인지 잘 아는 위원장이 온 나라가 부러워하게 한 보배나무들을 찍다니? 나물 찍겠으면 차라리 내 몸에 도끼를 대게!》

《아니? 이 논에다 사과나무를 심는다구? 사과나무야 산비탈에 심으면 되지 대대로 농살 지어먹던 논을 없애다니? 그런 말 아예 말게. 사람이 난알을 먹지 않고 사과만 먹고 살수 있는가 말이요?》

《되지도 않을 일을 벌려놓았어. 큰일났군. 만약 사과가 되지 않으면 다 녹아나겠는데... 야단났구만.》

반대와 우려, 불안과 위구... 그러나 김송순은 그들을 리해시키고 설복하면서 완강히 밀고나갔다.

온 농장이 펼쳐나 콩크리트지대를 자체로 만들어 놓고 애지중지 키운 사과나무모들을 내다심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논을 사과밭으로 전환시키자는 신청서가 우에 올라간지 오랬으나 여전히 승인되지 않더니 갑자기 이런 문제가 제기된것이다.

《위원장동무! 우리 명심합시다. 법앞에 나서는 것보다 더 심각한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념이 흔들리는것이라는걸 말이요.》

김송순은 머리를 비다듬고 일어섰다. 순간이나마 나약한 마음에 빠졌던 자기를 질책하며 두주먹을 짝 움켜쥐었다.

두사람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사창골에 모셔진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사적비에도 옮겨졌다.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머님의 사적비를 찾아가 새힘을 가다듬곤 하는 그들이었다.

어스름이 깃드는 하늘에서는 벌써 별들이 반짝반짝 눈을 뜨고있었다.

## 5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룡전리로 들어가는 도로사립점을 지나 북청읍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살갈이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으며 시련과 난관을 헤치느라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활을 안겨주겠는가고 늘 마음쓰고계시는 그이이시었다. 머나먼 북방으로부터 최전연초소으로, 동해기슭에서 서해기슭으로, 공장에서 농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불철주야의 강행군현지지도는 그 얼마...

기차로, 승용차로 험하고 먼길을 다니시느라 몹시 힘드시였지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뿌리가 되어 강성조선을 일떠세우시려는 비장한 각오가 무한대한 힘을 분출시켜 가고 또 가시게 하는것이였다.

그 길에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군들을 만나시게 되면 더없이 대견하시여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겨 크게 내세우고싶으신 장군님이시었다.

그이의 눈앞에는 리당비서 박용국의 등실한 얼굴이 떠오르시었다. 2002년에 명지리를 찾으시었을 때 자체로 일떠세운 《남천3호》발전소로 안내해드리며 자랑어린 음성으로 보고드리던 그를 잊을수 없으시었다.

《참, 박용국리당비서가 건강해서 일을 잘합니까?》

《예, 제가 도에 임명되어 온 다음 몇번 만나보았습니다. 정열이 있고 인정많은 당일군이라고 농장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그 동무가 김송순이와 함께 법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던 일이 생각나오. 난 그때 행정일군을 믿고 당적으로 보증해나서는 그의 당일 군다운 품성을 아주 좋게 보았소. 그게 바로 진짜 당일군이지. …》

장군님의 말씀에 리범국은 입가에 연한 미소를 띄워 올리며 말씀드렸다.

《그때 장군님께서 믿음을 베풀어주셔서 김송순 동무에 대한 좋지 못한 소리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농장원들은 물론 군안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무슨 일에서나 다정한 부부처럼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정한 부부처럼 마음이 잘 맞는다? 얼마나 듣기 좋소. 아무 단위를 봐도 한가정으로 말할 때 행정일군은 아버지이고 당일군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소. 그런 의미에서 부부사이라 해도 틀리진 않는 데 그 동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뒤바뀌었구만, 허허허.》

장군님께서는 만족하시어 소리내어 웃으시고 나서 계속하시었다.

《사실 우린 오래전부터 당과 행정이 밀접한 관계를 보장할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소.

내가 여러 부문을 다녀보면 당, 행정이 잘 결합된 곳에서는 집단이 화목하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지만 그렇지 못한데서는 일이 잘되지 않았소. 그러면 손해를 보는건 누구인가? 한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의가 맞지 않아 다툼질하면 자식들이 불쌍해지는 것처럼 손해를 보는건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고 나아가서는 당과 국가란 말이요. 부부처럼 마음이 잘 맞는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다 것처럼 되어야 일이 잘되겠는데…》

인정세태적인 표현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일군들의 품성에 대한 문제를 포착하시고 그것이 온 나라의 일심단결에 주는 영향을 내다보시며 하시는 말씀에 리범국은 끝없는 흠모의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랐다. 문득 그때 장군님의 파업을 받고 현지에 내려가 다시 료해해보던 일이 떠올랐다.

아, 그때 장군님의 그 가르치심이 아니었다면 내 어떤 실책을 범할번 했던가. …

## 6

…그때 덕산군 명지리에 다녀온 정형을 보고드리려 장군님앞에 선 리범국은 자책감으로 하여 고개를 들수 없었었다.

《장군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줄 모르고 제기된 자료에만 매달렸던 저야말로 편협하고 시야가 좁은 일군이었습니다.》

리범국은 얼굴이 화끈거리는것을 어찌지 못하며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김송순관리위원장이 농장의 오래된 사과나무들을 찍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굳힌것은 이웃에 있는 룡전과수농장에 참관을 갔다온 후였다고 합니다.

수령님께서 보아주신 104살난 사과나무를 자랑하는 그곳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 사적나무를 잘 관리했다고 치하해주신 다음 농장의 모든 사과나무들을 오래오래 키우겠다는데 사과나무는 오래되면 퇴화된다고, 키낮은사과나무로 종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신 이야기를 전해듣고 김송순관리위원장이 그런 결심을 하였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때 시간이 허락치 않아 명지리에는 못 가시고 룡전에만 들리시였었다.

사실 새로운 과학기술의 갱신주기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현시대의 발전추세를 놓고볼 때 력사가 오래다고 수확이 떨어지는 재래종나무들을 끼고앉아있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보수이고 퇴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무리 애지중지하며 창조하고 가꾼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단호히 없애버리고 새것을 지향하는것이 옳은 처사이다. …

《그런데 토지허가신청서가 도에 올라간지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승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에 들러 알아보니 논이 돼서 심중하게 토의하는중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김송순관리위원장의 공명심에 놀아날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해마다 새 품종의 사과나무모는 10만여 그루씩 생산되는데 토지허가를 해주지 않아 지지대도 생산해놓고 측량까지 끝내놓았지만 아직 나무를 심지 못하고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사과밭을 만들고있다고 제기된것은?》

《도과수련합회사에서 한 부원이 내려갔을 때 농장원들은 총동원되어 한창 지지대를 만들고있었고 관리위원장은 측량원들과 함께 들에 나가 사과밭을 만들 계획을 확정하고있었습니다. 그 부원은 큰일났다고 하면서 올라와 도에 제기했는데 도에서 한 일군이 전화로 물으니 관리위원장은 우에서 너무 시간을 끌기때문에 사과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건이…》

장군님께서는 어이가 없으시었다.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큰일난것처럼 떠드는것도 문제였지만 보다는 좋은 사과나무모를 생산해 놓고도 승인되지 않아 심지 못하고있다는 말에 끓어오르는 의분을 누를길 없으시였다. 어쩌면 일군들이 이렇게 무책임할수가 있는가? 녀성일군이 몇 년동안 아글타글 애쓰며 연구해내고 생산해낸 새 품종을 지지해주고 적극 밀어주어야 할 책임일군들이 어쩌면…

오죽하면 연약한 녀성일군이 그런 말까지 했겠는가.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파오를 만들어낸것이



다. 이미전에 토지허가신청을 승인해주었다라면 이런 파오가 생겨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누가 진짜 파오를 범했는가?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나면서 추세에 맞고 실리가 있는 사과나무밭을 만들고 새 품종을 심자고 애쓴 관리위원장인가? 아니면 안일과 보신을 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신청서를 깔아뭉개다가 큰 파오라도 발견한것처럼 떠드는 일꾼인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사색하지도 않고 뛰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발이 닳도록 뛰어나는 사람들의 《비행》을 묶어 보고하는 일부 일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경제적난관을 걱정이나 하고 앉아서 우는소리하는 우국지사같은 일꾼이 아니라 자기를 깡그리 다 바치며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애국자들이 필요한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답답하신듯 창문가로 가시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였다. 피로와하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리범국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식은땀이 빠질빠질 이마우로 내돌았다. 자기도 얼마전에 도에서 농업성에 올려보낸 명지리의 토지허가신청서를 보면서 국가적인 큰 과수농장들에 더 신경쓰며 작은 농장은 차요시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써 몇년전부터 세계적인 과수업추세를 꿰뚫어보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사과를 먹이시려고 대동강기슭이나 고산, 파일군 등에 현대적인 사과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그 높은 뜻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리범국은 죄송스러운 음성으로 계속했다.

《장군님! 이번에 내려가서 알아보니 김송순관리위원장은 작업반장이었던 김시주영웅의 딸인데 장군님께서 1967년 7월에 그곳을 찾아주시였을 때 만나셨던 유치원소녀였습시다.

그는 자기를 안아주시며 앞으로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순간도 잊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렇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리범국에게 한결을 다가서시였다. 그때의 일이 어제처럼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던 그날의 청아한 목소리도 다시금 울려오는듯싶다. 그래!

1967년 7월말경이었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산골농민들의 생활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후치령기슭에 있는 덕산군 명지리를 찾아주시것은 무더운 여름날인 7월 30일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관리위원장 조성록은 걷어올린 바지가랑이도 내리지 못한채 논에서 허둥지둥 달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제 관리위원장 조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령님께서 나라의 첫 과수영웅으로 내세워주신 위원장동무를 이렇게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김시주영웅도 잘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비료를 실으러 도에 갔습니다.》

장군님의 다심하신 말씀에 조성록은 행복에 젖은 두눈을 습벅거렸다. 조성록의 건강이며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나신 장군님께서서는 농장을 돌아보라고 하시며 그를 앞세우시였다.

그때 관리위원회청사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유치원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을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존안에 환한 미소가 피여났다.

《저 유치원건물이 멋쟁이입니다. 둥근 몸통이 우로 올라가면서 호리호리해지고 6각지붕이 뾰족한게 옛맛이 나면서도 현대미가 깃들어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견고하면서도 안전한감을 주는데 내 보기에는 몇십년후에 가셔도 손색없을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말씀에 조성록의 가는 눈이 더 작아지고 대신 두툼한 입술이 헤벌쭉해졌다. 사실 한 다하는 목수들이 달라붙어 끌로 구멍을 파고 축을 만들어 사개를 단단히 물려놓은 건물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농촌건물이여서 자랑할만 한것이 못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장군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람에 기분이 붕 뜬것이다. 그때 유치원마당 한켠에 있는 회전그네에서 《큰아버지-》 하는 웨침소리가 쉼 없이 날아왔다. 여섯살쯤 나보이는 소녀애가 회전그네에 매달린 말을 타고 이쪽을 향해 손을 저었다.

《조카애입니까?》

《아닙니다. 저 애가 김시주영웅반장의 딸인데 절보구 큰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 아버지보다 내가 더 굵다굵다 한다고 저렇게...》

《그러니 위원장동무가 김시주영웅보다 나이가 더 많은 모양이지요?》

《나이는 같은데 제가 한달 앞섰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큰아버진 큰아버지입니다, 하하.》

장군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그리로 다가가시였다. 회전그네는 축만 철로 되어있고 비행기, 배, 말은 통나무를 정교하게 다듬어 매단것이였다. 비행기와 배에는 총각애들이 탔고 김시주의 딸은 말에 앉아있었다.

《큰아버지! 빨리 밀어달라. 말이 안 돌아가.》

소녀애가 손을 내밀며 재촉하였다.

《오, 그래? 내가 밀어줄까?》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성큼성큼 다가가시여 회전그네를 돌려주시였다. 회전그네가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아가자 아이들이 기뻐서 환성을 질렀다.

《야!- 돌아간다. 만세-에.》

비행기를 탄 애는 마치 비행사가 된듯 입으로 《뚜루룩, 뚜루룩.》하며 기관포소리를 냈고 배를 탄 애는 《뽕!—》하고 배고동소리를 내질렀다.

김시주의 딸은 말우에서 엉치를 달싹거리며 《이라! 찌—찌—》하고 말타는 시늉을 한다. 그러자 저쪽에서 놀던 아이들이 오구구 모여와 장군님께서 그네를 밀어주시는것이 신기하고 부러워 바라보았다. 그때 조성록이 황급히 다가가 장군님의 앞을 막아섰다.

《이젠 그만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애들의 그네까지...》

《허허, 뭐랍니다? 우리 꽃봉오리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애들을 한명 한명 다 태워 밀어주고 싶습니다.》

《!...》

이윽해서야 그네가 멎었다.

그러자 어느새 말에서 훌쩍 뛰어내린 소녀애가 쾅쾅 달려와 조성록의 품에 담썩 안기며 장한듯이 종알거렸다.

《큰아버지! 나 정말 재미나게 탔어요.》

그러면서도 조성록의 곁에 서계시는 장군님을 살며시 올려다보았다. 선뜻 안기고싶으면서도 내우를 하느라 주뭉거리는것이 더 귀여우시었다.

《애야, 인사드려라. 평양에선 오신 우리 선생님이시다.》

애는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뜻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네를 밀어주신 고마우신분이라는 생각과 그이의 태양같은 미소에 자석처럼 끌린듯 한 걸음한걸음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이며 나부시 절을 한다.

《고맙습니다.》

성미가 활달하고 비위가 좋은것 같애도 이럴 뎨 무척 차분하고 얹전히 처신한다. 장군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며 그 애를 품에 꼭 안아주시었다.

《이름이 뭐냐?》

《김—송—순.》

《오, 김송순, 이름이 참 좋구나. 푸른 소나무처럼 사시장철 변하지 말고 꽃같이 자라라는 뜻이구나. 그렇지?》

그러자 송순이는 뒤로 꺾히듯 몸을 돌려 머리를 돌리며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 모양이 너무 꺾히게 그이께서는 또다시 그 애를 꼭 안아주시었다.

《그래, 이제 크면 뭘 하겠니?》

《여—웅...》

《오! 영웅! 그래, 그래.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여라. 우리 송순이가 참 용쿠나, 하하.》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순이를 버쩍 추켜드시고 빙빙 도시었다. 송순은 그것이 재미나는듯 두팔을 하늘을 향해 쭉 벌리고 좋아라 깔깔 웃었다. 티 한

점없이 청아한 송순의 웃음소리가 가없이 넓은 하늘가에 울려갔다. 잠시후 모임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유치원교양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조성록을 돌아보시었다.

《애가 담차고 똑똑합니다.》

《똑똑하기는 한테 좀 별잡니다. 장난을 해도 밥을 짓는다든가 머리에 이는 흥내를 낼 대신 우리 아들녀석을 따라다니며 말타기를 하거나 총쏘기를 하면서 총각애들과 섭썰리기 좋아합니다, 허허허.》

《저 애들을 잘 키웁시다.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신 나라의 첫 파수영웅들의 아들딸들이 대를 이어 일군으로, 영웅으로 성장하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유치원을 나서시며 건물의 특색있는 모양을 다시금 바라보시었다. 온갖 시름을 다 잊으신듯 밝은 표정이 그이의 안광에 한가득 어려있었다.

김송순은 그후 인민학교(당시), 중학교를 거쳐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여성중대장으로 복무했다. 제대된 후 농업대학을 졸업한 그는 주서리에서 관리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오늘은 명지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게 된것이다....

리범국이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듣고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후더운 감정을 누르시며 집무실안을 천천히 거니시었다.

리범국을 만나 관리위원장에 대해 보증해나선 박용국의 당일군다운 품성을 알게 된것이 기쁘시였고 온갖 고생과 비난을 이겨내며 사파나무밭을 조성하겠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김송순이도 더없이 미더우시고 정이 가시었다.

년로한 몸에 마지막까지 늙어가는 사파나무들을 불안고 씨름질하다 돌아간 조성록이나 김시주영웅이 오늘의 김송순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게 시었다. 김송순에 대한 믿음과 정이 쿨수록 그의 수고를 헤아려주고싶으시었고 도와주고 내세워주고싶으시었다.

사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이나 고산, 파일군 같은 데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전국이 달라붙어 내밀어주니 그렇지 명지같이 자그마한 산골농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로 새 품종의 사파나무모까지 연구하여 키워내고 있지 않는가. ... 이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리범국에게로 돌아서시었다.

《리동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시다. 우선 농업성과 토의해서 명지협동농장을 전문파수농장으로 전환시키고 논을 사파밭으로 돌리는 문제부터 락착지여야겠소. 명지리는 력사적으로 보나, 실리적으로 보나 전문파수농장으로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

동차와 트랙토르도 더 보내주고 그에 따르는 예비 부속들도 넉넉히 보내줍시다.》

《장군님! 알았습니다. 즉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심에 넘쳐 대답하는 그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더 줄것이 없는가 생각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한결을 다가서시었다.

《아, 농약과 비료를 잊었구만. … 가만, 그리고 … 그래, 그게 중요한지. 사과나무를 올해부터 심는다니 한 3년은 국가계획을 주지 말아야겠소. 일정한 기간 토대를 닦게 말아요.》

리범국은 그만 목이 메여 숨이 가빠올랐다.

무엇 하나라도 더 주고싶으시여 그리도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출가한 딸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그대로였다.

## 7

가없이 펼쳐진 100정보과원에 보름달이 떴다.

이래저래 마음이 산란하여 잠들지 못한 김송순은 집을 나서서 사과밭으로 향했다. 이제는 제구실을 하기 시작한 새 품종의 사과나무가지에 은실이 실실이 내리드리운것 같은 달밤의 파원을 보니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못 견디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장군님을 기다리는 농장원들의 마음이 깃들어서인지 올해에는 사과가 류달리 많이 열렸다.

올가을에는 꼭 장군님께서 오실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니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 안던 그날이 떠올라 눈곱이 젖어들었다.

…중앙에서 내려온 일군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김송순이 리당비서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도파수련합회사에서 온 조인국이 머리를 떨구고 서있는것이 보였다.

《바로 동무같은 편협한 사람들이 웃기관에 틀구앉아있기때문에 일 잘하는 일군들이 파오아닌 파오를 범해 오금이 꺾이운단 말ियो. 뭐? 군중의 여론이라고? 천만에. 우리 인민들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자고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을 물리해할 사람이 없소. 자료를 묶은 동무같은 사람들이 위험하단 말ियो.》

리범국의 엄한 추궁에 조인국의 얼굴색이 퍽 퍽 해졌다.

《동무는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라의 파수영웅으로 된 관리위원장의 아들이 아닌가? 한낱한시에 영웅이 된 부모들을 모신 사람들이 땅을 받드는 길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말ियो?》

변질됐소. 도급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체수양을 잘하지 않다보니 이제 농사군의 근본도 다 잊었거던.

최첨단과학기술을 모르면 자연히 제자리 유지를 위해서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마는거요. … 돌아가서 자기검토를 잘하시오.》

조인국이 나가자 리범국은 김송순에게로 다가가 그의 두손을 꼭 잡았다.

《관리위원장동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동무에 대한 문제를 료해하시고 너무 가슴아프셔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예? 아버지장군님께서요?》

박용국과 김송순의 입에서 동시에 놀란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송순관리위원장은 어릴 때 만나보아 아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웅이 될 꿈을 가지고있었다고, 그의 아버지는 수령님께서 아끼고 내세워주신 파수영웅작업반장이었다고, 자신께서는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심는데 대하여 지지한다고 하시면서 명지협동농장을 도와주라고 트랙토르와 자동차, 예비부속품들도 보내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은 시간이 허락치 않아 그러는데 이제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 그땐 꼭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명지협동농장을 덕산파수농장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장군님! …》

김송순은 그만에야 참고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는 이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고민과 괴로움이 봄날의 눈석이처럼 사르르 녹아없어지는것을 느끼고있었다. 리범국은 김송순에게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지배인동무! 날 용서하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제기된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장군님께 보고드린 내 잘못이 크오. 아버지장군님이 아니셨다면 …》

사실 방금전에 조인국을 되게 추궁했지만 자기도 그와 별반 다름바없다는 자책감이 가슴속을 파고들어 그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

회상에서 깨어난 김송순은 사과나무밭을 돌아보며 천천히 걸었다. 드넓게 펼쳐진 사과나무밭에는 은빛으로 부서지는 달빛이 짙았다.

가지마다 휘여지게 매달린 사과알들이 달빛에 번들거린다. 아직은 채 익지 않은것들이긴 하지만 주먹만큼씩 다 커서 붉은 옷을 입으려고 서두르고있다.

파원속을 거닐던 김송순은 문득 앞에서 울려오는 아이들의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애! 일혁아! 이쪽가지의 사과를 따렴. 고게 익은것 같애. 응, 옳지, 옳지.》

이렇게 말하는 애는 옆집에서 사는 나무모반장의 아들 세철이녀석이다.

《헛! 이것도 설익었어. 익은게 있는것 같지 않아.》

《췌! 떠들지 말어. 지배인큰엄마 오면 큰일나.》

나무우에 올라간 애의 웨침소리에 기겁해서 조심스레 주의를 주는 녀석은 3작업반장네 막내아들 일혁이다. 이녀석들이 사과밭에 《습격》 들어왔구나....

《일없어. 지배인큰엄만 우릴 고와하는데 뭐.》

세철의 말에 김송순은 그리로 다가가다말고 멈춰섰다. 애들을 놀래우면 내뺀다가 발목이라도 상할것 같았던것이다. 세철이녀석의 말소리가 또다시 들려온다.

《애들아! 너희들 지배인큰엄마가 사과나무와 이야기를 한다는걸 아니? 우리가 몰래 습격해 들어온것도 래일 아침엔 다 알아. 사과나무가 대준대.》

《피! 거짓말,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하니?》

그러고보니 그 주변에 두세명의 아이들이 또 보인다. 모두 다섯명인데 세철이녀석이 휘둥해들어온 모양이다.

《거짓말 안야. 난 봤어. 요전날 학교에 갔다오는데 지배인큰엄마가 쪼꼬만 사과나무모를 쓸어만지며 빨리 커서 사과가 많이 달려야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신다고 하지 않겠니?》

세철의 말에 아이들이 모여섰다.

《그래서 내가 큰엄마에게 나무가 어떻게 말하는가고 물으니 우리가 이제 커서 이 과원의 주인이 되면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 애들아! 우리 한번 나무에 귀를 대고 나무가 말하는소리 들어보지 않겠니?》

《응, 그래. 지배인큰엄마에게 일러바치지 말라고 하자.》

아이들이 사과나무에 귀를 대고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풀벌레의 찌르륵거리는 소리만 유정하게 들려온다. 한 애가 속삭인다. 《왜 안 들리니?》, 《글썸...》, 《거짓말이야...》, 《아니, 이제 크면 들릴게야.》

김송순은 빙그레 웃었다. 얼마나 꿈이 많은 아이들인가!...

《애들아! 사과가 아직 익지 않았으니 우리 그냥 나가자. 우리가 습격온걸 큰엄마가 알면 노여워해. 아니, 큰엄마한테 들키면 큰일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아버지도 큰엄마한테 쫄 못해. <반장동무! 왜 비료를 규정대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나온 이 가지는 왜 구부리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서 퇴치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큰 허리를 굽적하며 <예, 명심하겠습니다. 당장 집행하겠습니다.> 하지 않니?》

일혁의 말에 아이들이 흐하흐하 웃어댔다.

《췌! 정신있니? 자, 어서 나가자. 이제 사과가

익으면 큰엄마보구 달라고 하자. 애! 사과나무가지들이 부러지지 않게 주의해! 가지를 부러뜨리는것을 보면 큰엄마가 제일 성나하시거든.》

아이들은 조심조심 울타리밖으로 사라졌다. 그들을 보며 김송순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래! 애들아! 사과나무들을 귀중히 여겨라. 이제 다 너희들의 재부란다. 이걸 너희들에게 안겨주자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써오시는지 아마 너희들은 다 모를게다. 이제 사과가 붉게 익는 가을이 오면 그이께서 우리 농장에 오실지 아니? 아니, 꼭 오실지야....

김송순은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소원을 알아서인지 그해에도 100정보과원에 탐스러운 사과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 8

김정일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기다리고있던 김송순이와 박용국이 달려와 인사드렸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배인 김송순입니다.》

《지배인동무! 수고하오. 그러고보니 어릴 때의 모색이 있소. 말을 타고 영웅이 되겠다고 하던, 응? 하하.》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그때 무엇부터 보여주겠소? 동무들이 많은일을 해놓았다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다 보아주겠소. 자, 안내하랴구.》

장군님의 말씀에 김송순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며 그이를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사적비에도 안내해드렸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국내공작임무를 받고 이곳에 나오시어 조국광복회 북청지구 덕산분회를 지도해주신것은 1937년경이었다. 그날 어머님께서는 조직성원들인 7인조합회의 주먹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회의를 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셨을 때는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을주변에서 아이들이 새끼로 뭉그러만든 공을 차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애가 갑자기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것을 보신 어머님께서 급히 그리로 다가가시었습니다. 뽀얀 먼지가 오른 짚신이 터져 돌에 찢긴 발가락에서 피가 흐르고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급히 손수건을 꺼내시어 그 애의 피흐르는 상처를 싸매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넓은 운동장에서 가족공을 실컷 차자고 말씀하시며 꼭 안아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추억에 잠겨 이윽도록 사적비를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다가 일군들을 돌아보시었다.

《그때 그 소년을 찾았습니까? 살아있으면 아마… 지금 여든은 넘겠을거요.》

장군님의 말씀에 김송순이 갑자기 머리속이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어깨를 떨었다. 너무도 크나큰 걱정이 가슴을 찔던것이다.

《아버지장군님! 그때…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 손수 발을 싸매주신 아이가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도록 송순을 지켜보시다가 반색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음… 짚신이 터져 피나오는 발을 불안고 울던 아이가 수령님의 품에서 영웅으로 되었던 말이지.

내가 1967년도에 이곳에 왔을 때 아버지인 도에 비료실으러 갔기때문에 조성록관리위원장만 만나고 갔지.》

《그때 아버지 장군님을 만나뵈지 못한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김송순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후터워오르시었다. 이것 또한 김송순과의 류다른 인연같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이어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고 전망대에 다가가시었다. 가없이 펼쳐진 100정보과원이 한눈에 안겨왔다.

키낮은사파나무마다 하얀 꽃이 만발하여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마치 사열을 받는것처럼 줄을 맞춰늘어선 콩크리트지지대들, 네모반듯하게 구획을 지어선 쇠그물울타리, 흰눈같이 피어난 꽃으로 하여 100정보과원이 통채로 흰구름속에 잠긴것 같았다.

《멋있구만, 멋있어. 피곤이 다 풀리는것 같소. 정말 장쾌해!》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과원을 부감하시는 김정일동지의 기쁜 음성이 드넓은 사파밭으로 울려갔다.

장군님께서는 키낮은사파나무모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고 물으시었다. 리범국을 통해 이미 들으시였지만 그가 하는 말을 또 듣고싶으시였고 그의 노력을 값높이 내세워주고싶으시었다.

김송순은 매지나무종자를 채취하느라 후치령의 눈속을 헤치던 일과 접가지를 구해오느라 국내는 물론 외국에 가서까지 애쓰던 일, 콩크리트지지대안에 너대씩 들어가게 된 철근을 기술혁신을 하여 두대씩 넣어 자재를 절약한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것이 한눈에 다 보이시는듯 사랑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었다. 남보다 뛰어나게 잘생기거나 특징적인것은 별로 없는 보통모

습이다. 단지 어릴 때의 모색대로 얼굴이 갈쭉하고 키가 좀 큰 축일뿐이다. 그러나 약간 클사 한 쌍가 풀진 두눈에는 웅심깊은 인정미가 차분히 깃들어있었고 눈가장자리와 볼에 실주름이 앉아 녀성일군의 무게를 더해주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수행일군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의 실력은 이렇게 아는데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겠소.

자, 그럼 사과밭을 자체의 힘으로 만드느라 수고한 동무들과 함께 사진을 한장 찍자구.

저 넓은 사과꽃바다를 배경으로 찍어 동무들이 보고싶을 때마다 보겠소.》

장군님께서는 김송순이와 박용국의 팔을 잡아 량옆에 세우시고 일군들에게도 옆에 서라고 이르시었다.

김송순은 목이 짹 메여올라 어떻게 장군님곁에 가셨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리범국은 자책되는바가 커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가 없었다.

내각에서 파수부문을 맡아보다가 장군님의 신임에 의해 도의 책임일군으로 부임되어왔지만 이곳에 자주 와보지도 못하였고 크게 도와준것도 없었다.

자그마한 산골농장이 일을 하면 얼마나 큰일을 했으랴만 머나먼 북방의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여 그리도 기뻐하시며 축하해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에 머리가 숙여졌다. 큰 농장이건 작은 농장이건, 곁에 있건 멀리 있건 모두 한품에 안아주시며 인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고락을 함께 나누고싶어하시는 우리 장군님!...

잠시후 장군님께서는 김송순의 안내를 받으며 100정보과원의 한켠에 자리잡고있는 청년작업반을 찾으시었다. 청년작업반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며 만족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위생방역》이라고 쓴 큰 기와집앞으로 다가가시었다.

김송순이 장군님께 집짐승우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우리안에서 계사니, 오리, 닭, 돼지, 염소들이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각이한 목소리로 울어댔다. 김송순이 일순 당황하여 그리로 달려가려고 하자 장군님께서는 그를 만류하시었다.

《지배인! 놔두라구. 얼마나 듣기 좋아? 공장에서는 기계소리가 나야 하고 벌에서는 트랙터르동음이 울려야 하며 집짐승우리에서는 이렇게 집짐승소리가 들려야 정상인거요. 자! 동무들, 잘 들어두시오. 각종 집짐승들이 일시에 합창하는 이런 자연음악은 어디 가서 듣기 힘들거요. 안 그렇소?》

그이의 해학적인 말씀에 수행일군들이 이구동성으로 옳다고 대답드리며 웃었다.

5월의 하늘가에 높이 떠서 지중지중 노래부르

던 종달새가 부러운듯이 집집승우리의 빨간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그 광경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김송순을 일군들앞에 내세우시었다.

《내가 오늘 기쁜것은 현대적인 사과밭보다 그 절 만드느라 자기를 깡그리 다 바쳐온 일군을 만난 것입니다. 농장원들과 아이들이 〈우리 지배인〉, 〈우리 지배인큰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무가 해놓은 일에 대한 가장 귀중한 평가입니다.》

장군님께서 감격에 목이 메여 눈물짓는 김송순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데 아까부터 수행일군들뒤에서 주저하며 서있던 조인국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아버이장군님! 제 조성록의 아들 조인국입니다. 장군님을 뵈을 면목이 없습니다.…》

그를 알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반가우시었다. 몇년전의 일을 두고 하는 자기비판이라는것을 그이께서는 잘 알고계시었다.

《아! 동무가 조성록영웅관리위원장의 아들이요? 반갑소. 난 동무의 아버지 잘 알아.》

장군님께서 조인국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자 그는 걱정예 눈물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장군님! 절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그만 눈이 어두워서…》

《허허,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러오? 제때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과수농장을 꾸리는데 기여했다니 나도 기쁘오.》

그때 김송순이 말씀드렸다.

《장군님! 이 울타리도 인국동무가 나서서 해결해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한 눈길로 김송순이와 조인국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계승과 혁신을 잘 이해해야 하는거요. 부모들의 넋을 계승한다고 해서 낡은것을 고집하면 그건 계승이 아니라 보신이고 퇴보요. 참다운 계승이란 고귀한 넋을 토대로 한 전통에 든든히 뿌리박은 혁신과 창조이거던. 그래야 폭발적으로 전진하는 오늘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가형의 일군이 될수 있소.》

장군님께서서는 승용차에로 다가가시다말고 돌아

서시여 김송순과 조인국의 손을 하나씩 다정히 잡고 말씀하시었다.

《자, 이제 헤어지기로. 몸을 돌보면서 일해야 돼. 그럼 모두 잘있소.》

장군님께서 차에 타시자 김송순은 마치 자석에 끌린것처럼 승용차에 다가섰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차마 그냥 떠나실수 없으신듯 정겨운 눈길로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리는 김송순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이 순간 웬일인지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혈육의 정같은 뜨거운것이 짝차오르시었다. 이 땅 그 어데를 가나 믿고 아끼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면 항상 느끼시는 애뜻한 감정이시었다.

《울지 말라구. 자꾸 이러면 내가 어떻게 떠나나? 응? 이제 가을에 사과가 빨강게 익을 때 내 다시 와. 꼭 다시 온다니까.… 아버지들처럼 한생을 그렇게 살라구.》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송순은 깊이 허리굽혀 인사를 드리었다. 승용차는 천천히 떠나기 시작하였다. 승용차의 뒤좌석에 앉아 아버지장군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리범국은 가슴이 뜨거워오르고 눈앞이 뿌옇해졌다. 장군님의 색깔은 잠바웃것이 아프게 안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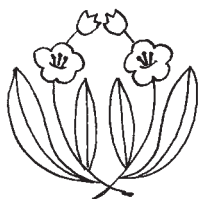
뿌리!… 사회주의 내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더 좋은 행복을 위해 한몸 그대로 뿌리가 되시여 자신을 깡그리 다 바쳐가시는 장군님!

장군님의 뿌리와 같은 고결한 헌신에 의해 사회주의제도라는 거목이 날마다 더 푸르싱싱해지고 가지마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나며 매 사람들의 한생이 붉게 빛나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아버이장군님의 뿌리와 같은 고결한 헌신이, 해빛같은 사랑과 믿음이 저 김송순이 하나만이 아닌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생을 붉게붉게 빛내주고있는것이다.…

5월의 화창한 하늘에서 태양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승용차는 점점 속력을 내어 달려갔다. 그날은 바로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해인 2011년 5월 18일이였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은 수령, 당, 대중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기본품성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수령의 사상이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 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라야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귀중히 여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모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닌 신변화, 량심화, 도덕화되고 생활화된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치자면 그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 어머니와 아들의 상봉

한 옥 란

어머니는 왜 우십니까  
아들이 공세우고 돌아온 이 기쁜 날에  
이 아들이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한 몸이라면  
군복을 입어야 한다  
군복을 입은 몸이라면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

웁다 아들이 네 말이 웁다  
나는 지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아는 해병되어 돌아온 너를 보니  
네가 보낸 편지의 구절이 생각나서 운다

—어머니 이 아들이 선 초소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바다를 지켜 영생한  
영웅해병들이 싸웠던 전장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조국의 바다를 지키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보셨지요  
우리 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천에 싸여  
어머니의 품에 안긴 이 아들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원이 되었습니다

당원증을 품은 가슴우에 빛나는  
훈장과 메달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시었으니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자랑하십시오

아들이 나는 굳이 믿었다  
군복입고 초소로 떠날 때  
네 가슴속에 품은 수첩에 적혀진  
리수복 길영조영웅들의 시에서

그리고 그 시와 나란히 자리잡은 너의 시  
—조국이며 믿어달라  
그대의 아들은 바다의 방패가 되어  
언제나 용맹하리라...에서

축복해주십시오 어머니  
원수님품에선 죽음이란 없습니다  
원수님품에선 영생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들을 품은 글발

—묘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그이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이 아들

아, 듣는가 사람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의 애국충정의 대화  
아, 보는가 사람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의 영원한 상봉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삶은 영생  
그 영생의 품은  
우리의 자애로운 김정은동지!

#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신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덕산》에 대하여—

김 해 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당백》 구호를 제시하신 50돐을 맞으며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과업을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은 시기에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덕산》(박봉운 작)이 출판되어 독자들속에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군건설령도업적의 상징으로 빛나는 대덕산.

장편소설은 제국주의강적과 포성없는 전쟁을 치르며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1996년 3월 준엄한 시련의 시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안아키우시여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백승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보다 심도있고 의의있게 보여주는 방향에서 종자를 잡고 사상과 주제를 밝혀야 한다.》

소설에서는 일당백은 선군혁명의 영원한 필승의 기치임을 사상적핵으로 하고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 온 나라의 모든 초소들을 대덕산과 같은 철벽의 요새로 만드는 길에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부강번영이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 구호는 우리의 총대를 강화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가는 길에서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들고나가는 구호이며 선군혁명령도의 불멸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 일당백사상의 빛나는 계승으로 백승을 떨치신 선군령장

장편소설 《대덕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일당백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하여 백승을 떨쳐가시는 위대한 정치가, 결출한 전략가로서의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 세계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 미제의 반공화국고

립압살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된 우리 나라의 엄혹한 실태를 명철한 통찰력으로 깊이 분석하시고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할 구상을 무르익혀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3년 2월 대덕산을 찾으시여 당시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시던 일을 회고하시는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인 현진국장령과 담화하시는 내용을 묘사한 장면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선군후로사상을 내놓으시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구상을 무르익혀가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 장면묘사, 현진국장령에게 일대일의 대응책으로부터 일대백으로 맞서는 대응책으로 적들의 책동을 짓부서버리도록 명철하게 작전방안을 가르쳐주시고 현명하게 지휘하시는 장면 등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오늘날 핵은 결코 미제를 비롯한 대국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강력한 핵억제력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권도 존엄도 지킬수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몸소 종합훈련장건설장도 현지에서 지도하신다. 우리 병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새로 꾸려진 종합훈련장에 구강치료차를 보내주시는 사연 등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강군으로 키워주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감동깊은 화폭에서 훌륭히 묘사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대덕산초소를 본보기로 하여 전군을 일당백으로 준비시켜 적들의 공세를 짓부서버릴 결단을 내리신 선군령장의 비범한 지략과 령군술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6년 3월 18일 진눈까비가 흩날리는 험한 날씨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던 그날을 추억하신다. 작품에서는 야전차를 타시고 대덕산을 한꺽이한꺽이 돌고돌면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격추 등 미제침략자들의 도발책동을 처부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장정을 뜨겁게 회고하시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펼쳐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찢어드시여 《일당백》 구호를 새긴 표식비앞에 오래도록 서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대덕산은 일당백의 고향입니다. 현지도사적비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새 세대 군인들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군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당백사상과 령도를 계승하실 장군님의 선군의지가 담겨진 이 말씀은 천만군의 무게로 안겨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신발이 푹푹 빠져들어가는 진창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중대병실로 가시면서 험한 길을 걷는 병사들에게 좋은 길을 닦아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병사들에게 콩음식을 먹이는 정형도 료해하시고 창고에 그득 쌓아놓은 콩가마니들을 밝은 안색으로 둘러보시면서 중대가 싸움준비뿐만아니라 콩농사에서조차 전군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신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오르셨던 야의감시소에서 가증스러운 적진을 굽어보시며 전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대덕산초소를 일당백의 본보기초소로 더 잘 준비시키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단정치위원 강창운에게 일당백사상에서 기본이 정치사상적준비라고 하시면서 병사들의 행군대오를 대덕산에서 출발시켜 제명산 통과훈련을 진행하도록 뜨겁게 말씀하신다.

펄펄나는 일당백싸움군들로 자라난 중대군인들의 멸적의 기상 내려치는 훈련모습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군인들이 언제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정치국장 조명록에게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적인 대덕산참관계획을 잘 짜고들며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은 선군령장의 비범한 지략과 불굴의 의지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대덕산을 억척의 지지점으로 하여 온 나라 모든 초소를 일당백의 보루로 다져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은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안겨주는 묘사형상이다.

인민군대를 그 어떤 현대전도 단숨에 결속할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을 소유한 일당백혁명강군으로 키워가시는 선군령장의 위인적품모는 제60사단을 찾으셨을 때의 침예한 극적정황에 대한 긴장한 묘사를 통하여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적들의 산고지에서 뻘히 내려다보이는 집중감시구역, 놈들의 저격사건이 몇차례 벌어졌던 위험천만한 길, 원썬들의 불구멍을 맞바아나간 판가리결

전의 한키로메터. ...

위대한 장군님께서야전전방감시소에서 포대경앞에 펼쳐진 무연한 등판과 개활지대를 보시고 예상밖의 정황이 조성될수 있다는것을 간파하신다. 또한 부대의 공격편성과 포병배치에서 빈틈을 찾아주시고 바로잡아주시므로써 전투의 승리를 안아오도록 이끌어주신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예리한 통찰력과 비범한 지략으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일당백선군령장의 위인적품모는 반미대결전에 대한 진실하고 개성적인 묘사를 통하여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미제가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B-2》 폭격기 509폭격비행단의 제393원정폭격비행중대를 팔도에 전개시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집중타격전》을 벌릴 공중이를 하고있는 엄혹한 시각!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예리한 안광으로 미제의 군사적음모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훈련방안을 내놓으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단의 제60사단과 제6포병려단, 최고사령부작전예비대를 기본력량으로 하는 지휘참모훈련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하시며 작전방안에 대한 결함을 포착하시고 적들을 때릴바에는 옆구리가 아니라 면상을 쳐야 한다고 가르쳐주신다.

바로 그 대답하고 결단성있는 선군령장의 강의한 배짱과 담력으로 하여 병사들은 힘과 용맹을 떨치는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총참모부로부터 피뢰1군단관하 25사단과 6군단관하 28사단이 증강된 직승기록전대, 《특공대》와의 협동하에 전선서부 대현리계선으로 공격해오고 팔도에 주둔한 미제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임의의 시각에 출동태세를 갖추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결전에 진입할것을 명령하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현진국으로부터 군단의 제60사단과 제6포병려단이 폐천강을 도하하였으나 봉당산 외통길이 막혀 한시간이상 걸려야 통로를 개척할수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30분동안에 수행할것을 명령하신다. 김광훈은 대담한 결심으로 30분동안에 통로를 개척하고 5리가 넘는 봉선호저수지를 일격에 도하하여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기 시작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이 공격력량을 더 확대하여 팔도에서 날아온 스텔스폭격기들이 복침할 기회만 엿보고있다는것을 료해하시고 ××포발사훈련으로 분별없이 날뛰는 놈들에게 본패를 보여줄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신다.

이처럼 장편소설은 비범한 지략과 불굴의 의지,

무적필승의 기상으로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시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백승을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묘사하여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있다.

이와 같이 소설은 대덕산초소를 본보기로 전군을 일당백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취급하고있지만 성격형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매 역사적사변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하여 깊이 새겨주고있다.

## 무성하는 일당백의 총대숲

소설에는 대덕산의 병사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 무성한 숲을 이루는 일당백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거기에는 거목도 있고 애솔도 있다.

작품은 장대식과 김하규에게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면서도 그와 밀접한 련관속에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성격을 독특하게 그리고있으며 소설의 극성도 인상깊게 살리고있다.

작품에서는 자신께서 가장 믿는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병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속에 인민군장병들이 어떻게 일당백혁명강군으로 자라나며 그들의 생활속에서 발현되는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상하고 혁명적인가 하는것을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또한 제48련대가 삼복철의 불리한 조건에서 제명산의 험한 지형을 극복하여 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제명산의 가파로운 칼벼랑들... 20번째 뽕죽고지는 온통 바위투성이여서 발을 붙이기조차 아까아까하고 경사까지 심한 정황에서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며 가파로운 벼랑을 넘어 용용히 굽이쳐흐르는 행군대로, 벼랑에서 돌이 갑자기 굴러내리는 위험한 순간 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리성병사, 멸적의 용맹 나래치는 화폭들과 세부들은 일당백훈련열풍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고상한 성격적특질은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에 기초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장대식, 김하규, 김광훈, 강창운 등을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로 형상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위인적품모를 더 잘 살리는데 초점을 모으고있다.

일당백으로 준비시키는것이 병사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라는것을 사업의 기준으로 삼고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장대식과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김하규의 형상은 당의 신임

과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며 자라난 실력가형의 두 지휘관들의 성격을 훌륭히 묘사한 생활형상이다.

김하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 《류성-2》호를 자체의 힘으로 갱신한것은 대단한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부장이 없는 사이에 토의도 없이 혼자결심으로 《ㄴ》방안을 기각시킨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자신의 결함을 뉘우치고 《류성-2》호를 완성하여 보고를 올린다.

이러한 생활묘사는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의 가장 순결한 충정의 세계를 잘 보여준 묘사형상이다.

또한 소설에서는 박창걸과 그의 안해 김순희, 김광훈과 김연금의 사랑선을 극적으로 깊이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나어린 병사인 자기를 품에 안으시고 몸소 찍어주신 석장의 사진에 깃든 사랑에 보답할 결심을 안고 군관학교를 졸업하자 대덕산초소에 탄원한 박창걸, 그의 뜻깊은 사진을 받고 사랑을 맺은 평양처녀 김순희.

광훈이의 나약한 생각으로 하여 사랑의 곡절을 겪는 연금은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의하여 총대와 함께 대덕산에 억세게 뿌리내릴 결심을 한다.

그리고 백놈의 적이 달려들면 단매에 처부실 결심을 다지는 송위용병사와 동지들을 한몸바쳐 구원하고도 군무생활에 지장이 될가봐 그들에게 자기 행처를 알리지 않고 딸에게 대덕산의 뉘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덕산로병이며 영예군인인 김경국의 묘사형상이라든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손길아래 그 어떤 형태의 현대작전과 전투도 능숙하게 지휘할수 있는 지휘관들로 성장한 젊은 사단장 려명웅, 김광훈련대장과 총참모부일군들의 형상은 일당백정신의 성격적구현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매 인물들의 성격속에서 펼쳐지는 생동한 생활형상을 통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의 힘이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 다양한 시점에서 그려진 위인의 송고한 인간세계

소설은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어나가고있다.

작품마다 형태상특성에 따르는 자기의 고유한 구성원리를 가지고있듯이 이야기줄거리가 구체적인 생활의 요구에 튼튼히 발을 붙여야 구성을 비판적인것으로 만들수 있다. 따라서 작품에서는 어느 한 요소나 부분이라든가 도저히 다른것으로 바꾸거나 들어낼수 없게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려나

가고있다.

작품에서는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초소를 본보기로 전군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사건을 기본형상 대상으로 내세우고있지만 이야기의 시작과 마감이야기를 제시한 그 사건부터 반세기의 로정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에서는 역사적인 이야기줄거리의 발전과정으로 성격과 사건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특히 각이한 인물들의 다양한 시점을 잘 살리고있다.

군단장 장대식과 이전 소련국방상 야조브의 시점을 통하여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풍만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장대식은 최고사령관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신임에 의하여 대덕산의 소대장으로부터 군단장으로 자라난 인물로서 그의 성격적해를 이루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이다.

그러나 일당백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는것으로 조직진행한 48련대의 제명산통과훈련에서 앞당긴 1시간 30분은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이 아니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다. 큰 훈련을 하느라 많은 인원과 료전기재를 포함한 무장장비들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때문에 전혀 예측할수 없는 정황들이 생길수 있다는것은 그의 오랜 군무생활과정에 굳어진 습벽이었다.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에 제명산을 통과훈련장으로 정한것은 아주 훌륭한 발기이지만 백, 천을 감당해야 할 우리 병사들의 피의 대가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승리는 승리한 전투라고 볼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종합훈련장이 중대병실과 멀리 떨어져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것은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대신 걱정만 끼쳐드린다고 생각하는 장대식은 심각한 자책속에 휩싸인다.

그는 훈련과정에 병사들에 대한 사랑을 떠난 훈련과 정치사업은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심장을 지닐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지휘관이 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작품에서는 이전 소련국방상이였던 야조브의 시점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이전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절망속에 빠져있던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받아안고 큰 충격속에 평양을 방문하여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꼭 받고싶다는 간절한 부탁을 일군들에게 제기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야조브를 접견하시고 예리한 분석, 정연한 론거로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신다.

야조브는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내세우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후로의 원칙이 시대발전과 사회계급관계속에서 밝혀진 독창적인 리론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또한 그는 엄혹한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면서 사회주의운명을 두고 후대들과 력사가 똑똑히 알도록 글을 쓰는것이 자기의 의무라고까지 고백한다.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야조브이기에 조선의 여러 참관지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더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는 야조브시점을 의문과 기대, 근심과 우려, 의혹과 호기심, 걱정과 환희의 감정축적과 폭발과정으로 잘 조직함으로써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보다 승화시키고있다.

특히 ××포의 위력을 시위하는 발사훈련을 참관한 그의 가슴속에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찬탄과 경모의 감정이 더욱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만일 력사가 나에게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가장 위대한 명장을 꼽아보라고 하면 그 맨 앞자리에 김정일동지를 놓을것이다...》

이것은 야조브의 심장에 새긴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이다.

이처럼 소설은 사회주의필승불패성을 신념으로 간직해가는 야조브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위인의 숭고한 풍모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실하게 묘사하고있다.

장편소설 《대덕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깊이있게 묘사할뿐아니라 우리 인민군인들의 심장속에 일당백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굳은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고있다.



시묵음

## 백두산마을의 노래

### 삼지연의 해맞이

오 상 철

희뽐히 먼동이 떠오니  
이 새벽에도 집집마다  
백두산을 향해 마주선 집  
창문들이 열리네

하늘과 가까워  
태양과 가까워  
해맞이도 선참인가  
해돋이노을속에  
백두산을 우러르는 삼지연마을

레사롭던 해돋이라면  
우리 마음 이다지도 뜨거우라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빛발속에  
송엄히 안겨오는 원수님의 그 영상

아직도 귀전에 뜨겁게 들려와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마을인민들을  
늘 생각한다시며  
원수님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

이 아침도  
당중앙청사의 창문을 여시고  
멀리 바라보시며 지으시는 미소는  
원수님마음속에 언제나 우뚝 솟아 빛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그 성산아래 축복받은 삼지연마을에 보내시는  
새날을 축복하는 사랑의 미소가 아닌가

아, 언제나 원수님의 마음속엔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고향 삼지연마을이 있어  
우리 영원한 운명의 태양 원수님 받들어  
강성국가의 해돋이 남먼저 맞으리라

### 베개봉의 5월

박 상 철

베개봉의 5월은 추억의 5월  
흘러간 세월 일흔다섯해전 그 봄날에  
수령님 이끄신 항일의 대오를 반겨맞던  
진달래 철쭉꽃도 변함없는  
빨찌산의 옛 추억 여기에 있어  
베개봉의 5월은 추억의 5월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려  
어둠던 강산에 해방의 새봄을 주시려  
항일의 대오를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압록강을 넘어오신 그 봄날을

영원히 빛내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 찾아주신 눈보라길이 있어  
베개봉의 5월은 그리움의 5월

베개봉의 5월은 맹세로 불타는 5월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사는  
전적지마을 아들딸들 원수님 따라서  
진격의 나팔소리에 대오를 맞추어  
강성국가건설총진군가 높이 부르며 가는  
백두산대국 봄맞이 5월이여라

### 푸른 지붕 높은 추녀아래

로 옥 선

하얀 봇나무숲에  
푸른 지붕 건듯 올린 집  
봄빛 떠인 높은 추녀는  
손님들 오시라 손짓하는듯

한식술인양 다정히 둘러앉은  
식탁마다엔 백두마을의 특산음식들  
마당가엔 답사생들 펼쳐놓은 노래춤에  
창가에 설레이는 나무들도  
입새를 펼치고 박수를 치는듯

아, 생각하면 꿈만 같아라  
수도에서 수천리 떨어진 여기  
삼지연의 땀땀 찬바람 맞으시며  
눈덮인 이 프락에 들어서신 원수님

장군님께서 돌아보신 베개봉국수집을  
감회깊게 돌아보시며  
베개봉국수집의 특산 농마국수를  
온 나라가 다 알게 하라고 하시었거니



오실거야 꼭 오실거야  
백두의 하늘가에 노을이 비끼면  
그 노을빛 안고오시고  
삼지연호수가에 은하수 비끼면

그 은하수 다리삼아 꼭 오실것만 같아  
간절한 마음속에 원수님을 기다림에  
추녀가 더 높아진 베개봉국수집!

## 참 좋은 저녁이다

### 강 철

봄물 오른 이갈향기 맡고파서나  
별들도 하나둘 반짝이는 저녁  
마음도 발걸음도 나래돌쳐  
딸애야 어서 가자 참 좋은 저녁이다

사연깊은 이 길을 너와 나 걷는구나  
경애하는 원수님 꿈만 같이 오시여  
소년궁전 문화회관 다 돌아보신 그길은  
허리치는 눈담장사이길이 아니었더냐

봄훈향 질을수록 가슴은 후덥구나  
평양에서 삼지연길은 천리도 먼 겨울길  
원수님 가실 곳 얼마나 많으시랴만  
혁명의 성지를 찾으신 걸음으로  
학생소년궁전부터 찾아주신 그 사랑

딸애야 어서 가자  
소년궁전 뽕족지붕이 너를 불러 손짓하는구나

로동의 희열로 가슴부푼 내 마음도  
원수님 관람석에 허물없이 앉으셨던  
저기 저 문화회관 무대로 나를 부르누나

너는야 마음껏 노래부르렴  
해님의 품속에 부럼없는 봄꽃 아기꽃의 노래  
아버지도 목청껏 노래하련다  
그 노래 높을수록 가슴젖는  
은혜로운 삶의 태양 원수님의 노래

아, 너의 노래 행복의 노래  
아, 나의 노래 보답의 노래  
즐거운 이 봄 저녁 한껏 어울려  
더 좋은 래일로 울려 퍼지리  
딸애야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별들도 함께 웃는 참 좋은 저녁이다  
백두산이 바라보는 뜻깊은 저녁이다

## 아름다운 기슭

### 서 봉 제

벗나무 비긴 물우에  
싱그러운 봄바람 일어라  
호수가엔 진달래 불불는데  
내 그 꽃송이에 고개숙여  
살며시 입술을 대어본다

마치도 생활의 질은 향기 맛보는듯  
그러면 겨울같은 맑은 물면우에  
기쁘시여 웃으시며 반기시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영상 안겨와  
사연은 많고 이야기는 뜨겁고...

하늘도 산천도 감격에 설레던  
조국진군의 환희로 해빛도 눈부신 기슭에  
찾아야 할 조국  
안기여줄 행복을 그려보시며  
그리도 밝게 지으시던 그 미소 어려와라

아, 수령님 찾아주신 내 나라  
진달래 만발한 유서깊은 이 땅에  
우리 장군님 리상촌 꾸려주시고  
인민들모두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려  
눈덮인 여기 삼지연호수가를  
맴짴 겨울날에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

밀림속에 솟은 거리도  
뽕족지붕 소년궁전 추녀높은 문화회관도  
세상에 보란듯이 멋쟁이로 꾸리고  
베개봉 체육촌엔 체육경기의 열풍  
백두밀림에 휘몰아치게 하시려 안겨주신  
크나큰 그 은정 그 은혜

꽃향기 감도는 꽃길이 아니었구나  
모진 눈보라에 외투자락 날리시며  
찬바람 생눈길 헤쳐가신  
인민사랑 미래사랑 그 발자욱 그 눈보라소리  
청청한 5월 밀림속 이 봄날  
이 가슴 뜨겁게 울리여라

가난했던 그 옛날 숲의 그늘이  
한점이라도 남을세라  
사회주의문명국의 밝은 웃음  
투사들이 남긴 밝은 웃음도 함뻍 떠실은  
삼지연 아름다운 기슭이여

아,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 안긴  
백두산아래 첫 동네 삼지연마을  
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시려 백설을 녹여가신  
강성국가의 새봄을 당겨오신 사랑의 자욱이여

# 행복의 계단

리 성 식

날에날마다 비약적으로 달라지는 내 조국의 모습을 현실체험의 길에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 느끼며 새로운 인연과 글감들을 만나는것은 작가로서의 나의 류다른 행복이다.

대한추위가 한창인 그때에도 나는 새로운 인연과 글감을 찾아 보물찾기에 나선 아이와 같은 흥분된 마음으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뜨겁게 받아안고 그 판철을 위해 산악같이 펼쳐나선 발전소건설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치받을듯이 드높았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발자취가 어려있는 희천1호발전소 통림언제전망도앞에서부터 현실체험의 첫걸음을 땀 나는 2호발전소를 거쳐 보름나마 청천강을 따라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자리잡은 발전소건설장들을 돌아보았다.

건설장들에서는 그새 많은 성과가 이룩됐었다.

평안남도려단이 맡은 8호발전소, 평양시려단이 맡은 9호발전소, 철도성려단이 맡은 10호발전소, 함경남도려단이 맡은 11호발전소들에서는 벌써 콩크리트언제가 거대한 형체를 드러냈고 발전기설기 초타입이 끝난 상태였다.

다른 발전소건설장들에서도 기초굴착을 끝내고 공사에서 은을 내고있는 보온양생법을 받아들여 엄동설한속에서도 끔찍없이 콩크리트언제혼합물타입과 흙언제다짐을 진행하고있었다.

나와 마주앉아 령하 20도의 얼음물속에서 가렬하게 벌어진 가물막이전투며 폭우와 눈사태속에서도 마대로 혼석을 날라 타입시간을 보장한 건설자들에 대해 뜨겁게 회고하던 중앙지휘부 일군은 궁지넘친 어조로 말했다.

《땃없이 흐르던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으로 전환시켜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결과입니다. 우린 청천강에 계단식으로 하나, 둘 건설되는 발전소언제가 곧 행복의 상상봉,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령마루에 오르는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것을 련상케 하는 뜻있는 말마디가 나의 가

슴을 짊 울리며 안겨왔다.

행복의 계단이라!...

나는 생각많은 눈길로 산세험한 수림 무성한 랑림산줄기와 묘향산줄기를 감돌며 줄기차게 흘러온 청천강을 취한듯이 바라보았다.

눈앞이어서 선명한 자태로 안겨오는, 거리가 멀어 아슴푸레한 료광으로 안겨오는, 혹은 수십리밖이어서 그 형체가 상상으로밖에 오지 않는 매 호의 발전소언제들이 눈앞에 순차대로 드리우며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높고 아름다운 봉우리로 오르는 길에 놓여지는 층계였다. 그 층계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기적적인 창조적로동에 의해 한돌기, 두돌기 쌓아진다.

어찌 그 계단이 청천강 하나에만 생겨난다고 하랴.

이 나라에 흐르는 맑고 푸른 강들마다에 그리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있는 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이 부러움 모르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꿈과 리상의 어엿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다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상상봉에로 가는, 미래에로 가는 층계라고 말하는 여기 발전소건설자들의 투쟁에서 나는 또다시 새로운 글감을 찾은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끄심과 행복과 번영의 높은 봉우리에로 가는 창조의 계단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려가고 있다.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건설되는 창조의 계단, 행복의 계단을 올라 세상에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부를 그날이 멀지 않아 오리라는것을.

나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찾아낸 글감보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창작전투장으로 떠나왔다.

나의 보물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 평숙물은 얼지 않는다

박 경 원

새벽의 강바람은 귀뿌리를 잡아비트는것만 같았다.

공사장을 가까이하던 함경남도려단 리원군대대대장 김경룡은 점점 당황해갔다. 아무리 귀를 강구어야 착암기소리가 들리지 않았던것이다. 사고라도 났는가? 다가가보니 굴착장의 한절반이 물에 잠겨있을뿐 사람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양수기까지 고장났는가? 아니면 피곤해서 잠시 쉬는 걸가. ...

주요기술장비들을 갖추고있는 리원대대는 희천 11호발전소건설에서 러단의 선봉부대라고 할수 있었다. 이들이 굴착장의 물을 처리해주고 착암과 발파로 진격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공사장의 한결음한 걸음은 그야말로 간고할것이었다.

새해에 들어와 러단에서는 타입조건이 불리한 겨울철에 작업전선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 물고기길 구조물을 경계로 두개 전선을 펴고 치렬한 경쟁을 벌렸다. 러단장조와 정치부장조로 갈랐는데 이미 하던 수문보관실구역 굴착장은 러단장이 책임지고 물맛 좋은 샘이 있다 하여 《샘골동네》라 부른다. 정치부장이 책임진 언제구역 암석굴착장은 《하늘골동네》라고 부른다.

《하늘골동네》란 구장군 수구리 하늘골이라 부르는 골짜기에 병실들이 전개되어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경쟁에서의 《하늘골동네》의 승패는 바로 리원대대가 기계화수단들의 능력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달려있었다. 밤이든 휴식시간이든 양수기와 착암기만은 잠시도 동음을 멈추지 않았었다. 그런데 대대장이 하루밤 자리를 비우는새에 이렇게 탕개들을 늦추고있는가. 그러지 않아 밤새 미타하게 걱정꾸레미를 풀지 못하고있었는데 영낙였다.

경룡의 머리끝까지 울기가 치밀어올랐다. 이거야 어디 맘놓고 자릴 뜰수가 있는가.

압축기나 전동기고장이 뻘뻘했다. 이것은 아침발과 계획이 드린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버럭처리를 맡은 대대들에서 개미역사질과 같은 합마작업에 달라붙어야 할것이었다.

경룡은 한달음에 달려가 《성원의 출입금지》라는 패쪽이 달린 압축기장문을 벌컥 열었다.

압축기수리공 랑명철이 입김이 서리는 속에서 압축기를 뜯어놓고있었다. 착암수들과 보조공들은 쭈그리고앉아 정신없이 졸고있었다. 러단의 선봉부대요, 돌파조요 하면서 새해 정초부터 산이라도 날려보낼듯 하던 호기들은 아예 찾아볼수 없으니 불쾌감이 짝악 전신에 내뻗쳤다.

《대대 기상!》 하고 소리치려던 경룡은 벽구석 의자에 팔짱끼고앉아 졸고있는 대대정치지도원 박경식이 눈에 띄우자 간신히 자신을 다잡았다.

눈섭과 뜨개모자앞부위에 성애가 허영게 불려있는걸 봐선 그도 금방 밖에서 들어온 모양이다.

《또 중간메달이 말썽이요?》

압축기에 다가오며 하는 대대장의 말에 랑명철은 의아하게 바라본다.

《룡림때부터 쓰던것을 아직 돌리는것만도 영웅입니다. 뜯었던김에 낡은 부속들을 싹 교체하면 새것처럼 돌릴수 있겠는데...》

《예비가 없소?》

《폐기된 압축기에서 회수한것이 있긴 한데 그것도 너무 낡아서 재생했대야 몇번이나 쓰겠습니까.》

《음, 번자판이라도 교체해야 압력을 높이겠는데, 좌우간 몇분내로 고쳐놓을수 있소?》

《두시간쯤이면...》

《안되오. 어떡하든 아침밥과시간은 보장해야 하오.》

저도 모르게 높아진 경룡의 말소리에 깨어났는지 정치지도원이 다가왔다. 그런데 소리는 내지 못하고 금붕어처럼 입술만 병긋거린다. 이 사람이 요즘 된추위에 말 못하는 병이라도 걸렸나? 급히 장갑을 벗어 이마를 짚어보니 다행히 열은 없었다.

자기를 약골로 아느냐는듯 박경식이 눈을 흘겼다.

《왜 아직 떠나지 않았소?》

모지름을 써서야 겨우 새어나온 소리였다. 피곤하면 종종 목이 짝 쉬곤 하는 박경식이었다.

그의 물음에 측은해지던 감정이 싹 빠져나간다.

김경룡은 말없이 뜬어놓은 압축기에 눈길을 돌렸다. 그에게서는 동물 믿고 자릴 뗐는데 보라,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는 속대사가 읽혀졌다.

사실 경룡은 이 아침 고향으로 떠나게 되어있었다. 어제 안해가 위급하게 앓는다는 소식이 왔던 것이다. 집사람의 병은 종종 앓곤 하던 병이므로 별일없을것이라는데 정치지도원은 고집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해야 바깥일도 잘할수 있다는것이다. 하루이틀에 끝날 건설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이 제일 완만한 시기니 무조건 집에 가보란다.

경룡은 성을 냈다.

《지금이 제일 완만하다구? 타입을 못한다뿐이지 겨울철이야말로 굴착속도를 낼수 있는 적기요. 작업전선을 최대로 넓힐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더구나 손이 팔려 대원들을 교대로 휴식주지 못하는것이 명치끝에 걸리는데 대대장부터 집에 가라구?!》

《혼자 일을 다 할것처럼 그러지 마오. 대원들을 믿을줄도 알아야지.》

정치지도원이 이쯤하고 물러서는가 했는데 러단 정치부장한테까지 찾아가 일러바칠줄이야.

정치부장은 경룡을 당장 불러들였다.

《리원대대에 결혼날자를 받아놓고도 집에 안 가고있는 대원들이 있소?》

《정치부장동지, 그들은 바쁜 고비나 넘기고 잔치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정치부장은 그 대답에 못내 실망한듯 설레설레 도리질했다.

《동무의 임무가 뭐요?》

《?》

경룡은 의아해졌다. 너무 뻔한걸 물어도 말문이 막히는 때가 있는것 같다. 나의 임무이자 우리 리원대대의 임무이다. 현재는 기계화수단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여 《하늘끝동네》의 앞길을 열어놓

는것이다. 발파로 광차밥을 흠뻑 만들어주는것이 상 있는가.

《바뀌놓고 생각해보오. 만약 동무의 딸이 잔치날을 미룬다면 아버지된 마음이 좋겠소?》

뜻밖의 물음에 《저에겐 딸자식이 없다보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갈번 했다. 그러나 경룡은 침착하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조향륜을 돌렸다.

《강성국가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벽찬 사업인데 그만한걸 희생으로 여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대원 한명한명은 열사람, 백사람뫼을 담당하는 기술자, 기능공들이어서 집으로 떠밀어도 딱 뻘칩니다.》

《그것두 말이라고 하오? 지금 우리가 발전소만 건설하는줄 아는가?... 명령이요. 당장 결혼대상자들을 집으로 데려갈것. 동무가 집집마다 돌면서 직접 축하를 해주고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대답은 했는데 마음이 알싸했다. 《저... 나까지 꼭...》

《사람이 그췌한 여유가 없이 무슨 일을 치겠소. 기계의 목소리를 들을줄 안다는 사람이 생활도 여다볼줄 알아야지. 통림에선 범대대장으로 소문났던 사람이 여기 구장땅에 와선 큰아버지로 불리운 다기에 제 궤도를 이젠 탔나 했더니 아직 된장독을 더 축내야겠군.》

등을 돌려뒀던 정치부장이 돌아서며 경룡을 의미있게 바라본다.

《집사람도 앓는다는데 병원에 찾아가 신심도 주고...》

마지막말은 처음과 달리 낮고 부드러운것이나 오히려 예리한것으로 흥벽을 긁어놓은것 같았다.

속에서 금방 부글부글하던 반발들이 찬물을 들췄는지 다시 떠올리려 했으나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계획들이 천리길도 넘는 고향으로 번개쳤다. 언제부터 광산에 압축기부속들과 착암기를 부탁했더했는데 이 기회에 직접 가면 빨리 해결되지 않겠는가. 경룡은 다시 힘차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이밤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리하여 경룡은 총각감투를 비로소 벗어버리게 될 2명의 대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당장 떠나려던 경룡은 대대목욕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것이 눈에 걸려 저녁에 손을 땀다. 그리고 새벽에 옷단장과 외모를 깨끗이 한 다음 일찍 떠나려 했으나 공사장에 무엇인가 떨어어든듯 한 불안감이 출렁거려 슬금슬금 나와본것인데 끝내 일이 난것이였다....



압축기속내에 밝은 랑명철이 이제 빠른 시간에 고장을 퇴치할것은 뻔하나 별스레 경룡의 눈엔 굵게 움직이는것처럼 보였다.

《한시간내엔 기어이 발파를 해야 하오.》

비장한 낫빛으로 장갑을 벗으며 손을 붙이려는데 별걱 문이 열리더니 오른눈에 안대를 댄 거뒀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어데 고장이요?》

대대전공 윤진수였다. 그는 해체해놓은 압축기부터 살펴보고는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마 전동기고장으로 알고 뛰쳐나왔던 모양이다.

며칠전에 눈에 티가 들어간것이 눈두덩까지 별정계 부어올라 려단군의들이 안정치료를 받으라 했는데 자기가 없으면 려단내 전동설비들 고장은 퇴치 못한다며 안전모를 폭 내려쓰고 사방 안 다니는데가 없다. 하긴 그만한 전기기술자가 없으니 일감이 그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지도 모른다.

어제도 윤진수를 억지로 데리고가 군의소에서 처치받고 병실에서 이틀간 안정치료를 받도록 보초까지 세워놓았는데 아침에 대대장이 집에 가고 없는 줄로 알았는지 몰래 새어나온것 같다. 검실한 얼굴로 경룡을 마주보기 딱해하는걸 보니 욕질하고픈 생각보다 차라리 일감을 더 주고픈 생각이 들었다.

《진수동무, 기대를 세웠던김에 전동기배아링을 교체하는게 어떻겠소. 어제부터 불안한 소리가 나던데 배아링이 뚫지 않았는지.》

윤진수의 얼굴에 주저하는 빛이 어렸다.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려단에도 예비가 없습니다. 참모장동지에게 제기하니 좀 기다리라고 하던데. ...》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전혀 딴 사람을 보듯 경룡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요즘 기대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위해 소비량이 많은 자재들과 부속들을 우만 쳐다보지 말고 미리감치 준비해놓는것은 대대에 세워진 법칙과도 같은 규률이다. 현대 꼼꼼한 실력자로 려단에 소문난 윤진수에게서 우는소리를 듣게 되다니. ...

허나 곧 생각을 달리했다. 이 압축기의 전동기도 전문공장에 대수리를 보내야 한다는것을 윤진수가 머리를 써서 단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돌리고있는 판이었다. 현실정에서 누굴 탓할 형편도 못되었던것이다. 기술력량이 센 다른 대대들도 있지만 우리 대대가 단연 기술설비대대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바로 책임성이 높은 이 재간둥이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설비의 안전성과 수명을 장담할수 없으므로 장려할것이

못되었다. 어제 불안스럽던 미세한 동음을 나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윤진수를 믿고 대책할 궁리조차 못하지 않았던가.

경룡은 기계의 호소를 들을줄 안다면서 사람의 진정을 오해할번 한 자신에 대해 더 불쾌해졌다.

이들의 기능과 기술우에서 떠받들리는데 습관되어 이젠 이들의 마음까지 기계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는가. 하긴 양수기들을 살리느라 눈코뜰새도 없이 부지깽이 타프춤추듯 했으니 스쳐지나간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굴리느라니 경룡은 자기가 자리를 훌쩍 뜬다는것은 되지도 않을 소리라는 생각이 또 든다. 급선무는 려단의 모든 양수기들을 땅- 출발신호만 울리면 만부하걸수 있게 수리정비하는것이였다.

발전소건설은 물파의 전쟁이다. 양수설비는 일선 공격무기인 동시에 건설마감까지 없어서는 안될 화력무기인것이다. 그런데 부족되는것이 너무 많다. 양수기배판, 흡입판, 흡입변제작도 지금 자재가 팔려 건들건들한 판인데 대대장이라는데 참호를 비울 궁냥을 하다니. ...

경룡은 단호하게 대원들을 기상시켰다. 화김에가 아니였다. 채 착암하지 못한 발파구멍들을 정대와 함마로 뚫어서라도 발파시간을 보장하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작업장은 모두 물에 잠겨있다. 어찌된 일인가. 2선가물막이밖에까지도 물이 차있는것을 보면 10인치짜리 대형양수기가 정말 고장난것 같다.

멀지 않은 곳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니 돌격대원들이 우르르 나오는것이 보였다. 어느땐 발파소리가 끝나야만 와르르 쏟아져나오던 그들이 오늘은 웬일인가. 온몸이 오싹했다. 함마와 정대들을 하나씩 들었다. 혹시 누가 벌써 입바르게 《하늘골동네》의 압축기가 숨졌다고 소문낸게 아니야? 하고 생각하던 경룡은 지체없이 양수장으로 내달렸다.

어제만 해도 운전공 장재성은 양수기들은 걱정 말고 맘편히 집에 갔다오라며 얼굴에 웃음발을 띄웠었다.

그는 부모는 없지만 대학공부를 한 제대군인이며 악의없는 룡담도 곧잘하는가 하면 눈물 또한 흐르기도 해서 별스레 애정이 가는 청년이였다.

잔치날까지 정했다던 청년이 공사장에만 불박혀 감감무소식이니 이번에 집에 갈 때 데리고가 사정도 알아보고 가능하면 부모를 대신하여 결혼식까지 치러해주자고 걱정했는데 본인이 《하늘골동네》와 《샘골동네》 전굴착장의 물빠기를 맡은 양수공이 자릴 뜨면 어떻게 하는가면서 후비를 바로 양성해놓은 다음 보자고 우겼었다. 기계소리는 들을줄

알아도 생활을 다 모른다는 정치부장동지의 지적이 옳은것 같다. 기대의 정상가동을 살피기 전에 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정상을 파고들지 못했는가. 그때문에 사고났다면?!

경룡이 10인치양수장을 가까이하니 《샘골동네》 굴착장이 한눈에 안겨든다. 저런, 거기서도 돌격대원들이 쏟아나오고있었다. 《하늘골동네》 돌격대원들한테 참패를 당하지 말자며 어제 밤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했다던데...

정말 큰 사고가 난 모양이다. 《샘골동네》 굴착장도 빠지지 못한 물이 질펀하니 고여있었던것이다.

양수장앞에는 언제 만들어놓았는지 눈사람이 보초병처럼 눈을 부릅뜨고 《성원의 출입금지》라는 표말을 날창처럼 들고 서있는데 그앞에서 대대의 막내인 리주현이 녀불의우듯 눈을 감고 종얼종얼하며 왔다갔다하고 손에 든 종으로 보아 《양수공의 임무》를 외우고있을것이다. 장재성이 시공참모직까지 겸하고 늘 바빠하길래 양수공으로 양성하라고 막내이를 붙여주었더니 처음부터 신발을 바로 신기자고 꽤나 달구는 모양이었다.

《재성동문 어데 갔소?》

경룡은 대답을 기다릴새없이 양수장문손잡이에 손을 갖다댔다. 그런데 별안간 리주현이 손을 짹잡는다. 뭔가 애원하는듯 한 눈빛이었다. 이건 또 뭐야, 그러니 이안에 순결치 못한 행위가 있다는 게 아니야?...

경룡은 버럭 화가 치밀어 주현을 밀쳐버리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허나 안은 조용했다. 아궁에선 숯불이 이글거리는데 옷바람이 세서인지 랭기가 이마를 쳤다. 온돌우에는 벗어버린 옷가지들이 놓여있었다.

《어데 있어?》

대대장의 매서운 눈초리에 주현은 주저하더니 양수장뒤쪽을 가리켰다.

《흡입변에 뭐가 끼었다면서...》

《뭐? 또 몰래 얼음물속에 뛰어들었구나.》

흡입변에 돌모래라도 끼우면 양수기를 쉬우는 경우에 배관과 흡입관에 찬 물이 다 빠지므로 재차 돌리기 바쁘게 된다.

그러고보니 집수구물면우에서 잔 공기방울들이 꼬르르륵 파문을 일으켰다.

경룡은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렸다. 마음이 막 타는것 같았다.

설명절전에도 양수기흡입변에 끼운 불순물을 제거하겠다고 얼음물속에 뛰어들었다 해서 다시 들어가는 날엔 용서치 않겠다고 욕질했는데 오늘은 보초까지 세우고 또 얼음물속에 들어가?... 나오기

만 해봐라... 마음속으로 버르는데 눈물이 나오도록 긴장해졌다. 한초한초가 1년맛잡이로 지루한데 이렇게 기다릴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막 한스러웠다.

《들어간지 몇분 되었소?》

《5분 거의 되었습니다. 3분이면 된다더니, 씨—》

주현의 말투도 울먹울먹하다.

꾸르륵꾸르륵, 푸— 고래숨같은 분수가 솟구치는듯 한 환각이 일었다. 허나 솟구친것은 구슬싸래기처럼 반짝이는 물기를 사정없이 털어버리는 알몸뚱이였다.

경룡은 장재성의 손을 날래게 잡아당겼다.

옆에서 주현이가 날래게 털담요를 재성에게 걸쳐주었다.

《빨리, 빨리! 온돌우로—》

경룡은 재성을 안아들이다싶이 하여 온돌우에 앉혀놓았다.

빙글서 웃음을 띄우느라 하였지만 재성의 얼굴은 오히려 이지러졌다. 와들와들 떨며 재성이 말했다.

《불순물이 끼우지 않게 흡입변에 보드라운 쇠그물을 댔으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을것입니다.》

《견어치우오.》

경룡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장재성과 리주현은 우뚝 놀라며 화등잔만 한 눈으로 경룡을 바라보았다.

가슴에 짹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이렇게 터놓는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되면서도 경룡은 다시한번 웨치다싶이 말했다.

《몇번을 말했다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선 안된다고, 다시 들어가면 내 혼썰내겠다고 말했다지? 장재성!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는 돌격대원은 필요없소.》

경룡의 말에 장재성은 그만 아연하여 입을 딱 벌렸다.

《아니? 대대장동지!》

그러나 경룡은 창문을 향해 픽 돌아섰다.

그런데 이때 《샘골동네》의 물이 찬 굴착장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내다보였다. 러단장이였다. 그뒤로 밖에서 서성거리던 돌격대원들이 우르르 따라들어선다. 다들 물바게쓰를 들었다. 흡입관에 물을 채워야 양수기를 돌릴수 있는것이다.

드디어 양수기스위치를 넣었다. 그런데?!...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홍곽속에서 떡매질하는듯한 박동소리만 요란하게 느껴졌다. 양수기동체가 부르르 떠는것을 보고서야 경룡은 자기가 너무 긴장했다는것을 알았다. 차츰 용을 쓰는 동음이 들리

더니 이어 썩— 하는 물소리가 났다. 정상이었다.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안도감과 함께 걱정으로 뿌듯한 마음을 붙안고 둘러보느라니 그의 눈에 장재성이 띄었다. 리주현을 붙안고 쟁쟁쟁쟁 돌아가다 멈춰서 굳어지는 그에게 주먹을 들어보이고난 경룡은 문밖을 나섰다.

…차츰차츰 물이 찌기 시작하는 굴착장을 보며 경룡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한숨으로 바뀌었다. 착정기옆에서 함마질을 하고있는 차림새 다른 대원들이 보였던것이다. 외출복차림으로 나섰다가 함마작업에 뛰어들어 림철진이와 김정길이었다. 경룡을 보고 잔치상을 받을 때 둘러리틀 서달라던 착암수들이었다. 이제 저들을 보고 저희들 먼저 집에 가라면 섭섭해할것이다. 애당초 말을 듣자고도 하지 않을것이다.

알알한 심정으로 다가간 경룡은 덮어놓고 옆에서 허공에 원을 그리며 신나게 내리꽂히려던 함마를 뺏아잡았다. 그런데 상대가 꺾 틀어잡고 놔주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길을 돌리니 뜻밖에서 단정치부장이었다.

《함마질이나 하는게 동무의 임무인줄 아는가?》하고 꾸짖는 속대사가 정치부장의 얼굴에 력력히 썩여있었다.

《오전중에 여기에 양수기 한대 더 배치하렵니다.》라는 대답이 꿈틀거리는데 겨우 참았다. 혹시 아직 집으로 출발하지 않았다고 상당히 불쾌해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룡의 아래우를 뜯어보던 정치부장은 뜻밖에도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할테니 동무네 대면 아침식사부터 하오.》하고 말하는것이였다.

경룡은 먼목이 없었다. 러단의 재간둥이들이 다 모인 기술설비대대라고 큰소리만 쳤지 왜 있을수 있는 정황들을 미리 예견한 주동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는가.

경룡은 대원들을 이끌고 굴착장안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누군가 팔을 건드렸다. 돌아보니 러단적으로 흔치 않은 녀성돌격대원 리영희가 나직이 속삭였다.

《대대장동지, 물속발파라도 하고 들어갑시다. 이젠 발파구멍개수가 거의 된것 같은데.》

경룡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사람발전이 이렇게도 빠르나. 돌격대에 입대한지 한달도 안되는데 제법 전문발파공처럼 말하니 말이다.

물고기길타입을 칠 때 돌격대에 갓 입대한 리영

희는 혼합물맛들이를 나르는 첫날부터 눈물을 흘렸었다. 아주머니라고 봐줄줄 알았는데 일에선 호랑이라는 대대장이 섬약한 팔이 툭 떨어지게 듬뿍듬뿍 담아주고도 빨랑빨랑 뛰라고 재촉만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경룡은 그와 마주서서 직통배기로 말했었다. 그쯤한 일로 눈물이나 흘릴바엔 왜 돌격대에 나왔는가, 이제라도 돌격선에서 땀흘릴 자신 없으면 돌아가도 좋다....

다음날 영희아주머니는 웬걸, 도전이나 하듯 더 큰 맛들이를 들고 나타났다. 그때 맛들이만 커진줄 알았더니 이젠 힘도 어별도 커진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리영희의 말을 받아들일수 없었다. 물이 썩 다음 발파효률을 높이려는 전체적인 리익에 복종해야지 대대의 명예만을 위해 모험할수 없었다.

늦은아침이었지만 식탁은 풍성했다.

...하, 이거 냄새만 맡아도 당장에 살이 붙겠는걸. 보나마나 이걸 우리 대대장동지 숨쉴일거야....

수군수군 대원들의 속삭임이 좌중에 흘렀다.

명절날이나 구조물이 하나씩 완공되는 계기점마다 대대장자신이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숨쉴 발휘하곤 하는 별식이였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가.

어제 경룡이 대대목욕탕이 눈에 걸려 손질한 다음 막상 떠나자고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요즘 입술이 험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수고하는 대원들을 위해 뭔가 더 해놓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진것이다.

그래서 돼지고기김치밥을 해주고 떠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본재료가 문제였다. 돼지우리엔 한창 자라는 놈들뿐이라 속이 상해 전전긍긍하는 판에 기적이 일어났다.

두명의 낮모를 처녀들이 돼지를 끌고 나타난것이였다....

《그 처녀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룡은 입이 벅글서 벌어지며 다우쳐묻는 장재성의 귀를 잡아흔들었다.

《그저 처녀얘기만 나오면 귀가 한발이야.》

자존심이 상하는지 장재성이 《체.》하고 코방귀를 끼더니 주머니에서 파자봉지를 꺼내놓았다.

《새벽에 정치부장동지가 오셨다 간 다음 나타난 처녀들이 나한테 주고간겁니다.》

제법 시통해서 어깨를 으쓱거리는 장재성에게 경룡은 되물었다.

《양수기가 멈춰섰을 때 말이요?》

《아닙니다. 그때 썩썩 잘 돌았습니다. 새벽 2시 쯤이니까 그 처녀들이 온 시간은 2시 5분, 이렇게

장갑까지 주고갔습니다.》

장재성이 코멘 소리로 심중히 말하는데 압축기운 전공들이 반박하여 몰아냈다.

《이상할건 없어. 그 처녀들은 우리한테도 왔겠네. 자네한테만 살갑게 군줄 아나?》

그만 웃음이 터졌다.

창길아바이도 두툼한 새 장갑을 꺼내들며 아는 체 했다.

《나한테도 왔겠지. 용접불에 구멍이 숭숭한 헌 장갑을 보고는 이렇게 두툼한걸로 두컬레나 주고갔었네. 그 처녀들은 겨울방학기간에 단천대대로 지원나온 대학생처녀들이야. 리원의 남아장부들, 오늘은 어떻게 하나 그 처녀들을 우리 대대에 초청하랴구. 인사도 나누고 노래도 들읍세.》

《거참 좋군요.》

《좋습니다.》

흥이 난 대원들이 쪼고 까불었다.

부엌아궁에서 젖은 장화와 양말을 말리우며 대원들의 이야기를 듣던 경룡은 어제 밤일을 상기했다.

…며칠전부터 두명의 대학생자매가 단천대대에 지원나와 돌격대원들과 함께 맞들이도 들고 합마질도 하는데 휴식차면 간식공급까지 하며 후방사업에 열성이라는 말을 들었었다. 그 처녀들이 한밤중에 돼지를 끌고 리원대대병실로 나타났으니 이것은 꼭 제비가 물어온 박씨이야기를 체험하는것 같았다.

그런데 어디서 사는 누구란것은 말하지 않았다. 말씨로 보아 함흥처녀들같은데 그저 정치부와 토론이 있었으니 반기만 하란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고 반기만 할 사람이 어데 있는가. 도로 가져가오. 직일병! 이 동무들을 내 쫓으시오.》

그래서 가져가라느니 받으라느니 하는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참을성이 부족한 동생이 그만에야 발끈했다.

《언니, 가자요. 아버지가 왜 하필 이런 무례한 대대를 꼭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는것도 빌면서 줘야 하는가요? 단천대대에 주고말자요.》

《아버지가 누구신데?》 경룡은 물었다.

언니가 동생을 쿡 찼었다. 흠칫했던 동생은 툭 한마디 내쏘고야만다.

《만약 정치부장이 우리 아버지라면 받겠나요?》

그때 경룡은 당돌할뿐아니라 익살기까지 있으니 속썩기는 글렀구나 하는 락심에 인차 손들고말았었다. 그런데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느 격으로 새벽에 양수장에서, 압축기장에서, 용접장에서 정치부

장이 간 뒤로 두 처녀가 나타나군 했다니 어제 일도 레사롭지 않다. 우연같기도 했지만 생활에서 똘 관성이 없는 맹목적인 인연이란 없는 법이다.

경룡은 흠뻑하고 코방아를 찼었다. 그러니 정치부장동지는 우릴 집에 보내면서도 제 딸들은 공사장에 데려오고… 이 얼마나 상반되는 모순인가. 이젠 나도 뭔가 뻗뻗하게 들이댈 건덕지가 생겼다.

빵- 발파예고고동소리가 울렸다.

다급한 호각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여무진 발파소리가 겨울의 지심을 흔들었다.

잠시후 발파해제신호가 나자 기다린듯 대원들은 야외병실에서 우르르 쏟아나갔다.

굴착장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쪽우에 올라서니 권양기를 손질하고있던 리철남이 러단설비참모와 다 두고있었다. 러단장이 《샘골동네》의 권양기대수를 늘이겠다며 리원대대의 예비쇠바줄을 요구한다는것이였다.

어제 러단장이 와서 《샘골동네》보다 《하늘골동네》가 넓이로 보나 암반조건으로 보나 굴착량이 방대하다고 심심히 넘겨해주었었다.

그때 경룡은 서로 치렬한 경쟁을 벌려도 《샘골동네》좌상의 마음은 《하늘골동네》에 있구나 하고 감동했었는데 이제 보니 예비쇠바줄보유량을 텅 텅해간것 같았다.

하지만 경룡은 인차 마음을 현현하게 다잡았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치자면 《샘골동네》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오늘은 청천강의 흐름을 멈춰세울 언제굴착구간이 주타격방향이지만 매일은 발전기설구간이 주타격방향이 될수 있는것이다. 경쟁이라고 현재 쓰지 않는 예비를 묵여둘 필요가 없다. 깡그리 최대동원해야 한다.

키가 썩중한 리철남을 설복시켜 《샘골동네》에 직접 쇠바줄을 가져다주게 한 경룡은 이름할수 없는 패감에 휩싸였다. 어느새 4인치양수기가 한대 더 설치된것을 보았던것이다.

포신처럼 들리운 2개의 배관으로 팔팔 뿜는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는 모양이 장관이였다. 굴착바닥이 깊어지면 질수록 물량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양수력도 세진다. 우리의 힘도 더욱 억세여지고 만복의 그날도 앞당겨진다. 양수기로 저렇듯 만복을 퍼내고퍼낼 날이 멀지 않았다. 원천은 무진장하거니, 누가 겨울을 갈수기라더냐.

술직히 발전소건설자들만큼 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우리에게는 빗으로, 열로, 전기로, 나아가서 노래로, 웃음으로 감수되기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건설한다.

착암기소리, 착정기소리, 요란한 굴착장에서 웃



음소리까지 겹친걸 보니 드디어 압축기가 춤을 추는 모양이다.

이때였다. 청천강쪽으로 물차단하게 된 2선가 물막이벽체가 와르르 무너지며 여기저기서 물줄기가 솟구쳤다. 벽체가 가까이에서 발파한 까닭인지?...

아니였다. 방파제처럼 든든한 1선가물막이뚝을 뚫고들어와 2선가물막이콘크리트벽을 밀어내는 수압이 실로 놀랍기만 하다, 물먹은 담벽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려단시공파장의 말에 의하면 청천강에 흐르는 물의 절반은 땅속으로 흐른다고 한다. 경룡은 여러 중요대상공사와 또 룡림의 심부층 물길굴공사를 통하여 지하수의 위력을 알대로 알았지만 이렇게 2중 인공차단물들까지 뚫고 돌파해들어오는 파렴치한 물줄기를 보느라니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해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감상에만 빠져있을새가 없다. 주변에서 일하던 착암수들이 먼저 달려들어 몸으로 덮치고 흙마대를 날라다 쌓는다. 맞서보자. 자연이여, 네가 아무리 세다 해도 우리의 정신력에야 이기랴 하는 배심으로 경룡이 흙마대를 하나 훌쩍 들어올리는데 누군가 흙마대를 뺏아멘다. 정치지도원이었다. 뭐라고 성이 나 짹짹 웅크려는데 옷 더럽히지 말고 빨리 집으로 떠나라는 소리같았다.

경룡은 아무 말도 않고 흙마대만 뺏아메었다.

그러나 어깨에 닿기도 전에 누가 또 흙마대를 뺏아메고 도망쳤다.

모두가 그래도 자기 지휘관이라고 몸을 내대는데 나는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뜨거운 격정이 치밀어오른다. 말로는 한가정ियो, 한식술ियो 하면서도 진정 혈분이처럼 대해주었던가.

무엇보다도 이 마당에 와서 보니 나에게 자기 대원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것 같다. 기계도 기계

지만 이런 대원들이 있어 우리 대대가 그토록 강한것 아닌가.

잠시후 급한 고비를 넘긴 위험구간에 콘크리트 혼합물이 쏟아지고 막돌들이 처박힌다. 착암수들이 다시 착암기를 틀어잡았다. 그속에 림철진이와 김정길이가 끼우려는것을 장재성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게 왁왁 작업장밖으로 내몰았다.

비록 흙탕물이 좀 튀었으나 그들의 차림새가 멀쭉해보인다. 경룡은 이마를 탁 쳤다. 그렇지, 오늘저 신랑감들을 집으로 인솔할 임무를 받았었지. 그 임무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걸음에 장재성이 문제도 꼭 해결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뿌듯하게 지지누른다. 몸은 떨어져있어도 지휘관의 마음은 언제나 저들, 대원들속에 있어야 한다.

드디어 경룡은 결심을 내렸다.

《착암수 림철진, 김정길, 날따라 앞으로!》

부드럽게 말하려 했는데 굳어진 습벽 그대로 불쑥 명령조의 말이 튀어나갔다.

그런데 제길할, 굴착장밖으로 향하는 자기들에게 섭섭한 표정이라도 지어줄줄 알았는데 돌격대원들이 시원한 환성을 지르며 바래준다.

정말 뜨거운 마음들, 고마운 동지들이네.

뚝에 올라서다 이상한 예감에 돌아보니 굴착장복판의 광차옆에서 빙그레 미소를 보내고있는 정치부장이 찻눈에 띄었다. 그옆에선 대학생처녀들이 손벽까지 치더니 열렬히 손을 흔들고있었다.

마치 개선장군이 된 기분으로 경룡은 마주 손을 흔들었다. 그렇다, 우리는 행복의 창조자, 오늘의 승리자들이다.

경룡은 의기양양한 걸음을 내짚었다. 구름장우로 태양이 불끈 얼굴을 내밀었는데 바람에 실려온 눈가루가 그 찬란한 빛발을 받아 은꽃가루처럼 반짝이며 그들의 앞길에 뿌려지고있었다.

## 가 사 .....

### 내 삶을 리 동 일 빛 내 주 네

떠나온 고향집의 하얀 담벽에  
소중히 걸려있을 나의 입대증  
조국보위 그 영예를 안기여주며  
내 마음에 정다웁게 어리어오네  
아 내 삶을 빛내주는 나의 입대증  
  
초소의 이 아들이 그리울 때면  
부모님 바라보실 나의 입대증  
고향앞에 땀땀하게 살아가라고

나를 불러 위훈으로 떠밀어주네  
아 내 삶을 빛내주는 나의 입대증  
  
애국의 첫자리에 병사를 세운  
그 믿음 어려있는 나의 입대증  
원수님 결사옹위 증표가 되어  
한생토록 나의 삶과 함께 있으리  
아 내 삶을 빛내주는 나의 입대증

# 청천강권역

## 붉은 강

### 한 원 희

하늘도 청청하늘  
강물도 맑고 푸르러 청천강  
오늘은 여기에 불야경을 이루어  
강도 붉은 강

보아라 수백리 굽이마다 물목마다  
산악같은 언제들이 소리치며 일어선다  
층층계단식발전소들이  
불불 세찬 불바람을 일으키며  
일제히 솟는다 치솟아오른다

언제의 교각에 타입장 곳곳에 나뭇기는  
붉은기 붉은 기발들  
강물에 어려 강도 붉은 강  
돌격대원들의 눈에도 황황 타는 불  
땀방울에도 어려 불꽃으로 빛나

불을 안고 우뢰친다  
불을 안고 폭풍친다  
산악같은 흙을 밀어가는 불도젤들  
폭포처럼 혼합물을 쏟아붓는 벨트콘베아들  
포신처럼 하늘을 휘젓는 기중기팔들  
축포처럼 하늘을 수놓는 용접의 불보라들

어디서 타올라 불는 불인가  
어버이장군님 오르셨던 전망대여  
네가 말해다오  
회천속도를 창조하도록 해주시던 그 영상  
그리워 한없이 그리워 타오르는 불

말해다오 청천강이여

장군님의 유혼을 찬란히 빛내가자고  
《마식령속도》의 정신을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심장의 불이  
건설자들의 심장에 세차게 타번지는  
위훈의 불  
애국의 불

그 불의 웨침 그 불의 메아리  
하늘땅에 가득차다  
들으라 적진을 들부시는 포화처럼  
백승의 기상을 떨치는 건설의 포성  
들으라 총공격 총진군의 천만뢰성

보인다 보여와 가슴을 친다  
불의 산악 언제들이 일떠서는 모습  
미래를 당겨오는 선구자 개척자들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안고  
거세차게 불타오르는 날과 날들

아, 한가슴에 어이 다 안아볼수 있으랴  
밤에도 불야경  
낮에도 불바다  
하늘도 붉은 하늘  
강도 붉은 강

여기서 전기도 붉은빛 뿌리며 태어나리라  
태어나 온 나라에 번개쳐가리라  
우리 거리 우리 마을에  
내 나라 방방곡곡에  
행복의 불야경이 펼쳐지리라!

## 경쟁도표

### 곽 명 철

쇠물처럼 끓어번지는  
청천강반전투장 그 어디에서나  
비약의 불바람을 안고  
경쟁도표들이 섬없이 키를 다룬다

솟는 언제의 높이를  
어이 다른 곳에서 찾으랴

다름아닌 이 경쟁도표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언제의 높이가 새겨져있는데야

언제와 언제들이 솟는  
그 어느 발전소건설장에 가보아도  
완공의 그날에도 오르는 경쟁도표의 붉은선들이

폭풍을 불러 기적을 떨치는  
돌격대원들의 억센 기상을 말해준다

저 경쟁도표의 붉은 줄엔 비껴있다  
손에 피멍이 졌어도 함마를 놓을줄 모르던  
돌격대원들의 땀방울이 그 진정이  
밤이 지새도록 타입장을 떠날줄 모르던  
랑만과 그 웃음이

아, 우리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전기강으로 빛내일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그 마음  
조국을 떠반드는 열정의 분출인가  
저 경쟁도표의 붉은 줄들은

겨울이면 겨울의 엄혹한 추위속에서

여름이면 장마철의 무서운 폭우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정신력의 높이인가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의 도표여

여기서 자란다  
인민의 만복을 안아오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말보다 실천으로 꽃피워갈  
수령결사옹위의 대오가

오, 수백리 청천강반에  
날마다 키를 닦으며 치솟는 언제들을  
그대로 살아숨쉬는 거대한 경쟁도표로 바라보며  
조국이 인민이  
강성번영의 그날을 높뛰는 가슴에 안고산다!

## 청천강치녀

김 성 철

너의 고향마을을 안고  
용용 굽이쳐흘러가는 청천강  
그 맑은 물 마시며 자랐다고  
돌격대 중대동무들  
너를 찾을 땐 이름처럼 부르누나  
청천강 청천강치녀라고

고향의 강을 전기강으로 빛내는 일  
하도 자랑스러워  
밤낮으로 달리던 길을  
꿈길에서도 뛰며 달린다지

학교시절 수영을 할 때에도 앞서 헤엄친 힘  
스케트타기에서도 앞장서 달리던 힘  
네가 자란 이 강에 정을 바쳐  
남보다 한결음 더 달리는 발걸음  
남보다 돌 하나 더 나르는 귀한 마음

청천강처럼 맑은 너의 랑심  
청천강처럼 끝없는 너의 열정

청천강처럼 아름다운 너의 모습  
그래서 너는 청천강치녀

나서자라며 걸은 길을  
한해맞잡이로 걸으며  
미래를 당겨오는 너는 선구자  
비약의 불바람 없인 너는 못살아

원수님 올해 건설의 첫자리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내세워주신  
그 믿음이 한량없어 다함없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너의 그 마음 언젠에 쌓는구나

아, 고향의 강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으로 빛내갈  
청천강 청천강치녀야  
원수님 그리며 달리고달리는  
너의 담차고도 진함없는 발자국따라  
언제가 솟고 전기가 흘러 빛나리라

## 려단장은 대렬감사를 주었다네

한 원 희

우리 소대 스물다섯 대렬앞에서  
려단장은 거수경례도 엄숙히  
대렬감사를 주었다네  
발전기실기초굴착 전투임무를  
보름이나 앞당겨 끝냈다고

려단장도 처음엔 생각 못했다네  
자갈과 모래 크고작은 돌들이  
억척바위처럼 얼어붙은 강바닥을  
이렇듯 쉽게 파낼줄을

굴착기에 무쇠추를 매달아 내려쥘어도  
무쇠추는 공처럼 튀어만 오르고  
언제의 기초에 실금이라도 생길가봐  
발파도 못하고 난관이 앞을 막았네

하지만 우리들은 해내고야말았지  
겨울을 눌러딘고 추위를 휘어잡고  
기일을 앞당겨 멋들어지게 끝냈거든  
려단장도 우리의 격에 맞는 멋진 말로  
소대의 영예를 복돋아주었다네

동무들은 강추위와의 대결에서  
건설자들의 슬기로 승리했다고  
적을 치던 빨찌산전법으로  
강추위를 휘어잡는 일당백공격속도로  
려단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허 그 칭찬은 좀 지나친데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였었네  
빨찌산식전법은 영원한 승리전법  
일당백공격속도는 영원한 조선의 속도

아, 청춘의 열정으로 불타는 우리의 가슴마다에  
축하의 꽃목걸이 안겨주는 사람들  
중대와 대대 온 려단이  
우리 소대의 모범을 본받겠다누나

아무렴 위훈을 떨쳐야지  
그래야 조국의 감사를 받을수 있지  
우리는 꿈많은 미래의 개척자들  
청천강발전소 준공의 그날엔  
조국이 우리를 축복해주리

## 강반의 랑만

### 김 명 철

문을 열어젖힌 식당들은  
마당가득 구수한 밥냄새 풍기고  
지휘부창가에 올라앉은 증폭기는  
《단숨에》노래로 흥겨운데

쫄구나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한달이나 앞당겨 끝낸 이 저녁  
돌격대원 모두 나와  
손벽치고 발구르며 춤추는 출판

함마로 단숨에 바위도 까부시던  
떡메같은 손들이 마주치며 철썩  
해종일 질통지고 달려도 성차지 않아하던  
그 발걸음들이 땅을 구르며 광광

식당을 돌아보던 려단정치부장도  
짜페 없어도 무작정 끼여들고  
건설장에 나가던 시공참모아바이  
도면을 말아든채 어깨춤 덩실대니  
하늘도 빙그르 땅도 빙그르

뒤두라 설설 끓는 고기국이야  
끓을수록 더 좋지 곱배기대장들 출판이다

증폭기의 노래가 끝나면 뭐라나  
울려오는 발파소린 우리의 노래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  
가물막이제방을 쌓으면서도  
눈보라 지동치는 대소한의 추위에도  
떠들썩 웃으며 땀을 흘려온 우리  
이 저녁 춤노래가 별다른건가  
안전바줄 허리에 감고 휘틀을 세우며  
다짐봉 틀어잡고 혼합물을 다지며  
몸에 배인 일숨씨 흥겨운 노래  
그것이 그대로 펼쳐진 이 출판

청천강을 전기강으로 만드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뜻을 꽃피워가는 건설장에서  
청춘의 희열 노래와 춤가락에 넘치고  
신심과 용기가 넘치는 건설장 청천강반의 저녁

노래부르며 춤을 추세  
마당이 좁다하게 춤을 추세  
손잡고 발맞추며 새힘 키워가는  
청천강반 좋은 저녁 이런 출판뒤에  
발전소건설의 기적이 솟는다네

## 땀젖은 눈길속에

### 유 련 희

쫄구나!  
비오듯 흐르는 땀을 흠치며  
가슴뿌듯한 건설의 실참에  
청천강이여 너를 바라보는것은

나는 네 기슭에서 자란 사람  
술술 푸른 저 기슭이 아니더냐  
중학시절 즐거운 여름방학때면  
천막을 쳐놓고 야영을 하던 곳이



펼떡이는 쪼가리며 잉어 은어...  
돌가마 걸어놓고 쭈어먹던 어죽맛  
맑은 물에 뛰어들어 물장구치며  
종아리 가맴게 태우던 강아

얼마나 즐거웠던가  
여름이면 뽀트놀이  
겨울이면 썰매타기 스케트경기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져도  
웃음소리 명랑하던 동요시절은

푸른 잔디 웅단같은 방죽아래  
하얀 비단필인듯 아름다운 유보도  
풀벌레울음소리 노래처럼 들으며  
책과 함께 꿈 키우던 학창시절은

바라보노라!  
눈으로야 어찌  
추억깊은 너의 모습 떼땃이 바라보랴  
누려온 행복만을 안고산다면  
태를 묻고 자라난 너의 가슴에서  
나는 물결에 떠밀려간 모래알 같으려니

좋아라  
정깊은 이 강반에언제를 세우며  
흐르는 땀방울 흠칠새도 없이

위훈으로 새로운 추억을 새겨감은  
땀에 젖은 눈길속에 다가올 태일도  
남던저 이 가슴에 다 안아봄은...

굽이마다 층층 언제를 쌓아  
전기를 짹짹 쏘아내리라  
유람선들 오고가는 아름다운 호수엔  
고기절반 물절반 출렁거리고  
사람들은 새 절경에 흠뻑 취하리라

오,  
우리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구상  
이 땅우에 꽃피워가며  
오늘도 또 한길  
우적 키쫓구는 언제우에서  
나는 안아보노라

언제우에 무지개 곱게 어리고  
꽃보라 날리는 완공의 그날  
우리 세운 발전소에 원수님 모시고  
목청껏 만세부를 환희의 날을

아, 기쁨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는  
청천강 청천강아 너의 미래는  
얼마나 그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 언제에 부치여

### 리 신 환

지동치는 눈보라  
쏟아지는 폭우속에서도  
주저없이 끄떡없이  
한치한치 솟구쳐오르는 언제여

우리는 너를  
철과 모래와 세멘트로  
이 땅에 우뚝 세워 강을 막는  
언제로만 보지 않는다

두팔 벌려 안아보면  
뜨거운 땀이 스며여 정이 통하고  
귀를 대고 들어보면  
내 심장의 박동소리도 들려오는 언제

하여 내 너를 무엇이라 부르랴  
얼음장 서걱이던 강물에 뛰어들어  
가물막이제방을 쌓고  
기초 다질 암반을 손으로 닦고 또 닦고

때없이 퍼붓는 장마철소낙비  
덕수마냥 달게 맞으며  
내 한생 끄떡없을 신념의 기둥인양  
기초를 다지고다지던 언제

청천강 맑디맑은 물에  
천만년을 씻기고씻긴 모래와 자갈이건만  
한점 티라도 있을세라  
금싸래기 일듯 씻고 다진 그 정성

언제여 너 아느냐  
날마다 솟구치는 너의 키에  
우리 혼합물만이 아닌  
애국의 마음 함께 다지였거니

오, 언제여 정녕 너는  
홀리갈 천년세월  
홀리울 만년세월앞에 떼땃할  
돌격대원 내가 우리가 아닌가!

# 건설 속도에 대한 생각

박 경 철

초여름의 훈향이 가득차흐르는 깊은 밤이다.

나는 창가에 다가선채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야외동빙을 번쩍이는 고층살림집건설장을 바라보고있다.

골재를 부리우는 자동차소리며 여무진 호각소리가 교향곡마냥 어우러져 나의 잠을 깨웠는지도 모른다.

《어, 또 한층 올라갔군!》

시간이 다르게 킴을 솟구는 고층살림집의 그 웅건한 자태를 바라보느라니 잠기운은 싹 달아나고 온몸에 새힘이 우썩 솟구친다.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할데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2월에 기초굴착작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가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밑에서는 벽체미장과 마감건재작업이 쭉쭉 따라서고있으니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건설이 진척되고있는셈이다.

참으로 놀라운 속도를 창조해가고있는 미더운 건설자들이 이밤도 쉼을 모르고 혁신의 구슬땀을 흘려가고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은 사람들, 세상에 소리 높이 자랑하고싶은 애국자들...

어찌 이들뿐이라. 더불어 나의 눈앞에는 청천강 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만났던 한 건설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낮에 밤을 이어 불도가니처럼 들끓으며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여러 건설장들을 거처 어느 한 언제건설장지휘부에 들렀을 때였다.

《김철남동무를 만나보십시오.》

일군들 누구나 하는 말이였다. 늘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하루계획을 넘쳐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소문난 혁신자...

한 일군이 지난 겨울에 있는 일이라며 한가지 실례를 들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철남동무가 일하는 언제굴착전투장의 공사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굴착구간에 계속 물이 차오르는 사정과 관련되었다.

하루종일 차오르는 물을 말끔히 퍼내고 숙소로 돌아오곤 하나 다음날 아침이면 젖었던 구간이 도로 얼어들어 작업하기가 더 힘들게 되곤 했다. 모두가 안타까와하던 그때 철남동무가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저녁에 그 구간에 물을 채워두었다가 다음날 작업하기 한시간전에 퍼내자는것이였다. 그러면 굴착구간에 차오른 물은 밤새 결층만 얼고 속으로 얼지 않아 작업에 지장이 없다는것이였다. 즉 물을 작업구간이 얼어들지 않게 하는 보호막으로 리용할 생각을 한것이였다.

그 착상은 곧 실천에 옮겨졌고 공사속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호기심에 부쩍 불이 달린 나는 한시바삐 그를 만나보고싶었다.

드디어 그를 마주했을 때 나는 별안간 눈을 슴벅거렸다. 무척 낮이 익었던것이다.

(어디서 꼭 본 사람인데... 어디서 보았을가?... 혹시?!...)

번개치듯 하는 상념에 이어 나의 추억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갔다.

...태천발전소건설이 시작된 때의 그 시절 1호발전소건설장에서였다.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이곳을 찾았던 나의 눈에 하루는 언제건설장옆의 모래불에서 장난에 여념없는 한 아이가 비껴들었다.

머루알처럼 까만 눈동자에 류달리 정기가 쉹쉹 돌고 랑불에 보조개가 움푹 패이는 귀염성스러운 아이였다. 아이는 우람차게 솟아오르는 언체를 바라보며 모래와 자갈로 두세뿔 되나마나한 자기의 언체를 쌓고있었다. 제법 뽀을 내듯 중얼거리며...

《해해, 내가 쌓는 언체가 더 높지.》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채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애야, 넌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곧잘 하나.》

《안예요. 내 언체가 더 높아요. 난 크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발전소를 세울래요.》

알고보니 아이의 이름은 김철남, 발전소건설자의 아들이였다.

현장에 로력지원을 온 엄마를 따라왔다는데 어린 가슴에 아이답지 않은 크낙한 꿈을 간직한것으로 하여 오랜 세월 나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인연이란 참...

발전소건설자 김철남은 자기가 그때의 그 아이가 옳다고 하면서 몹시 반가워했다.

《야! 절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동무의 얼굴에 인상깊게 패이는 그 불우물을 보고 알아봤지. 그러니 그때의 꿈대로 어엿한 발전

소건설자가 됐구만. 그것두 온 건설장에 소문난 혁신자가 됐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나는 로동속에서 단련된 그의 역센 손을 잡아흔들었다.

나는 이어 이 청천강전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흥분을 터놓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굉장하오, 굉장해. 긴긴세월 속절없이 흐르던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으로 전변시키는 거창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으니 말이요. 하지만 나를 제일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는건 여러개의 발전소를 하나씩 순서대로 건설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동시에 착공하여 동시에 전격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는 점이요.》

《예, 저의 아버지는 태천발전소건설에 한생을 바쳤습니다. 그때는 수년에 한개씩 계단식으로 건설했으니까요.》

《아하, 그러고보면 그때가 진짜루 계단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한셈이구만.》

《글쎄 그렇다고 해야 할지. ... 사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속도는 놀라운 속도입니다. 말하자면 한꺼번에, 단숨에, 통채로, 립체적으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소들을 건설하고있다 그 말입니다. 하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건설속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때의 감흥이 이밤에 또다시 되살아나는듯싶다.

나는 어느새 깊은 상념에 잠겨들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건설속도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에 대하여 말할 때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지난해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그중에서도

마식령스키장 하나만을 놓고서도 모든것을 이야기할수 있을것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는 이 세계적인 스키장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한 기적창조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호소를 피뿌는 심장에 새기고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을 제기일에 무조건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견인불발의 헌신적인 투쟁과 대중적영웅주의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한데 있다.

《마식령속도》야말로 우리 시대, 김정은시대의 위대한 건설속도이며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세상에 높이 떨치고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한 속도이다. 이런 속도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가기에 올해에도 이 땅에는 이르는 곳마다에 선군시대를 자랑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날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건설속도, 그것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이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은 곧 세기적인 속도를 낳는다. 그 속도가 바야흐로 이 땅에 건설의 대번영기를 기록할것이다.

그 속도를 창조하며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해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 뿌려지는 승리와 영광의 꽃보라가 눈앞에 보이는듯 한 환희속에 나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있었다.

## 가 사

# 병사는 총대로 말한다

주 설 혁

열렬한 사랑도 끓는 증오도  
병사는 총대에 재워놓았다  
총탄은 병사의 불같은 언어  
총성은 병사가 터치는 웨침  
그렇다 위훈의 사연도 승리의 진리도  
병사는 빈말로 하지 않는다  
총대 총대로 말한다

조국과 나누는 심장의 말도  
병사는 탄창에 장약해간다  
불뿔은 총대에 담아 터치는  
병사의 선언엔 빈말이 없다

그렇다 위훈의 사연도 승리의 진리도  
병사는 빈말로 하지 않는다  
총대 총대로 말한다

침략자 미체가 덩벼든다면  
원췌의 아성은 불바다되리  
병사는 조국에 승리보고도  
통일축포 퇴성으로 높이 올리리  
그렇다 위훈의 사연도 승리의 진리도  
병사는 빈말로 하지 않는다  
총대 총대로 말한다



리 룡 운

1

《이름: 박순학, 학력관계: 평양건설건축대학(당시)졸업, 직장직위: 시주택보수사업소 기사...》

최명수는 근 한시간가까이 이 문건을 마주하고 있었다.

시주택보수사업소 기사장임명을 위한 료해문건이었다.

이번에 시에서는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이미전부터 계획해오던 도시의 현대화공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주택보수사업소를 모체로 하여 기계화사업소와 도시건설사업소를 비롯한 힘있는 건설단위들이 망라되었다.

이러한 때 공교롭게도 주택보수사업소 기사장이 다른 직무에 소환되었다.

《솔직한 말로 힘에 부칩니다. 자재도 선행시켜야지, 건제품도 관심해야지, 한권으로는 시공문제까지 참견하하니...》

낮에 도인민위원회에 찾아왔던 주택보수지배인이 열적게 웃으며 한 말이다.

아닌게아니라 아침에 면도도 하지 못하였는지 꺼칠하게 돋은 수염이 한벌 덮인 길쭉한 그의 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한 생각마저 들게 하였다.

얼마전에 새로 맡은 인민위원회 건설부서의 일과 함께 이번 공사의 전반을 주관해야 하는 이 아름찬 과제앞에서 최명수로서도 사업소기사의 결원이 공사전반에 미칠 후파쯤은 능히 가늠할수 있

었다. 그는 촉급한 심정에 사로잡혀 다시금 문건을 들여다보았다.

박순학, 명수도 잘 알고있는 청년이다.

자기와 대학시절의 막역한 친구인 도시경영자재상사 박창선사장의 조카였던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젠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들 두사람은 지금도 그 시절의 우정을 변함없이 간직하고있었다.

아까 만났던 지배인도 순학이를 은근히 칭찬하는 눈치였다.

《정열도 있구 팬참습니다. 대학을 나왔지, 게다가 수완도 보통 아닙니다. 요새 며칠동안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이번 공사에 쓸 외벽용타일을 거의 전량 해결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척 나타난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배인이 미리 무엇인가를 녀두에 두고 암시조로 한 말인지도 모른다. 원래 좀 능청스러운데가 없지 않은 사람이다.

지배인은 주근주근 순학의 얘기를 하던중 그가 사업소의 건재반장인 차길호와 다툰 일까지 말하였다. 공사에 쓸 마감건제품문제를 놓고 론쟁하다 그랬다는것이다.

순학은 지금 세계적추세가 고층건물의벽에 장식용유리를 씌우거나 내부식성이 강한 타일을 붙이는 거라고 하면서 이번 공사도 할바엔 그렇게 통이 크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길호는 또 그대로 추세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조건에서는 이미 대량생산에 들어간 외장재를 써서



라도 공사를 다그쳐야 한다, 값비싼 비단옷이 부럽다고 당장 가산을 기울여 사입을수야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 외장재라는것은 차길호가 수년세월 고심하여 완성시킨것인데 색깔이나 광택, 점착성에 있어서 종전에 사다쓰던것보다 그 우월성이 현저히 나타났다.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던중 순학이 길호에게 혹시 자기가 만든 외장재의 가치를 사람들앞에 시위하고싶어 그러는게 아니냐고 반박하는통에 말다툼이 크게 번질번 했다고 한다.

차길호, 그녀석이 성깔사나운 그 성격만은 아직 여전한 모양이다.

그는 학원에서 교원생활을 하는 명수의 안해가 처녀시절부터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키워낸 제자였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스럽던 어제날의 소년, 최명수의 생활에도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겼던 청년이다.

그런데 순학이와는 왜 다투었다구?! 타일과 외장재라...

타일에 의한 마감시공이 외장재를 바르는것보다 우월하다는거야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혹시 별치않은 의견상이가 좀 있다구 해도 차근차근 서로 납득을 시킬노릇이지.

그런데 이밤 이렇게 순학이의 문건을 펼쳐놓고보니 명수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순학이와 다투면서 길호가 했다는 말이다.

《내가 동무의 말을 전면부정하는건 아니야. 그렇지만 동문 좋은 옷을 짓겠다구 천 한통구리를 다 쓰겠다는데, 그 천이 누구의것이라는걸 생각해봤어?! 그것도 모르는 동무가 무슨 기사요. 자격이 있어, 자격이?...》

바로 그날 저녁부터 어디론가 사라졌다던 순학이...

어쩐지 무심히 스쳐듣게 되지 않는 말이다. 자격?! 자격이라...

명수는 일어나 천천히 방안을 거닐었다.

그의 귀가에는 지금도 아슴푸레 들려오는 한 소년의 웨침소리가 있었다.

달리는 렬차안, 자기를 바라보는 소년의 꺼리낌없는 눈빛, 아연한 표정들,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그것은 15여년전의 일이었다.

반쯤 열어놓은 차창으로 싱그러운 봄바람이 밀려드는 렬차의 한 좌석에 네명의 승객이 마주앉아 있었다. 단정한 교복차림의 두 대학생, 그들은 졸업실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최명수와 박창선이었다. 맞은편에는 연두색양복차림의 단아하고 해말쭉한 처녀와 앞뒤풀이 빠져져 무척 고집스러워보이는 열

서너살가량의 소년이 앉아있었다.

이 처녀와 소년은 종전에 어느 한 중간역에서 올랐다.

그들은 차에 오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반쯤 돌아앉아 내쳐 말이 없었다. 그래도 처음엔 뭔가 말을 건네며 소년의 마음을 풀어주려던 처녀도 그 애의 지곳은 침묵앞에 이내 단념하고말았다.

그때부터 좌석에는 어색하고 따분한 기운이 서리었다.

그러던차에 점심시간이 되었다.

마침 봉사용밀차가 곁으로 지나가고있었다.

최명수는 급히 주머니를 뒤져 이것저것 사서 음식감들을 차탁우에 수북이 쌓아놓았다.

푸짐한 식사로라도 좌석의 지겨운 분위기를 가시고싶었던것이다. 곁에 앉았던 창선이기도 친구의 이런 심정에 공감이 되었던지 봉사원에게 여러가지로 청하였다.

《처녀동무, 함께 식사를 합시다.》

명수는 밥짝 하나를 처녀에게 내밀었다. 투명한 수지밥짝안에는 기름기도는 김밥토막들이 놓여있었다. 당황한 처녀는 얼굴이 발갱게 달아오르며 도착해서 식사해도 된다면서 급히 사양하였다. 보배 식사준비를 못해가지고 떠난 모양이었다.

명수는 귀밀이 달아오르는 처녀를 못 본척 하고 또 다른 밥짝 두개를 닝큼 들어 소년의 무릎우에 놓아주었다.

《친구, 같이 먹자구. 배가 불쑥해지면 낮색도 퍼인다니.》

소년은 무릎에 놓인 밥짝과 민망스러워하는 처녀의 얼굴을 엿갈아보았다.

일종의 불만기가 서린 눈빛이었다.

《이 앤 처녀동무의 동생인 모양이지요?》

넌지시 묻는 명수의 말에 처녀는 애매한 미소를 그렸다.

《예? 예, 제... 동생이랍니다.》

일은 바로 이때 일어났다. 소년이 밥짝을 밀어놓고 발딱 일어선것이다.

《제, 이 아지민... 내 누나가 아니야요.》

던지듯 한마디 내뱉고는 좌석사이를 비집고 승강대쪽으로 휩 나가버렸다.

급기야 처녀도 소년을 부르며 바삐 뒤쫓아나갔다. 당혹감으로 굳어진 명수와 창선의 얼굴, 승강대쪽에서 항변하듯 울려오는 소년의 목소리...

《내가 왜 남 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도 뭐 누나라구요?! 쳇, 무슨 자격에...》

...명수는 그때 일에 대한 회상을 깨치며 생각을 더듬었다.

자격, 그후 처녀는 혈육의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

나 사심없는 수고와 헌신을 바쳐야 했던가.

길호가 순학이에게 그러한 말을 했다는것이 어쩐지 명수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단순히 새 직무를 맡은 후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책임감에서만이 아니었다.

이 공사만이 아닌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가 곧 그것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일군들의 능력과 자질에 달려있기때문이다.

명수는 끝내 문건을 덮어놓았다. 밖에 나가 좀 걸으면서 뒤엀킨 사색을 정리하고싶었다.

거리에 나서니 이미 고요가 깃든 길 양옆에는 가로등들만이 밤의 안정을 지키듯 빛을 안고 숙연히 서있었다. 명수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개건공사장쪽으로 향하였다.

## 2

한낮의 건설장은 그칠줄 모르는 각종 소음으로 하여 부산스러웠다.

가득 싼고온 모래를 부리는 자동적재차의 하차소리가 췌-쿵 하고 들린다.

혼합물을 이기는 혼합기가 쉴새없이 돌아가는데 모래며 세멘트를 담은 외바퀴손수레를 밀고달리는 사람들도 분주히 오간다.

아빠트허리부위에 똥똥 떠있는 공중발판들우에서는 벽체미장이 한창인데 그중 키가 꺾두룩한 사람이 이견에 대고 뭐라고 팔을 저으며 소리친다.

누군가가 혼합물이 가득 담긴 손수레를 밀고 그쪽으로 뚸다 달려간다.

잠시후 혼합물통은 권양기에 매달려 올라간다. 그 아래에서는 쑹무니를 둘러댄 자동차적재함에 이미 털어낸 낡은 벽체의 버럭조각들을 올려놓고 있다.

저쪽의 아빠트들 몇동은 미장이 끝나는 차제로 외벽타일을 붙여나가고있었다.

벌써 벽체 한귀통이를 차지하고 그 면적을 넓혀나가는 청회색의 타일빛을 아빠트전체에 상상해보니 평장히 멋스러웠다. 이런 속도라면 공사기일은 문제없이 단축할수 있다.

(흠, 이러니 지배인이 급한 소릴 할만도 하겠어.)

명수는 옷통을 벗어붙이고 부지런히 삼질을 하다가 모든 광경을 둘러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새는 미처 다 몰랐는데 정작 이렇게 현장 한복판에 몸을 잠그고보니 약동하는 공사장의 숨결이 생동하게 느껴졌다.

앞전에서 타일지함을 양옆구리에 하나씩 낀 길호가 채양이 긴 모자를 제껴쓰고 바삐 다가온다. 그러다가 타일을 붙이는 공중발판에 대고 뭐라고 소리치고는 종종걸음을 놓는다.

발을 재게 놀릴 때마다 통넓은 바지가랭이가 너풀거렸다.

얼마전에 길호는 일하면서 하던 대학공부를 마치였다.

...어제 밤늦게 공사장에 나왔던 명수는 뜻밖에도 저 길호를 만났었다.

취죽은듯 조용한 공사장에 들어선 명수는 립시로 둘러친 안전올타리모통이에 가설해놓은 현장휴게용 천막으로 다가갔다.

한데 족수높은 전등불이 환히 비치는 천막앞에 바로 저 차길호가 어물거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때 길호는 천막과 마주서서 허리를 약간 구부하고 뒤집을 진채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서성거리였다. 무엇인가 노려보는 자세로 앞으로 몇걸음씩 내짚다간 뒤로 좀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다간 갑자기 좌우로 몇걸음씩 옮겨짚으며 옷몸을 제빠듬하고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왜 아직 퇴근 안했소?》

난데없이 뒤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흠칫 머리를 돌린 길호는 명수를 알아보고 굵석 인사를 했다. 눈두덩에 뭔가 허연것이 묻었는데 그로 해서 어딘가 감사나와보이는 그 인상 전체에 유모아적색채를 더해주었다.

런닝바람의 드러난 가슴팍이며 팔뚝에는 올근불근한 근육들이 환한 불빛아래 이채로운데 무엇엔가 걸쳐어 찢어진 바지가랭이에 철썩 붙여놓은 수지접착테프가 유표하게 번들거렸다.

《여기서 뭘하오? 대학졸업시험은 잘됐나?》

명수의 나직한 물음에 길호는 별로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글쎄... 힘껏 하느라고 했는데...》

명수는 차길호가 자신을 대하는것과는 달리 어제의 스승인 자기 안해앞에서는 얼마나 친근하고 수습스레 구는지 잘 안다. 그런데 자기와 마주서기만 하면 왜서인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표현을 감추지 못하는 그였다. 그래서 명수는 집에 퇴근했다가도 간혹 길호가 와있는것을 보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곤 하였다.

어색한 자세로 서있는 그의 어깨너머로는 천막벽에 나란히 걸여놓은 큼직한 그림 두장이 보였다.

전등불에 비쳐진 그림은 그 규격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어째선지 색깔만이 서로 달랐다.

《이건 뭘요?》

명수의 물음에 길호는 한쪽어깨를 늘어뜨린채 대답이 없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커다란 인화지에 찍힌 사진이였다.

《아니, 이건 여기 청성거리 전경사진이구만, 응?》

《예.》

어쩐지 길호의 대답은 풀기가 없었다.

《그런데 어쩌서 거리의 색깔이 서로 다르오?》

명수는 두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길호에게 물었다.

그제야 길호는 목을 빼뿔서한채 중언부언 설명을 달았다. 오전작업이 끝나면서 길호는 역전거리 제일 높은 곳에 올라 공사중인 청성거리의 전경을 사진에 담았다.

그는 사진자료를 컴퓨터상에서 크게 확대해놓고 거리전면이다 이렇게저렇게 가상적인 모의색깔을 입혀보았다. 길호는 그것을 통하여 고층건물외벽에 타일과 외장재를 썼을 때 거리전체의 품위와 무게를 보장하며 경제제리익과 그 효과성측면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를 알고싶었던것이다.

그래서 그중 마음에 드는 사진 두장을 뽑아가지고 와서 비교해보는중이었다.

《동무 보기엔 어느것이 마음에 드나?》

명수의 물음에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다가온 길호가 원권에 걸린 사진을 손끝으로 톡 건드렸다. 그것은 희웁스름한 일면적인 색으로 하여 어딘가 단조로와보이는 다른 사진에 비해 청회색바탕에다 까만색과 붉은색으로 창문변두리며 로대와 아치들을 조화롭게 장식하여 거리전체의 원근감과 조형미가 뚜렷한 사진이었다.

《타일장식을 가상한것입니다. 가로등만 비치는 야간조명효과도 컴퓨터상에서 따져보았는데 나무랄데 없었습니다.》

《그래?! 헌데... 그렇게 좋은걸 알았다는 사람이 인상은 왜 그렇소?》

《저...》

길호는 우물쭈물하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원래 그는 말이 적었다.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때조차도 외마디소리로 그쳐버렸다.

그때 보면 나머지는 듣는 사람 좋을대로 리해하라는것 같기도 했다. 대신 일단 자기의 주견이 정립되면 상대가 누구이든 환경에 구애없이 발표하곤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고집스런 행동으로 근기있게 실천에 옮기었다.

그의 이러한 됃됨이를 잘 알고있는 명수이기에 더 따져묻지 않았다.

그런데 길호가 제견에서 먼저 말을 꺼내었다.

《사실... 순학기사한테 미안해서 그러니다.》

《순학기사?!》

《이번에 모의시험을 통해 보니 거리전반개건호파며 보수주의를 봐서도 그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전...》

명수는 그런 길호의 뒤말을 듣지 않고도 짐작이 갔다.

이렇게 주눅이 든 그의 모습을 보니 한껏 놀랍기까지 하였다.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보며 허심하게 반성할줄 아는것도 훌륭한 미덕이 아니겠는가.

성장한 길호를 보는것이 내심 기뻐다. 동시에 자신이 지금껏 사무실에 앉아 모태기던것이 부질없는 로파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 순학이가 누구라구.)

순식간에 마음이 개운해졌다.

당장 눈앞에 탁친 새 기사장 임명문제가 순조롭게 풀릴것이다. 그러면서도 명수는 그 어떤 장난 비슷한 알곳은 마음이 동해 길호의 자존심을 슬쩍 건드려보았다.

《그러니까 래일부터는 타일작업에 착수해야겠구만. 섭섭하지 않나?》

《예? 왜 말입니까?》

길호가 의혹에 차서 되물었다.

《어쨌든 동무가 주장했던 외장재시공이 뒤전에 밀려나지 않았나.》

길호는 눈을 흘깃하더니 뇌까리듯 말하였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구, 무엇으로든 우리 도시가 환해지는데 나쁠 일이 있습니까? 전 그저 순학기사의 주장이 혹시 관상용물고기를 잡아다 제낫 내려는짓같아서 그랬던겁니다.》

《뭐? 관상용물고기?!》

잠시 어이없는 눈길로 길호를 바라보던 명수는 그만에야 허거픈 웃음을 터뜨렸다.

길호에게 그렇게 말할만 한 일이 있었던것이다. 말해놓고보니 저로서도 우스웠던지 피씩 웃던 길호가 정색해서 말했다.

《이번 공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층살림집들의 복도들에도 오래되어 군데군데 칠 떨어진 곳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 복도들에도 외장재를 다시 바르기로 했습니다.

...꺾진 양말 걸치고 멧쟁이구두 신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꺾진 양말? 멧쟁이구두?

듣고보니 비유는 신랄해도 적중한 표현이었다. 어제 밤 명수는 두루 어수선했던 생각들을 이렇게 털어버리고 건설장을 떠났던것이다.

### 3

홀러내리는 땀발에 얼굴이며 목덜미를 흠뻑 적시며 최명수가 삽질에 여념이 없는데 등뒤에서 반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명수동무 아니요?》

허리를 펴며 고개를 돌려보니 차에서 내린 박창선이 우선우선한 웃음을 짓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래 허우대가 큰 박창선은 몸까지 보기 좋게 나서 일군으로서의 기품이 몸에 푹 배었다. 잡바우에 덧걸치고 앞을 열어놓은 연회색작업복도 그의 지위와 관록에 무게를 더해 주는상싶었다. 그결에는 주택보수지배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섰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명수와 창선은 모래무지우에 걸터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자네가 이번 공사를 책임졌다는 말을 들었네. 새 직무에 부임되자마자 큰일을 맡았구만.》

창선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명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아닌게아니라 어깨가 빠근하네. 고양이목에 수레채 메운 격이랄지. 많이 도와주게.》

명수의 말에 창선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괜한 소릴… 도와주고말고가 있나? 우리야 이번 공사하구 직접 련관단위가 아닌가.》

《참, 이번에 순학이가 큰일을 했더군. 지배인 말이 공사용타일을 거의 전량 해결해왔다면서?》

느닷없이 묻는 명수의 말에 창선은 회색에 차서 대답했다.

《요전날 밤늦게 그 애가 집으로 찾아왔더군. 뭐 이번 공사계기로 시내를 아예 일신시키자고 흥분에 떠서 말하는데 하 참, 되젠 뻘더군.》

창선의 말에는 조카에 대한 대견함이 짙게 어리었다.

《그-래?》

명수는 창선의 그 말에서 이름할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뜨아하니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직 뭐라고 딱히 짚을수 없는 막연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번 공사에 쓸 타일을 좀 해결해주었으면 하고 부탁합데. 그러지 않아두 이번 공사에 제기된 타일접수지표가 우리한테 떨어져있던 참이었지. 거 왜 작년에 조업한 성남타일공장 말일세. 이젠 그게 정상가동을 시작했으니 전망적으론 도시전체를 미인처럼 닦아내세울수 있게 됐네. 그래 좀 생각해보니 이젠 그 애도 자기의 사회적지위를 갖출 때가 됐거던. 그러자면 자격을 갖추는것도 무시할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 애가 성남까지 걸음을 좀 했지.》

어쩐지 창선의 마지막말은 어제 낮에 지배인이 하던 말의 여운처럼 들리었다.

순학이 대학졸업생이고 수완도 있어 앞날이 기대된다던...

그러니 결국 이러한것들이 순학이의 진짜 수완이었던 말인가?!

창선이 오랜 친구지간에 믿고 하는 말이겠지만 명수는 은연중 서려드는 불만감을 어쩔수 없었다.

창선의 말마따나 그가 이번 도시현대화에 낮을 돌리는것은 웅당한것이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배태한것이라고 생각할 때 속이 좋지 않았다.

부디 꼬집어말한다면 이번 공사를 조카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으며 또 그것을 친구인 자기에게 부탁하려는 속마음이 엿보였던것이다.

그것이 최명수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다른 한편 친구지간에 속터놓고 한 말을 두고 자기가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이 들었다.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난 창선이 영치를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가봐야겠네. 협의회를 조직해나서… 자주 나오지. 그러구 어련하겠지만 순학이녀석을 잘 닦달질해주게. 아직 물불을 분간 못하군 한다니까.》

창선은 친구의 손을 다시한번 꼭 쥐었다놓고는 차있는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그때까지도 상념에서 깨어나지 못한 명수는 멀어져가는 그의 뒤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자기가 뭔가 난처한 처지에 든것 같은감이 갈마 들었다.

《...책임적이고 힘든 일ियो.》

문득 자기가 새 직무를 맡던 날 상급당일군이 하던 말이 떠오르며 그 말의 참뜻이 현실적무계로 안겨왔다. 외견상 볼 때 박창선이 자기가 말한것처럼 이번 일에서 직무상한계를 뛰어넘거나 사업절차를 어긴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최명수는 최근에 일부 사람들이 발전전망이라는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자식들을 그 취미나 소질은 무시하고 전혀 생소한 길, 더우기는 그런 분야의 상급학교문전으로 떠미는것을 드문히 목격하곤 하였다.

《...어찌겠습니까. 노력이 천재를 낳는다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학업성적이 낮은 자식들때문에 교원들을 따로 만나 구차스레 하는 변명이다. 명수는 그런 현상을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 더 혹심하게는 국가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로 간주하고싶었다. 대학생 하나 공부시키는데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러다나니 요즘 대학문을 나서고도 나라앞에 제구실을 다 못하는 졸업생들이 드문히 생기는것이다. 명수는 창선의 이번 행동이 본질상 그와 류사하다고 생각하였다.

순학의 결에 차길호를 세워놓고본다면 그것은 명



암의 대조와 같이 더욱 명백한 것이었다.

길호가 몇년을 두고 씨름질하고 어떤 때는 집가 산까지 내다 완성해낸 저 외장재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단지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까지 사다쓰는 그런 일본새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런 것쯤은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존심에서 출발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순학이는?!...

궁극에 가서 길호와 순학은 서로 다른 필요성으로 하여 한견에서는 나라를 위해 모든 난관을 제힘으로 헤쳐넘었다면 다른견에서는 자신을 위해 유리한 직무에 있는 삼촌의 집문턱을 넘은 것이다.

한견에서는 나라살림살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쳤다면 다른견에서는 자기 발전을 위해 나라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다.

그리고는 거기에 도시의 현대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워놓았다.

타일공장의 정상가동이라는 박창선의 말은 순학이 추구하던 목적이 이번 공사와 우연히 일치되었을 뿐임을 시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부디 순학이 아니라 해도 이번 공사는 이미전의 계획을 한단계 뛰어넘어 지금처럼 진행되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명수의 눈앞에는 밤늦도록 공사장에 남아 일을 두고 따져보고 궁리하며 모색하던 길호의 모습이 새삼스런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그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지금껏 명수에게 있어서 딱히 이름할 수 없던 그 생각, 그것은 점차 박순학의 임명문건에 자기가 떳떳이 수표할 수 없다는 량심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순간 명수는 그럴수록 더욱 딱한 립장에 놓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자기야말로 수평을 이룬 천평대앞에 서서 손에 든 분동을 어느쪽에 놓아야 할지 망설이고있는 서투른 실험공갈았다.

박순학은 제일 가까운 옛지기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이다. 하다면 길호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사이에 생활이 엮여준 기이한 인연을 알고있다.

만약...

사람은 앞에 날아드는 주먹보다 마땅히 뒤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여론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리치를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바로 처음에는 눈뜬 소경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철면피한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명수의 뇌리에는 아침에 있는 일이 피곳 떠올랐다.

아침출근길을 곧장 공사장으로 내디딘 명수는 지배인과 함께 아직 이른아침의 정적에 잠긴 공사장

을 돌아보고있었다.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일자리가 많이 났다.

돌아보던 명수는 돌연히 눈앞을 뚝 막아서는 대형속보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며칠새에 일어난 혁신적인 소식들이 붉고 푸른 색깔과 힘있는 필체로 멋들어지게 나붙어있었다. 보매 속보원이 있는 재간과 멋을 한껏 부려본 것 같았다.

속보판의 한면한면을 주의깊게 읽어보던 명수의 눈길이 어느 한 대목에서 멎었다.

《두뿔, 세뿔! 진재작업반장 차길호동무, 당면한 외벽미장과 함께 보수공사에 필요한 외장재생산에서 기준량 돌파!》

그 속보기사는 화려하게 채색한 꽃다발과 함께 울긋불긋한 오색테프로 요란하게 휩싸여있었다.

명수는 마음속으로 그들먹이 차오르는 대견함을 느꼈으나 짐짓 다른 내색이 없이 곁에 있는 지배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어째 속보에 순학기사에 대한건 없소? 이번 공사를 위해서 오늘까지 그 동무만큼 기여한 사람도 없지 않소?》

지배인도 모를 일이라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며 쓰아히 말했다.

《글쎄요, 직관원동무에게 아직까지 속보내용이 닿지 않았는지... 그리구 또 그게 뭐...》

지배인은 어쩐지 말끝을 흐리며 닿지 않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때 명수는 그것을 자기 사람에 대한 지배인의 겸양이나 또는 그러루한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지금에 와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볼 때 그것은 그렇게만 스쳐보낼 것이 아니었다.

지배인은 순학의 그 《수완》이 어디에 기인된 것인가를 알고있었으며 더우기는 그것이 속보를 통해 널리 소개하고 자랑할 경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있었다.

애매하고 아리송한 웃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가장 공정한 것이 대중의 평가라고 할 때 그 속보야말로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다.

...끝없이 이어져가는 명수의 사색을 깨뜨리며 주택보수지배인이 다가왔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수염 더부룩한 얼굴에 한가득 넘치게 웃음이다.

《방금 순학기사가 타일을 실은 마지막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명수는 그런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부지중 통명스런 어조로 말했다.

《지배인동무, 그 수염을 좀 깎소.》

《예?!》

지배인은 영문도 모르고 어정쩡해져버렸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들어선 최명수는 책상위에 의뢰해 놓여있는 순학의 문건을 가방에 넣어 들고 방을 나섰다. 상급당위원회로 가는 길이었다.

모든것이 명백할 때도 주저하는것은 부질없는 시간낭비인것이다.

4

차길호가 주택보수사업소 기사장으로 임명된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더구나 놀란것은 차길호자신이였다.

《이건... 어떻게, 제가... 이건 정말...》

공사현장지휘부에서 명수를 만난 자리에서 차길호는 그만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명수는 그런 그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 어떤 위선이나 과장이 없는 소박한 진실 그대로의것이었다.

《그 자격을 잃지 않게 일을 잘하오. 믿겠소.》

명수의 나직한 이 말에 길호는 더욱더 낮을 붉혔다.

《사람들속에서 뒤말이 있지 않을까요? 인맥관계가 어찌구저찌구 하면서 말입니다.》

지배인의 말이였다. 일리로 봐도 충분히 있을수 있는 우려였다.

아니, 최명수의 아픈 곳을 가장 정확히 찌른 말이었다. 자신으로서도 그것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안고있어야 했던가.

그날 저녁 상급당위원회를 찾아가는 명수는 자기가 겪고있는 정신적고충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상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 보우, 명수동무. 우리는 사는 과정에 이렇듯 오묘한 경우와 종종 맞닥들리게 되거든. 이런 때 필요한것이 바로 원칙이 아닐가?!... 그러루한 연고로 해서 한 인간이 지닌 량심적자격을 부디 무시해야 한다면 그런 엄청난 모순이 어디 있겠소.》

명수는 비로소 그 말에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일군으로서의 자신의 자격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다.

명수는 드디어 지배인을 바라보며 심중한 낯색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동무나 나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라는것은 알고있소. 우리 일군으로서 좀 더 넓게 생각해봅시다. 그 어떤 관계로써 이루어지는 눈앞의 성과에 앞서 더 신중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 그리고 앞으로 순학이를 더 잘 도와줍시다. 그가 진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말이요.》

조용한 어조로 하는 명수의 말에 지배인도 얼굴이 붉어졌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사실 명수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이렇게 작업장에 나왔다가 어깨가 처진듯 한 순학이를 만날 때면 저절로 미안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금시 하늘을 날으려는 새의 깃을 제 손으로 잡아매놓고 지켜볼 때와 같은 그런 것이였다.

더우기 그의 삼촌이고 자기의 오랜 친구인 창선을 생각하면...

그럴수록 그는 나약해지려는 자기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지 않는가. 또 창선이란은 자신을 리해해주리라 믿고싶었다. 술좌석에 함께 앉아 여담이나 나누는데 필요한것이 벗이 아니다.

하물며 결함을 감싸주는 형제보다 그것을 지적해주는 남이 낫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인간이란 생활과정에 굳어진 타성으로 하여 본의 아니게 혹은 막부득이하여 간혹 실수나 결함을 범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덧긋혀져 큰 상처로 화농되기 전에 제때에 고쳐주는것이 가까운 사람이고 진실한 벗이 아니겠는가.

명수의 생각은 어느덧 아득히 흘러간 세월을 거슬러오르고있었다.

...

그때가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인민위원회에 금방 배치받았을 때였다.

그날 일이 있어 어두워서야 늦게 퇴근하던 명수는 나지막한 동중산밀에 자리잡은 공원의 넓은 분수터였을 지나다가 무릎 걸음을 멈추었다.

오가던 행인들 여럿이 모인 속에 누군가를 호되게 닦아세우는 남자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호기심에 이끌려가보니 분수터의 환한 장식등아래서 늙수그레한 공원관리원아바이가 웬 소년을 꾸지람하고있었다.

《이녀석, 그래 여기가 무슨 양어장인줄 알아? 이게 잉어이긴 해두 판상용으로 놔기르는 물고기란 말이다. 도대체 너 어느 학교 학생이냐, 영? 어찌 자꾸 이걸 잡았냐 말이야.》

연겨퍼 다그어대는 아바이앞에 우두커니 선 소년은 태연한 눈빛으로 공원의 어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무릎까지 훌 건어올린데다 흠뻑 젖어 물이 똑똑 흐르는 바지, 역시 물에 젖어 주뼉 일어난 머리칼...

관리원아바이곁에 놓인 물바께뜨안에는 실하게 살진 잉어 한마리가 지느러미를 너불거리고있었다. 이 분수터물속에 고추같은 금붕어들과 함께 놔기르던 잉어였다.

명수는 대번에 사태를 짐작했다.

순간 명수는 그 어떤 감성적충동으로 사람들을 해집고나섰다.

《아바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이 애대신 사죄합니다.》

공원관리원아바이의 노기서린 눈빛이 명수에게 날아왔다.

《동문 누구요?》

《제... 이 애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멀쩡한 삼촌이 있으면서 애가 이런짓하듯 방입한단 말ियो?》

관리원아바이의 어조가 더 날카로워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이런 애들은 철이 없어 그랬다치고 학부형이 왜 있는거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옳게 자라도록 키잡이를 해주고 바로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학부형들에게 있는게 아니겠소.》

채찍처럼 사정없이 내려지는 그 말에 당황해한 명수는 황황히 변명하였다.

《저, 실은 조카애가... 어제부터 담임선생이 앓는다고 걱정하더니... 아마 그래서...》

이 말이 효과를 나타냈는지 한결 누그러든 아바이가 애신칙을 잘하라고 그루를 박고는 그들을 돌려보내는것이였다.

소년의 손목을 잡은 명수가 본의아닌 거짓말에 스스로 얼굴을 붉히며 총총히 걷는데 곁에서 따라오던 그 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난 아저씨를 알아요.》

《?!》

《전에 기차안에서 나한테 밥을 먹으라고 줬었지요?》

그 말에 명수는 어둠속에서 소년을 여겨보았다. 틀림없었다.

그러니 명수는 이 애때문에 두번째로 무안을 당한셈이였다.

소년은 명수의 그런 기분쯤에는 아랑곳없이 또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앓는다는걸 어떻게 아나요?》

《뭐라구?!》

명수는 그만에야 우연히 던진 돌이 밤송이를 때렸다는것을 알았다.

《내 그럴것 같아서 저기 호수에서 잡았던 작은 잉어를 한마리 놔주기까지 했는데... 손해만 봤네. 췌.》

소년은 범같은 관리원아바이에게서 무사히 놓여나왔다는 안도감에 제견에서 투덜거렸다.

명수는 그런 소년의 뒤더수기를 아프지 않게 특취여박았다.

두서없이 하는 소년의 말에서 명수는 애들때문에

던 밤길을 다녀오던 담임교원이 찬비를 맞고 심하게 앓아누웠다는것을 겨우 포개여 들을수 있었다.

불시에 이런 들망아지같은 제자들때문에 묵묵히 수고를 바치는 낮모를 교원에 대한련민의 정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명수는 소년의 손목을 잡고 발길을 돌리었다.

시내의 낚시군들을 다 찾아다니며 겨우 큼직한 잉어 한마리를 구했을 때는 밤도 이슬해서였다. 필요한 약꾸레미랑 들려주며 어서 가보라고 등을 떠미는데도 소년은 함께 가자고 떼 버티었다. 그 고집이 박아놓은 쇠말뚝 한가지였다.

생각해보니 밤길에 그 애 혼자 보내는것도 안된일이어서 명수는 소년을 따라나섰다.

병원앞에 이르러서도 같이 들어가보자고 우기기에 명수는 할수없이 끌려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간 입원실에서 그 애의 담임선생을 만난 순간 명수는 깜짝 놀라고말았다.

바로 다름아닌 그때 열차안에서 소년과 함께 오던 그 새침데기처녀가 아닌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 명수는 처녀를 사귀게 되었고 이어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처녀를 깊이 사귀면서야 명수는 그때 열차에서 있었던 일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사실 길호라는 그 소년은 일찌기 부모를 여의었다. 모든것이 어려웠던 고난의 그 시기 어느 한 기계공장의 기대결에서 순직했던것이다.

길호는 학원에 데려가려고 찾아온 처녀교원앞에서 절대로 그곳을 뜨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처녀는 겨우 설복하고 얼리어 길호의 마음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것이 아이들의 마음인지라 떠나기 앞서 갑자기 길호가 사라졌다.

공장사람들이며 온 마을이 떨쳐나 공장의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냈을 때에는 열차시간이 박두해서였다. 그러느라니 도중식사도 준비 못하고 열차에 올랐던것이다.

그러던차에 명수가 권한 음식들은 가뜩이나 부르르고 울적한 소년의 자존심을 건드렸던것이다. 이렇게 선입감만 가득하여 결을 안 주던 애가 이제는 그 선생님이 앓는다고 밤길에 나섰다. 그리고는 외곶으로만 내닫는 소년다운 단순한 심리에 무모하게도 분수터에 뛰어들었다.

《...전 혈육이라는 권리를 가지기 전에 그럴 자격부터 갖추어야 한다는걸 그때에야 절감했어요. 그 자격은 성실한 사업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것도 생활과정에 알았고요.》

서로가 사랑을 약속하던 날 밤 처녀가 명수에게 한 말이였다.

자격은 그 어떤 말보다 뜨거운 사랑이 안받침된

진정만이 가져다준다는 뜻깊은 말이였다.

사실 지나간 일에 대한 이 추억은 차길호와의 대화에서 받은 충격이 불러온것이였다.

기사장으로 임명받은 차길호가 그날 저녁 명수에게 하던 이야기...

《언제부터 하고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셨겠지요? 제 소년시절 공원분수터 잉어잡이사건 말입니다.

철이 들면서 전 때때로 그 일을 자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철없는 아이여서 허용될수 있는 그 거짓말, 판상용물고기를 잡아 제 낚내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나라앞에 자기 몫을 지니고있는 공민으로 자란 오늘날에는 과연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전 이번에 순학기사에게서 그런 병조를 예감하고있었습니다.

사회와 집단에 몇몇이 이바지하는 일군의 자격은 순간의 오그랑수로 손쉽게 갖추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는 나직이 이야기하는 길호의 말에서 강하게 미쳐오는것을 느꼈다. 일군의 자격, 공민의 자격...

## 5

지금 이 시각, 명수는 전화를 바라보며 망설이고있었다. 박창선에게 전화를 하는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의 마음속에는 이 두 생각이 서로 마주서서 한동안 어금버금하였다.

저녁녘에 주택보수지배인이 그의 방에 찾아왔다.

한참 마주앉아 공사추진정형이며 또 별로 긴요치 않은 말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듯 물어왔다.

《참, 순학기사가 동천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한걸 아십니까?》

명수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일이였고 처음 듣는 소식이였다.

《건 무슨 소리요?》

《오늘 아침에 사업소초급당에 정식 제기했답니다. 온 나라가 관심하는 국가대상건설에 자기도 나가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래 동문 뭐라고 했소?》

《아쉽지만 동의했습니다. 본인의사도 그렇고 또 자재상사 사장동지도...》

그러던 지배인이 최명수와 눈길이 부딪치자 채 말을 맺지 못하였다.

굽실굽실한 고수머리아래서 최명수의 눈이 이상하게도 서늘러운 빛을 풍기였던것이다.

《터놓고 말해보지요. 동무보기엔 순학기사가 어

떻소?》

한껏 자제하는 명수의 말에 지배인은 주저하는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머리야 좋지요. 하자는 열의도 높구...》

《그것 보시오. 그렇다면 곁에 끼고 도와주면서 이끌어줄 생각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생각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쉬이 놓아준단 말이에요. 명백히 말해두는데 그건 탄원이 아니라 도피가 아닌가. 발전소건설장이 체면때문에 달아나는 도피자들의 피신처로 될수야 없지 않소. 왜, 그의 삼촌이 부탁한다고 해서?!...》

지배인동무, 내 진심으로 충고하오. 앞으로 자신의 성실성으로 일군의 자격을 지키시오.

이건 동무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오. 돌아가보시오.》

최명수의 어조는 마지막까지 높지 않았으나 준절했다. 찌르는듯 예리했다.

명수는 내심 자기가 지나치게 흥분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 흥분이 그간 자신이 겪은 정신적 번민에서 기인된것임을 의식하였다. 그는 방금 지배인이 닫고 나간 문쪽에 시선을 주었다. 자기가 파도하지 않았는가도 생각해보았으나 이내 부정하였다.

도대체 순학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단 말인가. 길호도 바로 그걸 우려하지 않았는가.

대학졸업증, 물론 그것이 전공분야의 기술소유자격증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격증은 바로 량심의 자격증이 아니겠는가. 이 땅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이라는 자각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자격증.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나라 공민이라면 누구나가 지니고 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지참품.

그 자격증은 학위나 학직처럼 어느 특정한 단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량심이, 사회와 인민이 수여하는것이 아닌가.

그것이 없는 순학의 가슴이 먼 후날에도 텅 비어있으리라는걸 그래 모른단 말인가.

그러고도 일시 눈먼 인정에 사로잡힌 박창선의 말에 맹종맹동하는 지배인이 안타까웠다.

드디어 명수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얼핏 눈길을 들어 시계를 바라보니 밤 10시를 가까이하고있었다.

박창선은 사무실에 있었다.

《아직 퇴근 안했구만. 어떻게 이밤중에 전화하냐?》

창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그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명수의 마음도 썩 안정되였다. 이와 함께 어차피 이 자리에서 순학이에 대한 얘기



를 내놓고 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왜 그런지 오늘 밤 자네 목소리를 듣고싶어서...》

명수는 인차 다음말을 이을수 없었다. 별스레 새삼스러워지는 자신을 보았던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오히려 그 침묵이 두사람의 사이에 더 많은것을 읽게 하였다.

《창선동무, 생각나나? 대학시절 말이네. 그게 아마 어느 강의뒤끝에 있는 학파토론편에 같애.

그때 동무의 주장이 학급동무들과 선생님들을 놀래우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더랬지.》

창선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분명 그때를 더 듣는것이였다.

그때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과정안을 마치면서 교원은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파토론회를 가지였다. 학급동무들은 특히 토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열기띤 논쟁을 벌리였다. 그 논쟁은 창선의 새롭고도 논리정연한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수나 경제력 등 여러 조건들이 해당 국가의 토대구성에서 큰 요인으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나라 매 공민들이 간직한 량심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개 공민들이 어느만큼 뜨거운 애국심을 지녔는가에 따라 작은 나라도 막강한 잠재력을 지닌 강대국으로 발전할수 있고 큰 나라도 점차 쇠퇴몰락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눈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가치보다 아직 땅속에 묻혀 그 가치를 헤아릴수 없는 자원 역시 나라의 밑천으로 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탄성이 터졌다. 일부 녀동무들은 감동되어 박수까지 쳤었다....

동안이 지나서야 수화기에서 창선의 목소리가 웅

글지게 울렸다.

《사람두 참, 할말이 있으면 맞대놓고 할게지. 최명수답지 않구만. 졸전에... 주택보수지배인이 왔다갔네. 한동안 나와 얘기가 있었어.》

《그때두 순학이가 날 몹시 원망할거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리해할거네. 진심이야 아무때건 통하기마련 아닌가.》

이어 끄 하고 기지개를 켜는듯 하더니 밝고 쾌활한 어조로 말하였다.

《밤도 깊었는데 그만 퇴근하지 않겠나? 가만, 내 곧 갈테니 잠깐 있어주게. 오래간만에 동무네 집에 가서 얘기나 나누세. 한동안 자네 부인님도 못 봤거든, 하하...》

...

당창건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 아침 최명수와 박창선은 우연히 만나 출근길을 함께 걷고있었다.

얼마전에 개건공사가 끝난 고층살림집들이 아침 해빛에 화려한 몸통을 번쩍이고있었다.

그밑으로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모두가 이 도시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이다.

넓게 뻗어간 대통로우로 빠스며 무궤도전차들이 제가끔 경적을 울리며 달리고있었다.

《거리가 참 멋있구만.》

박창선이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는데 최명수가 나직이 응대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아닌가.》

갑자기 박창선이 최명수의 옆구리를 툭 쳤다. 그가 눈짓하는 앞쪽을 바라보니 박순학과 차길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나란히 걸어간다.

《좋은 시절이지.》

서느러운 미소를 띄운 최명수가 말했다.

많은 의미를 담은 말이였다.

## 가 사

# 행복의 속삭임

## 변 혜 영

봄바람에 새 소식 실려서 왔나  
모를 내던 처녀들 가슴설레네  
아니 글썽 이른새벽 우리 원수님  
우리 마을 지나시며 손저어주셨대  
라 푸른 벌에 울려가는 속삭임소리  
행복넘친 처녀들의 속삭임소리

우리 마을 지나가신 원수님  
오실 땐 우리 마을 찾으실거야  
알뜰살뜰 푸른 주단 펼치여가는

우리들의 일솜씨 보아주실거야  
라 푸른 벌에 울려가는 속삭임소리  
행복넘친 처녀들의 속삭임소리

자나깨나 원수님 모시고싶은  
간절한 그 마음 벌에 수놓네  
샘솟는 그리움 커만 갈수록  
처녀들 농장벌에 사랑을 다하네  
라 푸른 벌에 울려가는 속삭임소리  
행복넘친 처녀들의 속삭임소리

# 빛의 철학과 형상의 매력

김 학

현실주제장편소설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둔 장편소설 《빛을 사랑하라》(백명길 작)는 우리 사회제도의 참다운 생리와 삶의 좌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예술적으로 묘사한것으로 하여 그 인식교양적의의가 자못 크다.

보면 볼수록 조국과 시대앞에 선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이 소설이 것처럼 되새겨보게 된것은 작가가 시대의 본질이 체현된 생활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묘사한데 있다.

소설의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든 창작가들에게 현실을 긍정하고 사회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열렬히 찬양하는 기수로서의 량심적자각과 창작적의욕을 보다 세차게 불러일으키게 하고있으며 그것은 또한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미학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좋은 경험을 시사해주고있다.

## 빛의 발견

자연에서 불의 발견이 인간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놓은 인류사적사변이라면 장편소설 《빛을 사랑하라》에서의 빛의 발견도 실로 그 의미가 가볍지 않은 형상적발견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소설은 문학의 중심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고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사람은 자기의 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하는것만큼 생활속에 있는 이러저러한 현상은 어느것이나 다 일정한 사회적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생활형상에 체현되어있는 본질적이며 규정한 사상적내용은 그 존재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기본핵으로 된다.

바로 그 핵을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고 한다.

그 핵이 바로 작품에 심어놓은 형상적인 빛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리성복을 비롯한 석남홍, 서봉철, 지련희, 김일로 등의 긍정인물들과 지용수, 명인국, 서재필 등의 부정인물들이 생활과 대립속에서 빛의 철학을 풀어어나가고있다.

초급당비서 리성복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하여 젊

고 패기있는 기술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정신육체적힘을 최대한로 발동시키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우리 시대의 당일군의 전형이다.

2호발전기회전자축에 균렬이 갔을 때 회전자축을 수입할것인가 아니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복구할것인가 하는 과정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물리해로 하여 영예롭지 못하게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와 2년세월 낡시질로 울화를 달래며 살아가던 고급용접기능공인 서재필의 가슴속을 인간사랑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깊숙이 파묻혀있던 로동계급의 량심을 찾아내는 주인공,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어 서재필이 2호발전기회전자축을 특수용접방법으로 재생할 방안을 내놓게 하고 그가 끝끝내 자기의 힘과 기술로 2호발전기를 살려내게 함으로써 그의 삶의 희망과 재생의 빛을 안겨주는 리성복당비서. 또 서재필의 아들 서봉철은 어떤가, 그는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어나가려는 새 세대 세대군인청년이다.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라는 시를 그는 무척 좋아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계시어 빛나는 로동자의 이름, 하기에 그는 로동계급의 존엄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한다.

서봉철은 전력생산자가 된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주하고 용접봉심선절단기를 창안제작하는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2호발전기회전자축을 재생하는 작업에도 참가하여 현실체험차로 내려온 평양처녀 지련희의 심장도 틀어잡는다. 이 모든 과정은 곧 서봉철의 가슴속에 간직된 로동계급의 긍지와 량심, 존엄이었다. 그 눈부시고 파스한 빛발아래서는 생산도 발명도 우정도 사랑도 무르익지 않는 열매가 없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머리우에 언제나 파사롭게 비쳐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 은정과 배려의 빛발이여서 이처럼 아름답고 따뜻하다. 바로 작품의 철학적무게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의 무게는 일시 빛을 잃었던 인물들의 성격창조를 통해서도 덧실리고있다.

그 대표적인물로서 로동계급출신인 전력공업성 국장 지용수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알수 있다.

그는 전기의 밝은 빛을 인생의 등불로 가슴깊이 간직하지 못했기때문에 2호발전기회전자축복구를 손쉬운 수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성실

한 로동계급의 양심을 보려하지 않고 모독하며 질시한다. 서재필에 대한 개인감정을 가지고 서봉철이와 자기 딸 지련희의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사정없이 가로막아나서기까지 하는것이다. 이러한 지용수국장의 성격형상은 빛에 대한 철학적무게를 더한층 고조시켜주고있다.

신비한 전기의 빛과 같이 형상으로 비추이는 빛은 실로 다채롭다. 그 빛은 때로 전력생산자들의 삶의 무한한 궁지와 보람으로 빛난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만져볼수도 없는 무형의 힘이다.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빛으로 이 강산을 단장하는 것인가.》

또한 그 빛은 때로 인간을 재생의 길로 이끄는 당일군의 묘사형상을 통하여 더욱 부각되고있다.

《서재필은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빛을 갈망하고있다. 등불을 비쳐 안되면 전등불을, 그래도 안되면 레이자빛을 쏘여서라도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빛을 주리라. ... 사람은 빛이 없으면 못산다. 그래서 막막한 어둠의 장막에 둘러싸인 초원에서 먼 지평선에 반짝이는 자그마한 등불이라도 발견하면 목에는 환희에 넘쳐 얼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내달아가는것이다.》

《서재필은 마음속에 여전히 전기를 안고살아온 것이였다. 여태 짝 단겨져있던 그의 가슴속에는 티없이 눈부신 빛이 발산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어 그 빛이 자기 주위뿐아니라 공장을, 거리를, 나아가서 온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밝게 채색해주도록 만드는것이 바로 당일군인 자기의 소임이 아니겠는가.》

소설에서 형상적빛은 이밖에도 재생의 빛, 창조의 빛, 탐과 열정의 빛, 순결한 녀의 빛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형상의 요소요소를 밝게 비추어낸다. 그러면서 생활의 구석구석에 배겨있는 철학성을 부각시키고있다.

참으로 형상적인 빛의 발견, 그것은 문학적인 종자의 발견이었고 성공의 비결이었다.

## 한페이지 또 한페이지...

장편소설 《빛을 사랑하라》에는 요란한 사건이나 복잡한 인물관계는 없다. 오히려 장편소설치고는 너무도 조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평범한 생활이 펼쳐지고있다. 하지만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웅심깊은 힘이 느껴지며 소설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작품의 세계에 끌려들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다. 이것은 예술적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사실 그렇다. 작품에서 2호발전기회전자축복구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라든가, 용접봉심선절단기제작

과 관련한 이야기 등은 결코 생산기술적문제의 해결과정으로 엮어진것이 아니라 생활속에 체현된 시대의 본질, 삶의 진리를 인간학적으로 밝혀내는 성격발전로정이다.

이런 문학적인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끌려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한다.

소설에서는 오늘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시대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고있을뿐아니라 이야기줄거리도 재미나게 엮어나가고있다. 즉 이야기흐름을 독자의 마음을 조였다풀었다하면서 매혹과 감동의 련속적인 흐름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보고있다.

2호발전기회전자축복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 수입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속에 자체의 힘으로, 그것도 용접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자 이번에는 누가 그것을 맡아 수행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아무리 골라보아야 서재필인데 그는 기업소 일부 일군들의 편협한 처사에 불만을 품고 이미 2년전에 퇴직한 몸이다.

당비서를 비롯한 주위사람들의 수차의 권고, 허나 서재필의 거부는 완강하다. 다른 사람을 끌어야 하는가. 당비서의 거듭되는 진정어린 요청에 끝내 서재필의 마음에 밝은 빛이 흘러들고... 하여 그가 용접을 맡아하기로 되였었는데 또다시 찬서리... 그의 나이와 몸상태가 고려되어 다른 사람(용접반 반장)에게 중임이 넘어갔다. 당비서의 원칙적인 요구에 의하여 일이 바로 잡혀 다시 2호발전기회전자축재생을 위한 용접이 서재필에게 맡겨지고 이어 성공...

이 감정적인 굴곡이 있는 이야기안에서도 서재필의 권고퇴직에 대한 사연, 그와 기사장, 성 국장사이의 불신임의 원인, 서재필의 완고한 고집과 침묵의 성격적요인 등이 내포되어있어 소설의 흥미는 한층 짙어진다.

소설에 설정된 청춘남녀들의 사랑선도 재미있게 형상되였다. 용접봉심선절단기 창안과 제작과정에 맺어지는 서봉철과 지련희의 사랑은 처음부터 총각의 림름한 자태와 서글서글한 성격, 고상한 습박곡질로 엮어진 하나의 서정시라면 리동혁과 명윤희의 사랑은 청춘들의 량면적인 생활속에서 서로의 유쾌한 오해와 리해의 련속으로 이어진 흥미진진한 담시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청춘들의 재미있는 정서를 둔구어주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생활세부는 서봉철이 사랑하는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와 명윤희를 멋지게 속인 리동혁의 《모략》에 대한 축구일화세부이다.

# 출 강 시 간

## 리 명 학

쇠물이 쏟아진다  
기쁨과 보람으로  
가슴이 한껏 부푸는  
출강시간이어

젖은 방열복을 한껏 젖히고  
기쁨에 겨워 땀을 들이며  
깊이 들이키는 담배맛은  
왜 이리도 구수한지  
불꽃 날리며 쏟아지는 쇠물은  
볼수록 정겹어지는지

출강이라면  
퇴근시간 지나도 나는 몰라  
하루중 출강시간은  
더없는 보람찬 시간

이 시간은  
맹세가 더욱더 불타오르는 시간  
불에도 타지 않는  
신념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

그래서 좋더라  
애국의 마음으로

언제나 긍지높은 출강시간은  
조국을 안고사는 시간

때로는 평범한 인생도  
출강시간에는 자랑높더라  
무엇인가  
움트는 열정으로  
마음이 커가는 출강시간

한생을 네 시간으로 다 살고싶구나  
하루중에 너는 짧아도  
느끼는 보람과 긍지로  
내 삶을 빛내주나니

남비마다 넘치는 쇠물은  
영원히 식지 않을 우리의 애국의 마음  
쇠물은 애국  
쇠물은 바치고싶은 우리의 충정

아, 열백밤 지새워 쇠물을 뽑고뽑아도  
성차지 않을 출강시간  
내 한생 출강시간  
네 시간으로 살고싶구나

서정시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는 소설의 여러 대목에서 울리면서 서봉철에 대한 지련회의 사랑관을 서정적으로 세워주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상대립의 축구명수인 명윤희를 경기에 못 참가하게 하려고 경기시간을 허투로 대주다가 깎던 머리도 채 못 깎고 망신스러운 일만 자꾸 당하게 되는 리동혁의 생활선은 우리 생활의 랑만과 다양성을 재미있게 돈구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들이 한갓 웃고나면 거품처럼 사라지는 흥미거리로가 아니라 오래동안 여운으로 가슴속에 남는것은 그속에 인간들의 성격이 비끼고 생활의 본질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김일로의 가정불화와 기타 세부들, 자식이 없는 영예군인가정에 자기의 아들을 들여보내는 부기사장 석남홍에 대한 세부, 지어 금성정치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 배치받으리라던 리성복의 딸 명희의 탄광자원전출과 같은 자그마한 세부까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수 있다.

소설은 확실히 이야기의 예술적흥미를 보장하는 데서 서정성과 극성을 잘 배합하고있다.

인물들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살려 소설의 예술적

인 맛을 충분히 살리려는 시도, 성격과 잘 밀착된 자연묘사와 정황묘사, 생활에 대한 깊은 분석적설명 등은 장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하지만 좀 더 탐구하고 세련시켜야 할 형상적 측면도 있다. 주인공의 성격형상이 새맛이 덜하며 특히 인물관계를 비롯한 일련의 구성조직이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또한 언어형상에서 어휘구사와 문장조직에 덜 관심한것이다. 묘사예술인 문학에서 언어형상에 낮을 적게 돌리는것은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오기마련이다.

하지만 장편소설 《빛을 사랑하라》는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철학성있게 밝혀냄으로써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잘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작가들은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꽃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전과정에서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심도있고 특색있게 잘 가꾸어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삶과 운명개척의 길을 두고 깊이 사색하게 하는 진실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황 동 선

### 1

새벽어스름속에 간밤에 내린 흰눈이 선명히 드러나 보였다. 이해의 첫눈이었다.

오광철은 발목을 잡그는 눈을 밟으며 마을복판을 꿰고 뻗은 큰길을 걸었다. 집집의 굴뚝들에서 연기가 고요히 피어오르고 그릇 부딪치는 소리, 물쫄는 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왔다.

광철은 마을끝에 자리잡은 한집의 프락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붕 네귀가 건뚫 들린 새로 지은 살림집이었다. 아직 주인이 들지 않은 빈집인지라 조용하고 싸늘한 기운만이 서려있다.

광철은 비자루를 들고 마당에 덮인 눈을 쓸어냈다. 그리고 나서 집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부엌 한쪽구석에 무저있는 장작이며 짚을 아궁이에 넣고나서 불을 지폈다. 갓 놓은 구들을 빨리 말리우느라 엇그제부터 아침저녁으로 불을 조금씩 때주고있다.

탁, 탁... 불씨를 툇겨올리며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부엌안이 훈훈해지고있었다.

광철은 부뚜막을 마주하고앉아 불을 보느라니 미구에 이 집의 주인이 될 정춘식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가 언제쯤 올것인가. 태일 혹은 모레일까?... 고즈넉한 상념속에 그가 농장을 떠나게 되던 때의 일들이 어제런듯 눈앞에 선히 밝혀왔다.

×

그날 농장안의 분조장이상 초급일군회의는 뜻밖

의 일로 갑자기 소집하게 되었다. 농장적으로 자급비료반출을 전부 끝낸 뒤였는데 일부 작업반들에서 관리위원회에 보고한것보다 실지 포전에 내간 자급비료의 량이 적다는것이 알려진것이다.

그것은 극히 사소한 일도 스쳐지날줄 모르는 꼼꼼한 성미인 리당비서 오광철이 현지를 돌아보며 확인한 사실이었다.

회의를 주관하는 관리위원장 우병윤의 기상은 무서웠다. 뒤늦게 안 허위보고가 그를 몹시 분격케한것이었다. 당사자들인 분조장, 작업반장들은 그야말로 단단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될만큼 혼뜨침이 났다.

하지만 광철은 그 엄한 추궁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있었다. 광철은 우선 농장의 면모부터 늘 가슴에 걸렸다. 리문화회관만 해도 삼십년전엔 멋쟁이라고 했던것이 지금은 농장원들이 다 들어갈수도 없을만큼 작고 곁모양도 초라해졌다. 뒤편어졌다고 보자면 병원, 상점, 관리위원회 등 공공건물은 물론 살림집들도 마찬가지였다. 면모이자 곧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정신상태의 반영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지난해들에 농장의 알곡수확고를 따져봐도 군적으로 뒤꼬리를 차지하는 축이었다.

광철은 농사일을 추진시키는것과 함께 농장의 면모도 때뵈이할 잡도리를 해왔다. 현대 농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집짓는것이었다. 흔히 이 고장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있다는건 진흙뽀니었다. 농장경내의 사방 수십리가 허허벌판이니 건설에 쓸 막돌한개, 목재 한토막도 얻을데가 없었다.

게다가 지금은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

고난 뒤였다. 그렇다고 우만 쳐다본다면 농장은 언제 가도 때뻗이를 할수 없을것이다. 건설자재는 제 힘으로 해결하자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군농촌건설대가 있는것만큼 크게 문제로 될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농장의 면모를 하루빨리 일신시킬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수 없다.

원래 광철은 건설자재확보문제는 기회를 보아가며 어느 회의에서 따로 취급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농사군이 량심을 속이고 일한것보다 과장해서 보고한것을 알았을 때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만 볼수 없었다. 자급비료반출계획을 다 했다고 하는 작업반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충분한 량이라고는 볼수 없었다. 자기가 가꾸는 땅에 대한 애착이 없이는 땀흘려 성실히 일할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향토애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농장을 꾸리는 사업을 더는 미룰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번 회의에서 그 문제도 토의에 불이자는것이였다.

허위보고를 한 분조장, 작업반장들이 뺏뺏이 서서 《체조》를 받은 후 모자라는 자급비료는 온 농장이 달라붙어 채령강쪽에 무진장한 부식토를 실어들여 보충하자는 합의로 회의는 일단락을 지었다.

다음 우병윤은 건설자재확보문제를 내놓았다.

삽시에 방안은 조용해졌다.

《거 창문을 좀 열어놓소.》

병윤은 지친 낮빛으로 창문을 보며 일렀다.

누군가의 손이 창문을 열어놓았다.

이때 방안뒤쪽에서 불평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자재만 있으면야 건설은 땅짚고 헤엄치기 지요.

헌데 마른 나무를 쥐어짤다고 물이 나올리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동문 우리 농장이 마른 나무라는 게요?》

병윤은 불이 이는듯 한 눈으로 그쪽을 노려보며 반문했다.

대답이 없었다.

이때 방 한가운데서 누군가 불쑥 일어섰다. 농산제7작업반 분조장 정춘식이였다. 그는 사뭇 열기띤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농장이라고 남보다 뒤떨어져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농장들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우에서 다 대주어서만 희한하게 꾸려놔겠습니까. 우리도 남이 해주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제몫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뭐든지 사람이 머리를 쓸타입니다. 머리는 모자걸개가...》

그는 말이 생뚱같은데로 나간다고 여겼는지 중동무이했다.

《동무 말이 옳소. 머리는 궁리를 하라는게지 모자걸개가 아니요, 허허...》

병윤은 웃음섞인 목소리로 그의 말을 긍정했다. 춘식은 더 말할듯 하다가 주저앉았다.

광철은 그에게 시선을 주었다. 약간 창백해보이는 낮빛, 관골이 두드러지고 날카로우면서도 든든해보이는 턱, 열기띤 눈... 결해있는 인상이 확대되어 안겨왔다. 때에 맞게 씨가 박힌 말을 한 그가 대견스러웠다. 평소에도 그는 무슨 일이든 누구도 견주지 못할만큼 무서운 완력으로 제끼는 일꾼으로 알려져있다.

병윤은 기계화작업반 반장을 일으켜세웠다.

《동무넌 절반짜리 일을 하고있소.》

《네?...》

기계화반장의 눈이 켜해졌다.

《빈차운행을 없애라는건 일찌기 국가가 취한 조치요. 한데 어떤 운전수들을 보면 사십리가 넘는 읍은 물론 어디 집을 신고갔다가 빈차를 덜렁거리며 오고있소. 차가 뛰면서 기름과 로력의 절반을 하늘에 날려보내고있으니 절반짜리 일이 아니고 뭐요.》

그제서야 반장은 영문을 알아차린듯 고개를 수그렸다.

《동무도 잘못이 있지만 청맹파니노릇을 한 나의 책임이 더 크요.》

병윤은 어둑한 낮빛을 지으며 뇌이였다. 사실 그는 일부 운전수들이 간혹 빈차운행을 하는것을 보면서도 관습의 타성때문인지 얼마전 오광철이 귀뜸하는 말을 듣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가 다시금 말을 꺼냈다.

《차들이 집을 부리우고 올 때에는 건설에 쓸 막돌을 실을수 있잖겠소. 석비레장이 읍으로 가는 길 옆에 있소. 좀 에돌기는 하지만 채석장도 있지 않소. 빈차운행만 없애도 적지 않은 건설자재를 실어들일수 있단 말이요... 그러구 우리 농장은 다 평지길이니 차들이 적제함을 두대이상 달고도 얼마든지 뺄수 있소. 여기서도 적지 않은 예비가 나온단 말이요. 헌데두 우리 농장이 췌짜두 물이 안나오는 마른 나무라고 나자빠질 소리를 한단 말이요, 영?》

관리위원장의 위압이 느껴지는 엄중한 목소리에 방안공기는 삽시에 얼어붙는듯 했다.

그는 기계화작업반장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오늘부터 동무네 모든 차들이 적제함을 무조건 두대이상 달고 뛰어야겠소. 알겠소?》

《알겠습니다.》

반장은 침착히 대답하고나서 앉았다.

잠시후 키가 작달막한 리건물보수작업반장이 일어나서 말했다.

《저, 건재로 흙블로크도 쓸수 있습니다. 농장에 흙블로크로 지은 집이 몇채 있는데 십년이 지났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화색을 띠우며 수군거렸다. 어

렵게만 생각되던 건재문제가 예상외로 쉽게 풀려나간다고 여긴 것이었다.

이때 오광철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렸다.

《흙블록집은 지형조건에 따라 구별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장마철에 큰물이 나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지 몇 집을 보니 세멘트미장벽이 떨어져나간 곳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농장에서는 흙블록집을 지을게 못되지니와 있는 집들도 다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걸 말해줍니다.》

《원래 있던 집까지 허문단 말입니까?》

보수작업반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위험한걸 알면서도 뒤돌수 없지 않습니까.》

광철은 침착한 음성으로 단호히 뇌이였다.

보수작업반장은 말문이 막힌듯 주저앉고말았다.

방안은 팽팽히 켜기운듯 한 분위기에 싸여있었다.

광철은 자기의 열열한 얼굴을 쳐다보는 병윤의 모습에 한 눈길울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모른체 하고 말했다.

《우리가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는것은 결치레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대를 물려가도 손색이 없을 든든하고 멋있는 집을 지어 말그대로 사회주의 선경마을로 꾸리자는겁니다.》

방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말을 꺼내기 저어했다.

방금 당비서가 말한 그 목표가 너무도 아득히 높아보인다고 느끼고있는것이다.

우병윤이가 말을 꺼냈다.

《아까 정춘식분조장이 한 말을 다 들었을게요.

이 회의목적이 바로 그런 사상적각오를 가지자는데 있소. 다른 의견이 있소?... 그럼 이만합시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였다.

병윤은 궁금한 목소리로 광철에게 물었다.

《회의에서 보여주자던건 어째서 안 내놔습니까?》

《이것 말입니까?》

광철은 책상밑에서 종이에 쓴 구멍이 숭숭 나고 겹누런 돌덩이를 내놓으며 반문했다.

이것은 건재로 쓸수 있다고 보아지는 일명 슬라크였다.

광철은 농장의 면모를 때벗이할 결심을 한 그때부터 자재문제를 놓고 고심을 해왔다. 이 고장 토배기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십년전 송림제철소에서 재령강기슭에 건설했던 화물부두가 폐기된채로 남아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현지에 나가 보니 천수백톤이 넘는 슬라크가 묻혀있었다.

헌데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하겠는지 알수 없었다. 세멘트나 모래, 벽돌을 빚는데 쓸수 있는 전형

적인 건재로는 못되지만 어쨌든 기타 여러가지 자재로는 필요할것이었다. 병윤에게 보였더니 대번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진흙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장에서 뜻하지 않은 횡재였던것이다. 그는 이틀후에 있게 될 초급일군회의에서 그 슬라크를 내놓자고 했다. 이틀테면 실물을 보여주어 신심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자는것이였다.

광철은 동감이였지만 다른 립장이기도 했다. 우선 이것이 어느 정도 쓰이겠는지 딱히 알수 없는 노릇이였다. 이걸 더 알아봐야 할 일이였다.

헌데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농장원들이 손에 든것이 없어도 자기가 사는 향토를 남못지 않게 꾸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하는것이였다.

광철은 병윤의 의견을 참작하여 회의분위기를 보아 내놓을 결심이였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마음을 달리먹게 되었다.

묻는듯 한 눈길로 바라보는 병윤에게 광철은 느슨히 미소를 짓고 말했다.

《이건 그저 슬라크덩이입니다. 마음의 준비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것 같아 내놓지 못하겠더라 말입니다.》

병윤은 의혹이 서린 크게 뜬 눈으로 광철을 쳐다보았다.

《허허... 비서동무의 성미두 참...》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뇌이였다. 어쩐지 그의 얼굴이 거뭇하니 질리는듯 했다.

부지중 그는 움쭉 몸을 일으키더니 쫓기는듯 성급히 문쪽으로 걸어갔다.

광철은 한동안 그가 나간 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병윤의 거동이 어딘가 이상스럽게 여겨진것이였다. ...

이틀후부터 농장은 재령강쪽에서 부식토를 파내어 실어들이기 위한 작업으로 끊어번졌다. 단 열흘도 못되는 사이에 모자라는 자급비료를 보충하고도 남는 방대한 량의 부식토가 거의 모든 포전들을 뒤덮다싶이했다. 일단 그 일이 끝나자 새로운 바람이 휩쓸어들었다. 마을과 일터들에서 기동예술선동대가 농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해 건설자재를 제힘으로 해결하자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불같이 호소하는가 하면 본보기농장들을 보여주는 기록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모든것은 농사일과 함께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도 밀고나갈데 대한 리당총회의 결정서와 그에 호응한 농장원들의 열기모임에 뒤따른 것이였다.

군중이 발동되면 조건은 성숙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일할 때도 월참에도 건재원천을 놓고 열기면 토의를 벌렸다. 별의별 신통한 방안들이 다 나왔다. 실례로 재령강에 띄워놓은 너럭배로 강바닥의 모래를 실어들이자는것이였다. 그 너럭배

가 후날 척수도 늘어나고 수십톤급자행화물선으로  
까지 발전할줄은 그때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자체탄광에서 나  
오는 석탄으로 소석회를 구워내자는것이였다. 그전  
에는 소석회를 군에서 주는데로 받아다쓰다보니 토  
지개량에도 모자랐다. 하지만 소석회공장을 건설해  
놓으면 토지개량은 물론 건재문제의 한 고리도 풀  
리게 된다는것이였다.

농장은 전에 없던 생신한 활기를 띠고 들끓고있  
었다. 그런중에 기쁜 소식이 퍼졌다.

재령강기슭의 화물부두자리에서 찾아낸 슬라크로  
벽돌을 만들수 있다는것이였다.

광철은 농장의 기술자와 함께 고심을 기울이며  
여러차례 시험을 한 끝에 슬라크를 가루내어 세멘  
트와 소석회를 조금씩 섞어 빚으면 돌보다 굳은 벽  
돌이 된다는것을 확인해냈다.

군농촌건설대에서도 북지리에 건재원천이 마련된  
조건에서 건설을 더 미룰수 없다며 강력한 건설력  
량을 파견해왔다. 농장적으로 슬라크채취작업과 건  
설전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그런데 문제거리가 있었다. 슬라크를 가루내자면  
파쇄기가 있어야 했고 그다음 필요한게 진동식블로  
크빔는기계였다.

광철은 그것도 자기가 맡아안고 나섰다. 그는 열  
흘나마 군내뿐아니라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  
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그 기계들을 구해오고야  
말았다.

그런중에 또 하나의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슬라크채취작업이 다그쳐지던 화물부두자리에서  
기초로 박아넣은 백톤이 넘는 철강재가 나타난것  
이였다.

농장은 말그대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백학  
의 기상이였다.

그런 속에서도 광철에게는 내내 가슴에 걸려 내  
려가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는 그날 초급일군회의  
가 있는 후 쫓기는듯 황황히 문을 나서던 우병윤을  
두고 이상야릇한 의혹을 품고있었다. 지레짐작일지  
몰라도 그때부터 그의 얼굴에서는 회의심에 가까운  
어떤 어두운 빛이 떠돌고있었던것이다. 농장건설의  
전망이 확고해진 지금에 와서 그 어두운 얼굴빛이  
더 두드러지게 안겨오는듯 했다.

광철은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후에야 알수 있  
었다.

그날 광철은 화물자동차를 타고 도소재지에 갔던  
길에 고급속사업소에 들렀다. 그곳 구내에 쌓여있  
는 파철무지에서 쓸수 있는 기계부속들을 봐두었던  
것이다. 밤이 새도록 산더미같은 파철을 다 옮겨놓  
으며 쪼꼬만 나사못으로부터 쇠줄, 레루토막, 낡은  
런결차바퀴테며 술한걸 따로 모았다.

앞으로 기계화작업반을 개건하자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밑천이 될것이였다. 그렇  
게 모은 기계부속이 한차나 되게 실리였다. 아침에  
사업소에 나온 지배인이 놀라 입을 딱 벌렸다.

그날 저녁에 우병윤이 리당사무실로 찾아왔다.  
해별에 거뭇하게 탄 그의 얼굴은 내심의 그 어떤 괴  
로움이 내배여 더욱 킁킁해보였다. 그는 파철더미  
를 헤집느라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천으로 싸맨 광  
철의 손을 이윽히 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 그때 회의에서 비서동무가 슬라크덩이를 내  
놓지 않는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당비서를 만났다는 생각을 했  
수다.》

《허허…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제 지금껏 농장을 남몰치 않게 꾸려야 한다  
고 연설은 많이 했지요. 하지만 달라진건 없었수  
다. 비서동무가 온 다음부터 농장이 벌컥 뒤집혀졌  
지요. 나는 비서동무한테 무슨 남다른 수완이 있  
지 않는가 하고 눈여겨봤지요. 나라면 눈이 열개  
래두 파철더미에서 기계부속을 찾아낼 생각을 못  
했을거웁니다.》

《원, 무슨 말씀을… 절 비행기를 태우는겁니  
까.》

《그게 아닙니다. 비서동무, 이번에 난 주인구  
실을 제대로 못하는 자기를 톡톡히 보게 됐습니  
다.》

광철은 병윤의 심정이 심분 가늠이 되였다. 그는  
지금 농장에서 일어번지고있는 이 변천속에서 자신  
의 존재를 두고 그만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내  
심의 번민과 괴로움을 터놓고있는것이였다. 광철은  
그의 가슴속에 엉켜있는 착잡한 심리를 말끔히 가  
서주고 신심을 북돋아주고싶었다. 그한테는 남다른  
장점이 있다. 그는 타고난 농사군이라 할만큼 농사  
문제에서는 박사 못지 않게 밝으며 마음도 룡승하  
여 농장원들이 존대하고있다.

광철은 나이도 우인 그를 더 잘 받아들여주기 위  
해 늘 원심을 써왔다. 그가 진심을 터놓는 모습을 보  
니 마음이 뜨거워났다.

《전 그저 농장일이 잘되자면 키잡이노릇을 잘해  
야겠는데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병윤의 눈구석에 물기가 배이고있었다.

## 2

자정이 넘은 밤이였다.

슬라크채취작업장은 세차게 뚫어번지고있었다.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우등불들이 깊숙이 패인 드  
넓은 웅덩이안에서 슬라크를 파올리는 군농촌건설  
대원들과 농장원들, 열기설기 서있는 철근들을 벌  
경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물을 퍼올리느라 바깥  
들이 연신 오르내리고 삼질소리, 말소리들로 벽  
적 뚫었다.



병윤은 일을 그만 끝내자고 몇번이나 소리쳤지만 누구도 들은채를 앓고있다. 슬라크채취작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십일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은 거의 매일밤을 새우다싶이하며 일을 다그치고있다.

스프링바람에 흙탕투성이가 된 정춘식이 병윤에게 다가왔다.

《이젠 철근을 자르지 않겠습니까?》

그가 병윤과 곁에서 삼질을 하고있는 광철을 번갈아보며 물었다.

《그건 왜?》

병윤은 의아하게 반문했다.

《철근때문에 일하기가 영 말짱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철근이 이만한 길이면 어디건 쓸수 있습니다. 땅에 묻힌것도 이만할텐데 잘라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병윤은 촌촌히 박힌 철근들의 옷쪽을 쳐다봤다.

딱히 대답을 주기 어려워하는 눈치였다. 그럴것이 철근은 처음부터 통채로 빼내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춘식의 제의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워낙 춘식의 제의라면 별로 반대해본적이 없는지라 더욱 망설이게 된것이었다.

마침내 병윤은 리당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동무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채로 빼내는것보다야 못하지요. 어쨌든 토막을 내면 조금이라도 허실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재가 차레지고보니 배부른 흥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병윤은 응수하고나서 춘식에게 일렀다.

《분조장, 힘은 아꼈다가 어디 쓰겠나. 우리한테 금보다 귀한게 강재야. 힘들어도 통채로 빼내자우.》

일순 춘식의 얼굴에는 자기 제의가 무시당한 불쾌감때문인지 그늘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것 같습니다. 뉘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남들은 쓰러져도 전 얼마든지 견뎌낼수 있습니다.》

춘식은 서둘러 일하던 곳으로 걸어갔다.

광철은 그의 마지막말이 가슴을 선뜩 찌르는듯했다. 남들은 쓰러져도 자기만은 견뎌낼수 있다고?... 이 말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왜 이렇게 싫을까? 혹시 그에게 개인영웅주의요소가 있는건 아닐까?...

부지불식간에 떠오른 생각이였다.

광철은 뜻하지 않게 번거롭게 스며드는 예감을 털어버리려듯 머리를 흔들었다.

### 3

캄캄한 어둠.

퍼붓듯 쏟아지는 비발... 날뽀을무렵이었지만 사는 아직 캄캄하였다.

광철은 벌판길을 걷고있었다. 걸을 때마다 장화속에서 비물이 꿀쩍거리는 소리가 났다. 진창투성이의 길과 량쪽논에 허리차게 자란 벼가 희푸름한 전지빛에 드러나보였다.

작업반마을들과 벌을 돌아보곤 하는것은 광철의 몸에 배인 습관이였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들이 비가 새지 않는지, 건설중인 집들이 무너지지 않는지, 논판에 물이 넘지 않는지... 더우기 밤이 깊어지면 벌에 사람이 비기마련인지라 새벽녘이면 의례히 들길에 나서곤 한다.

바람이 태질하듯 마구 불어쳤다.

비웃자락이 그의 두다리를 휘감곤 했다. 목깃사이로 스며든 비물에 앞가슴이며 잔등이 척척히 젖어들었다.

부지중 그는 바닥이 드러난 용수로로 보았다.

분명 어디선가 물이 새나가고있었다. 그는 용수로옷쪽을 걸어가며 살폈다. 아닌게아니라 똑이 서너미터되게 끊기운 곳이 나타났다. 거기서 물이 거침없이 흘러들어 논배미를 넘을 지경이 되였다. 그는 맞은편논쪽으로 달려가 논고를 열어놓고나서 터진 똑을 막기 시작했다.

보건대 똑이 터진것은 논고물넘이턱의 흙이 비물에 그냥 패이다가 밀리워나간것이였다. 논고는 규정대로 판자로 문을 해달든가 하다못해 가마니를 깔아줘도 절대로 흙이 패이지 않는다.

광철은 이미전부터 논고판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는데 대해 여러차례 심각히 일러왔다. 그리하여 관리위원회에서도 논고물넘이를 규정대로 만들기 위한 된바람을 지켰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빈구석이 남아있는것이다.

그가 일을 끝냈을 때는 동견하늘갓이 들리고있었다.

별이 희끄무레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부지중 광철은 여기가 정춘식이네 포전임을 알아보았다. 가슴이 무엇엔가 굵히는듯 했다. 설마 그의 포전일가싶어 둘러봤지만 틀림없다. 그가 일에서 성실치 못하다고 한다면 틀리는 말일것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해도 남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맵싸게 해놓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구나 일을 하느라하면 빈구석이 있을수 있다. 춘식이라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터진 논뚝을 보느라니 그에 대한 좋은 평이 있는 반면에 상서롭지 않은 말도 돌고있다는 사실에 더 주의가 갔다.

그의 분조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독단이 세고 작개비처럼 물인정해서 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우월감이 어찌도 센지 사람들을 눈아래로 보며 잘못이 있으면 욱부터 한다는것이다.

누구든 일을 하느라하면 잘못이 있기마련이지만 춘식의 경우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였다. 과연 그

가 분조원들을 한집안식구처럼 품어주고 아꼈다면 그런 삐죽삐죽 모란 의견들이 나올수 있겠는가.

최근에는 가정적으로도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그가 이웃마을에 살고있는 처가와 아예 결렬하디싶이했는데 리유인즉 처제의 신랑감으로 가시집부모들을 만나러 온 총각앞에서 정춘식이 그의 인품을 저울질하는 소리를 함부로 내뱉었다는것이다. 신랑후보자인 총각도 성미가 보통 아니었던지 그 말을 듣고는 문을 차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사실 처녀, 총각 두집사이에 이미 초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폭지를 때는 일만 남아있었다는것이였다. 한데 춘식의 말덕에 깨진 사발이 된셈이였다. 그는 한마디 해보느라고 한 소리였다고 한다. 그가 때와 장소도 못 가릴 둔자도 아닌데 혼사가 맺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자리에서까지 아무 소리나 탕탕 한걸 보면 사람들의 심정과 호흡을 감각할줄 모른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하간 말실수를 했으면 웅당 사죄할 대신 그는 제켄에서 사내녀석이 그쯤한 말도 삭이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아 뒀에 쓰겠는가, 차라리 혼사를 안 맺기를 잘했다고 떠먹거리며 우겼다는것이다. 그러자 처가켄에서는 남의 맘은 안중에 없고 저만 옳다고 하는게 사람의 처사냐, 남들이 너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장작개비라고 한다 하고 되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 말에 춘식은 불에 덴것처럼 우물쩍거리며 거친 말대답을 하고 이쪽에서도 지지 않겠다고 하던 끝에 대판 싸우고는 서로 안 볼것처럼 발길을 끊었다는것이다.

모든 점을 이루어보아 춘식은 저밖에 모르는것 같다. 남의 심정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한 조폭한인가?...

춘식의 고향은 이웃 도의 어느 산골농촌인데 이곳 군소재지의 어느 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농장으로 자원진출해왔다. 농촌지원을 나왔던 기회에 농장처녀와 사랑이 맺어졌던것이다. 처녀를 데리고 고향에 갈수도 있었지만 같은값이면 산골보다 곡창지대인 이 농장에서 본때있게 일해볼 결심이였다고 한다.

그의 지향은 타할게 못되거니와 오히려 지지할만도 한것이다. 한데 그가 일을 잘한다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된 평판의 리면에는 사람들을 위할줄 모으며 자기만 내세우는 리기적본능이 숨어있는게 아닌가싶다. 칭찬만 듣다나니 어느새 코대가 높아져 그 오만방자함이 체내에 깊이 뿌리박혔는가. 그의 분조가 융합되지 못하고 뒤송송하니 말들이 많은것이 바로 그때문이 아니겠는가.

기둥이 삐뚤어진 집은 어느때든 무너지기마련이다. 분조원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겉으로는 잘보이지 않지만 파헤치고 들어가면 여기저기 빈구석이 드러나게 된다. 이 터진 논둑이 그게 아닌가...

문득 광철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손에 삼을 든 춘식이 다가오고있었다.

《아니, 이런...》

그는 놀란 소리를 내며 급히 눈에 들어서더니 터졌던 뚝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비서동지, 이거 미안합니다.》

그가 죄책의 빛을 지은채 말했다.

《나한테 미안해할건 없소. 이렇게 만났김에 하나 묻자우. 요새 동무에 대해 말이 많은것 같던데 알고있소?》

《제가 처가와 좀 다투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나도 말을 듣고 알았소. 그건 가정문제니 차차 풀릴셈치고 어째서 분조원들한테서 좋지 않은 말을 듣는가 하는게요.》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것 같소?》

《제 성미가 못돼놔서...》

《그게 아니요...》

광철은 안타까운 어조로 말머리를 떼었다.

《동문 저만 잘난체 하면서 분조원들을 눈아래로 보는것 같소. 그들을 한갓 로력자로만 여기는게 아니요? 사람은 정이 통해야 마음도 합쳐지는 법인데 동무한테선 그 정이 느껴지지 않거던. 분조원들속에서 의견들이 있는건 그때문이 아닌가 하는게요.》

《...》

춘식은 삼자루를 세워잡고 고집스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광철은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말을 했대야 터진 논둑으로 해서 죄스러워하는 그에게 고통스럽기만 할것이였다.

이윽고 그는 리소재지마을로 향했다.

또다시 위부위가 잡아비틀리우듯이 아파났다.

한참동안 배를 싸쥐고 아픔을 묵새기던 그는 옷옷안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들고 알약 대여섯알을 입에 넣었다. 병이 통세를 일으킬 때마다 이런식으로 멈추곤 했다.

젖은 옷이 김을 피워올리며 마르고있었다.

해별이 따갑게 비쳐들고있었다. 하늘은 언제 비가 왔더냐싶게 파랗게 개여있었다.

## 4

며칠후 관리위원회에서는 장마철우기대책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

병윤은 작업반들에서 장마비에 피해를 입은 구체적사실들을 털거하고나서 책임추궁을 하였다.

그속에는 정춘식이네 분조도 있었다.

그런데 광철의 발언으로 그의 분조가 두드러지게 되였다. 광철은 그의 분조포전에서 물이 넘어나

게 된것은 단순한 실무직원인때문이 아니라 분조원들이 한가정처럼 단합되지 못하고 제각각으로 흩어져있는데서 생긴 빈구석이라는것, 분조장이 가장이 되어 그들을 아끼고 품어주지 못하고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된다면 무슨 일도 바로 될수 없다고 심각히 비판하였다.

춘식의 얼굴은 거의 창백한 빛을 띠고있었다.

광철은 그의 마음이 피로우리라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분조의 실패가 실무적인 말 몇마디로 대충 넘길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회의가 끝난 뒤였다.

병윤은 어쩐지 서글픈 미소를 짓고 광철에게 말을 건넸다.

《아까 춘식이가 방에서 나가는걸 보니 속이 좋지 않습니다. 일에선 남한테 지는 법을 모르는 친구인데... 이번처럼 사람들앞에서 호된 말을 들어보긴 처음일겁니다. 차라리 그를 따로 불러놓고 비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허허...》

광철은 그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지금까지 칭찬만을 들어온 춘식의 체면을 아껴주고싶어하는 로파심때문인것이었다.

《그한테 체면이나 봐주기엔 때가 늦었습니다.》

광철은 나직이 날카로운 어조로 뇌이였다.

《네?...》

《그는 벌써 사람들을 눈아래로 보고있습니다.

사람한테 제일 나쁜 버릇이 이게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한테 어떤 말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한순간 병윤의 낯빛이 거무스스하니 질리는듯 했다....

그날 광철은 세벌김매기가 한창인 벌을 돌아보고 있었다. 검푸른 벌을 배경으로 저 멀리 소재지마을이 한쪽의 그림자나그 선명히 안겨왔다.

새로 건설된 덩치 큰 문화회관이며 병원, 한창 건설중에 있는 살림집들과 기계화작업반건물, 곧추편 도로들... 군농촌건설대 대장은 전망계획대로 건설이 끝나면 농장의 면모는 도적으로도 손꼽히게 될거라고 장담했다. 그제 결코 파장된 말은 아닐것이다. 시작부터 매 건물건설을 어느 농장파도 짚지 않게 하느라고 잡도리를 하고 벌려놓은 일이었다. 지금 벌여지고있거나 계획하고있는 수많은 일들이 즐거운 공상인양 연줄연줄 광철의 눈앞을 스쳤다. 흙보산비료공장건설, 파수원면적늘이기, 축산반의 밀폐식돼지우리짓기 등...

생각에 잠겨 걷던 광철은 부지중 눈길을 들어 저쪽논판에서 김매기를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정춘식이네 분조포전이었다. 앞서거니뒤서거니 제초기를 밀고나가는 사람들속에 손김매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아보인다. 올해 기계화작업반에서는 종전에 쓰던 제초기를 보다 능률적으로 개조하여 작업반들에 나누어주었다. 기계는 작업속도

와 질이 대단히 높고 일이 험해 농장원들속에 호평이 여간 높지 않았다. 현대 여기 포전들에서는 그제초기가 일하는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문득 광철은 저쪽에 벼죽 내밀린 제초기의 웃부분을 보았다.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제초기는 끝줄과 기계사이를 련결시킨 굴개의 고정쇠판이 부러져있었다.

광철은 논쪽에 기계를 끌어올려놓았다.

정춘식이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도 손김매기를 하던중인지 건어올린 팔이며 옷앞자락은 흙물에 잔뜩 젖어있다.

광철은 제초기에서 잠시 눈을 떼지 못했다.

기계가 별정계 녹슬고있는것을 보아 내버려둔지며칠이 지난것 같았다.

이윽하여 그는 물었다.

《어째서 기계는 수리하지 않소?》

《저... 아무리 늦잡아도 닷새면 김매기를 다 할텐데 수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낼것도 없이 지금처럼 일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뭇다 내모는 식으로 말이지?》

춘식은 대답하기가 궁해진듯 입을 열지 못했다.

《이것 보오, 기계를 수리해서 쓰면 분조원들이 그만큼 수고를 덜게 된다는걸 모르지 않겠지.

동문 분조원들을 내몰면 일해야 하는 로력자로만 보는데 아니요?》

춘식의 감때사나와보이는 얼굴이 거뭇하게 질리는듯 했다.

부지중 그가 입을 열었다.

《절 너무 편견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웁소. 일하는 사람이요. 현대 동무가 분조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계를 수리해줬다면 그제 진짜로 일하는게 아닐가 하는게요. 그렇지 않소?》

《...》

춘식은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거뭇한 빛을 띠고있었다. 보매 내심에 터놓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는듯싶었다.

《동무가 정 못하겠다면 내가 할수밖에 없소.》

광철은 결연히 뇌이고나서 걸음을 내짚었다.

춘식은 말뚝처럼 버티고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 5

광철은 침대에 누워 곁에 세워져있는 점적판으로 맑은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져내리는 모양을 지켜보고있었다. 그의 팔에는 점적기주사바늘이 꽂혀있다.

엿그제 그는 슬라크채취장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나서 리당사무실에 돌아와 잠든다는게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정신을 차리지 못한채 누군가

의 등에 업혀 병원에 왔다. 아픔도 한계가 지나면 감각이 마비되는것 같았다. 술한 일들을 불안고 설새없이 뛰어다니느라 때식도 제시간에 하지 못하고 파로하다보니 위경련으로 쓰러졌던것이다. 지금도 그는 병의 아픔보다도 또다른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는듯 했다. 병원에 들어오기 이틀전 정춘식이 가향으로 아주 가겠다고 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던것이다.

너무도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일이었다. 사람들속에서 상서롭지 않은 말들이 떠돌고있었다. 그가 분조원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한데다가 처가집일로 망신스러운 말까지 듣고 나중엔 리당비서의 눈밖에 났으니 그 성깔드센 성미에 농장을 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것이였다.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을뿐더러 춘식의 존재를 특징지었다고도 볼수 있는 말들이였다.

광철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춘식이 가 농장을 아주 뜨겠다고 할 정도에 이를 때까지 그 인간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병싯 열리더니 정춘식이 들어섰다.

광철은 기다린듯 웃음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앉았다.

《거기 앉소.》

그는 맞은편에 놓여있는 걸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춘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걸상에 앉았다.

《그래 어떻게 왔소?》

광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 아마 들어서 알겁니다. 전 고향으로 가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내가 말밭에 올라 체신이 사나와져서 가겠다고도 하고 당비서의 눈에 대다서 빛을 보기 어렵게 되니 가겠다고도 한하는데 뭐 영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전 생활을 다시 시작 하렵니다. 쓰고 지우고 하느라 어지러워진 종이보다 새 종이장에 쓴 글이 더 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허... 농사군답지 않은 소리. 거름을 많이 낸 땅에 낱알이 잘되는 법이야. 이 땅엔 동무의 땀이 적지 않게 스며있어. 헌데 뜨겠다고 말이 쉽게 나와?》

《...》

춘식은 고개를 외로 돌리고 대꾸를 안했다.

《동무가 내 눈밖에 났다고 하는데 툭 터놓고 말해서 난 동무의 뼈대 센 성미가 마음에 들었소. 잘 다듬어주면 한몫 단단히 할 일군으로 보고있었소.》

《절 영웅으로라도 만들어주려했습니까?》

춘식은 입가에 비양기마저 띠우고 뇌이였다. 그

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을 건넸다.

《절 설복하느라 하지 마십시오. 비서동지야 응당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고향으로 가겠다고는 막을 까닭이 뭇겠습니까. 그럴 권리도 없다고 봅시다.》

전 이미 보파리를 싸냈습니다. 그러니 절 주저없이느라 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맺고나서 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춘식이-》

광철의 나직하면서도 타는듯 한 목소리가 울렸다.

춘식은 흠칫하며 돌아섰다.

《동무가 끝내 고향으로 가겠다고는 막을수는 없소. 그럴 권리도 없구... 하지만 동문 제가 살며 정든 땅을 버리고간데 대해선 언제건 후회하게 될거요.》

《그건 두고봅시다. 전 어디 가선들 남못지 않게 일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왕 말이 난김에 비서동지한테 말씀드리고싶은것이 있습니다.》

《?》

《전 비서동지가 농장을 추켜세워보자고 애쓰는 줄 압니다. 판 농장들이 부러워하게 해볼 야심일겁니다. 하지만 피할수 없는 리유로 해서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서동지도 지금 알아놓지 않았습니까. 생활에는 아주 병든 몸이 되든가 또 누구는 무능하다든가 또는 무엇이 없다든가 피할수 없는 리유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을 두고나서 빈정대듯 말을 이었다.

《비서동진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혹시 후날 공명주의를 부렸다는 말만 남게 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는 소리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광철은 저도 모르게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가 한 마지막말이 칼날로 되어 가슴을 마구 내리찍는듯 했다. 숨쉬기도 가뻤다.

광철은 참을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있었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도 인간의 진심을 우롱하는 모욕적인 말을 꺼리낌없이 내뱉는단 말인가. 내가 정녕 당원 정춘식을 잘못 보았던 말인가.

광철은 자기 사업의 허점이 적라라하게 드러난것 같은 수치감과 모욕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더 이상 누워있고싶지 않았다.

그는 움쭉 일어나 상두대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작업복을 꺼내여 입기 시작했다.

이때 병원원장녀인이 들어서다가 화뜰 놀라며 물었다.

《아니, 어찌자는겁니까?》

광철은 혼연히 대꾸했다.

《이젠 다 나왔소. 나가봐야겠소.》



《절대 안됩니다. 비서동지의 몸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군병원에 후송하려던 참입니다.》

《의사들이란 병을 과장하기 좋아한다더니, 허허… 이젠 몸이 거뜬한데 어딜 간단 말지요?》

《병에 대해선 제가 더 잘 알지 비서동지가 압니까?》

원장은 그의 팔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정 그러면 다시 아플 때 쓰게 약이나 좀 주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살려달라고 찾아오겠소, 허허… 약속하오.》

광철은 웃음섞인 어조로 말하며 팔소매를 잡은 그의 손을 떼어놓고나서 문을 열고 나갔다. 원장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지 황황히 약제실로 뛰어들어갔다.

광철은 아무 일도 없은듯 혼연히 복도를 지나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

해별이 지지는듯 뜨겁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누르그름한 빛을 띠기 시작한 논판의 벼포기들도 더위에 지쳐 휘주근히 늘어났듯 했다.

광철은 별 한가운데로 난 길을 걷고있었다.

병원에서 나오는길로 관리위원회에 들렀다가 곧장 농산제5작업반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을걷이철이 다가오는 지금 작업반들에서는 탈곡장보수정비작업을 부쩍 내밀고있다. 올해 농장의 알곡수확고는 폐년에 비해 대단히 높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따라서 가을걷이준비작업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놔야 하는것이다. 한데 5작업반의 탈곡장보수정비가 제일 뒤처지고있는것이 가슴에 걸렸다.

문득 그는 원컨논뜯을 따라오고있는 관리위원장 우병윤을 보았다. 먼빛으로도 그의 얼굴이 컴컴해 보였다. 필경 정춘식때문일것이다.

《아니, 어찌된 일지요. 벌써 병원에서 나오셨소?》

그가 꿈쩍 놀라며 묻는 말이었다.

《이젠 일없습니다. 지금 5작업반에 나가던 길입니다.》

《후-》

병윤은 긴숨을 내쉬더니 갈린 음성으로 말했다.

《내 보건대도 비서동지도 춘식때문에 속을 쓰는것 같습다. 그녀석이 비서동지한테 찾아가서 무슨 소리를 했다는걸 나한테 말합디다. 믿는 나무가 거꾸러진단더니…》

《그 얘긴 해서 뭇하겠습니까. 그가 농장을 떠날 지경이 되도록 일을 쓰게 못한 제 잘못이 더 크지요.》

《비서동무처럼 말하자면 그를 오래동안 손밑에 두고 일해온 나한테 더 잘못이 있습다. 일에서는 난다긴다 하는 녀석이길래 좋게만 봤는데 이렇게까지 배반할줄 어찌 알았겠수. 전에 비서동무가 이

제는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타이르기엔 때가 늦었다고 하던 말이 꼭 맞았소. 한데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소?》

《어서 얘기하십시오.》

《춘식이가 가고나니 좀 생각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지내 다긋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다. 사실 모두들 일에 치렸지요. 고무줄도 지내 당기면 끊어지는게 아닙니까.》

광철은 무엇인가 가슴에 선뜩 와닿는것을 느꼈다. 방금 그가 《우리》라고 한것은 광철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었던것이다.

사실 올해처럼 농장원들이 바쁘게 뛰어본적은 없을것이다. 년초부터 방대한 량의 부식토생산과 건설자재확보, 파수원면적늘이기, 축산반집집승우리짓기 등 크고작은 수많은 일들을 해제끼느라 농장원들이 지친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땀흘려 부지런히 일해온 대가로 알곡수확고는 폐년에 없이 썩 높을것으로 내다보고있으며 농장의 면모도 완전히 때벗이를 하게 되었다.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2~3년안에 잘사는 농장을 얼마든지 따라잡을수 있다. 뒤떨어진 농장인것만큼 웅당 남보다 더 부지런히 뛰며 땀흘려 일해야 하는것이다. 그것은 농장원들자신을 위해서이다. 하기에 농장원들은 힘에 부치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웃으며 서슴없이 뛰어들고있다. 정춘식은 폐외적인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심심하니 잘 자라는 나무일수록 가지에 붙어있는 삭정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를테면 삭정이가 바람에 불려 부러져나간셈이다.

광철은 아직도 예전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성부흥의 패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질풍처대난는 이 시대와 발을 맞추지 못하고있는 우병윤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가 춘식을 빙자하며 일을 다긋는다고 한것은 종전 이 농장의 현실을 고집하고있는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광철은 사뭇 정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동지, 허리띠를 늦추고 쉬엄쉬엄 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건달군이나 게으름뱅이들한테나 리로울겁니다. 농장원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농장이 앞서나가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멀지 않은 후날엔 오늘을 즐겁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저나 위원장동지가 한시도 이걸 잊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병윤의 거뭇한 얼굴은 심한 자책의 빛을 띠고있었다. 이윽고 그가 눈길을 들고 입을 열었다.

《비서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반대할 까닭이 뭐겠수. 춘식때문에 마음의 탕개가 풀어졌던것 같습니다. 그까짓 녀석 쓰는

이발 뽕힌거나 같지요, 허허…》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나서 말을 이었다.

《헌데 지금 비서동무의 신색이 어떤지 아시오. 이길로 병원에 가서야겠소. 다문 며칠이라도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대로는 안되오.》

《전 일없습니다.》

광철은 혼연히 뇌이고나서 걸음을 떼었다.

하늘은 컴컴하니 흐려지고있었다. 날씨가 물कु더나 한소나기 쏟아지려는 모양이었다.

문득 세찬 돌개바람이 일었다. 앞쪽 길가에서 서누런 흙먼지기둥이 타래를 지으며 휩쓸어왔다.

광철은 고개를 수긏하고 흙먼지속을 걸어갔다.

후드득— 쿵알같은 비방울들이 폴짝폴짝 흙먼지를 일구며 떨어져내리기 시작했다.

문득 광철은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은것 같았다. 뒤를 돌아봤다. 우병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있었다. 광철은 못 본듯 그냥 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사방은 대줄기같은 비발의 장막속에 휩싸이고있었다.

## 6

어둑어둑한 저녁그림자가 사위를 덮어버린 때였다.

정춘식은 벌을 한옆에 끼고 뻗은 재령강둑을 따라 걷고있었다. 그는 방금 재령강을 건너 북지리에 들어선 참이었다. 다시는 북지리에 발길을 안하리라 마음먹고 떠난 뒤지만 견딜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춘식은 사리원에 왔던 길에 여기로 걸음을 돌렸었다.

먼발치에서 한번 보고라도 오자. 마치고 소중한것을 떼어놓고 오기라도 한듯 못 견디게 마음이 자꾸 끌리는것을 더는 참을수 없었던것이다.

더우기나 춘식이 북지리를 떠나 고향에 간 이듬해 겨울 뜻밖의 충동을 받은 후부터는 그 심정이 더 간절해졌다.

그날 춘식은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왔었다. 그런데 집앞 울타리밖에 낫익은 화물자동차, 북지리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북지리에서 살 때 가까이 지내던 관리위원회 부원이 웃음 병실 띄우고 마주왔는데 이곳 군에 물자를 실으러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춘식이 북지리에서 일한 분배몹을 가져다주러 왔다는것이였다.

춘식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창졸간에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사실 그는 분배를 타러 갈 체면이 없어 단념하고있던 참이었던것이다.

춘식은 평소애 눈물이 마른 편이였다. 하지만 그때 부원이 한 말을 들으면서는 눈시울이 따라와지고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터놓고 말해서 자네의 분배를 보내줘야 한다고 한 사람은 리당비서동지였네. 아주 간 사람이지만 일한것만큼은 공정하게 농장에서 분배몹을 줘야 한다고 말이네. 동무가 고향에 진실로 마음붙이고 정을 주며 일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도 보내줘야 한다고 했네.》

춘식은 그 말이 엄청난 무게로 가슴을 치는듯 했다. 여태 몰랐던 그 어떤 새로운 지각이 눈을 뜨는듯 했다.

부원은 떠나면서 비양기섞인 목소리로 이런 말도 했다.

《동문 북지리가 옛날 북지리인줄 아나. 식량이나 땀감걱정 없는건 물론이구 집집마다 자연수도까지 났다네. 그것 말고도 우리 농장이 달라진걸 다 말하면 자네 믿겠나. 꿈같은 소리로 들릴거네. 자, 그럼 잘있게.》

그날 밤 춘식은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배몹으로 받은 낱알가마니옆에 앉아 담배만 태웠다.

눈에 삼삼 떠나온 북지리의 모든것이 떠올랐다.

맨먼저 떠오르는것이 리당비서 오팡철의 모습이였다. 리인민병원 입원실에서 아픔을 참아가며 자기를 타이르던 그 정상이 떠오른다. 깊은 병조를 숨겨가며 애면글면 농장의 현대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는 그 사람에게 나는 빈정거리듯 그의 수고와 진심을 우롱하는 말을 막 내뱉었지. 나의 망발을 듣다못해 지그시 바라보던 그 타는듯 한 눈빛, 그 눈에 얼마나 아픔과 고뇌가 력력했던가.

관리위원장 우병윤의 얼굴도 삼삼하다. 일손이 거세고 내밀성이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워주고 칭찬해주던 그가 내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지 얼마나 실망했던가.

이제 비로소 정춘식은 떠난 고장, 북지리에 대한 정이 재무지속의 불티마냥 자기의 마음속에 꼬물꼬물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땅을 한번 꼭 보고싶었다.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던것이다.

이윽고 춘식은 소재지마을로 곧추 뻗은 큰길에 들어섰다. 멀고 가까운 마을들을 눈여겨보며 걸느라니 맨먼저 눈에 뜨이는게 탈곡장들이였다. 건뚫하니 규모있게 엮혀진 기와지붕, 마당을 네모지게 구획짓고 길게 뻗은 흰 담장, 그 옷설미에는 청색기와를 씌운듯 부각장식까지 올러였다. 그 넓은 탈곡장마당도 모자라 담장밖에까지 벼짚더미들이 푸지게 쌓여있는걸 보아 올해농사가 본래있게 잘되었다는것이 대번에 알리였다.

마을들도 규모가 뚜렷이 잡히고 새로 지은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많았다.

춘식은 구름우를 걷는듯 한 심경이였다. 불과 삼년사이에 농장이 이렇게까지 변모될줄은 몰랐다.

리소재지어구에 이른 그는 가로수뒤에 몸을 숨기

고서서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고야 마을로 마치 도적처럼 소리없이 스며들어갔다.

그는 마을중심의 문화회관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현관에 환히 켜진 불빛이 건물의 자태를 드러내 보이고있었는데 그 규모와 품위에 있어서 도시에서도 보기드물다고 할만큼 멋쟁이었다. 더우기 이채를 띠는것은 건물웃부분에 쇠란간을 세운 로대를 회랑식으로 꼭 돌렸는데 그우에 서면 농장벌을 다 부감할수 있을것이었다.

춘식은 현관문우 랑전에 돌친듯 달려있는 두개의 조명등빛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넓고 진부한 모든것을 비웃으며 현대미를 뽐내는듯 한 그 은은하고 눈부신 불빛!...

불현듯 춘식은 세벌김매기를 다그치던 그때 고장난 네초기를 앞에 놓고 꾸짖던 광철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듯 했다. 농장원들을 위하는 그 불같이 뜨거운 진정을 너무도 몰랐던 자기가 혐오스럽기만 했다.

이윽고 그는 쫓기는듯 마을밖으로 향했다. 문득 앞쪽에서 불빛이 편득 비치더니 프락포르가 요란스레 발동소리를 울리며 달려왔다. 춘식은 얼른 가로수뒤에 몸을 숨겼다. 석대의 프락포르가 려이어 지나갔다. 련결차에 가득 실린 거름에서 시큼하니 짙썩은 냄새가 풍겨왔다.

이윽고 춘식은 다시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 들길에 나섰을 때에야 막혔던 숨이 열리는듯 했다.

그러다가 앞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황급히 길아래 논판으로 내려갔다. 두사람의 거묵한 형체가 지나가고있었다.

한순간 춘식은 분명한 오광철의 목소리에 심장이 푹 멎는듯 했다.

《내가 몸이 말썬서 누웠댔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오, 웅.》

《비서동지가 앓는 몸이란걸 누가 모르는줄 압니까. 비서동지가 도병원에 실려가서 대수술을 받고도 입원기간도 채우지 않고 나와 그냥 무리한다고 모두 걱정들을 하고있습니다.》

누군가의 목멘 음성.

《내 걱정은 안해도 되오. 이제 다 나았소.》

《헌데두 작업반실에 쓰러져 혼자 누워있었습니다. 정말 몸을 좀 돌보십시오.》

말소리는 점점 멀어져갔다.

춘식은 애선지 발걸음을 땔수가 없었다. 그사이 리당비서의 신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누구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환히 어려웠다. 종내 그 병으로 도병원에 실려가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으리라. 그 몸으로도 작업반에 나가 일하다 쓰러져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가고있는것이리라. 그가 농장을 이처럼 번모시킬 때까지 기울여온 수고와 노력이 어떤것인지 눈물겹게 안겨왔다. 그는 어쩐지 자기가 다루던 분조의 포전이 못 견디게 보고싶었다.

그는 본능에 끌리듯 논둑을 넘고 무엇엔가 발을 걸체이며 허둥지둥 달음질치듯 걸었다.

얼마후 춘식은 어둠속에서도 온몸에 확 끼쳐드는 훈기, 그 땅을 느꼈다. 무릎을 굽히고앉아 땅을 마구 어루만졌다. 꿈결에도 떠오르고 때없이 보고싶던 이 땅... 그 어디에 나의 땀이 스며지 않은 곳이 있으랴. 어디선가 구수한 두엄냄새가 풍겨왔다. 누가 두엄을 났을가, 내가 없었는데?... 그는 언뜻 스치는 의혹이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망연자실해졌다. 그 모든것은 돌이킬수 없는 과거였던것이다. 열간망둥이처럼 허튼 길로 빠져져나간 그 죄를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것이다. 제자신도... 서퍽짜리 자존심, 명예, 체면에 놀아난 자기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졌다.

그는 분조포전밖으로 맥빠진 걸음을 옮겼다. 가슴속에서는 항변하듯 그 어떤 부르짖음이 고래쳤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잘못 나간 길을 지워버릴순 없단 말인가. 이 땅엔 아낌없이 쏟은 나의 정과 땀이 스며여있다. 그래서 고향에 간 후에도 살불이를 떼어두고온것처럼 허전하고 괴로왔고 죄를 지은듯 사람들앞에 부끄러웠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한들 텅 빈듯 한 이 마음속을 메울수 있을것인가.

어느때든 자기가 여기를 버리고 온 사유를 안다면 고향사람들도 온전한 인간으로 쉼에 넣어주겠는가. 과연 오랜 나날 이 땅에 땀을 적시며 무거운 이삭을 거두어들인 그 노력의 대가가 한번 잘못 내디딘 길을 보상 못할만큼 가벼운것일까. ...

부지중 춘식은 걸음을 멈추고 불빛이 환한 리소재지마을쪽을 넋없이 바라보았다. 관리위원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정춘식이한테는 리해를 앞세우며 무엇이든 들어주던 그였다. 만약 농장으로 되돌아온다면 사람들앞에 부끄러울것이다. 그러나 일생 후회하기보다는 뒤늦게나마 제 길에 들어서는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

이튿날 아침 춘식은 관리위원회에 나타났다.

병운은 그의 말을 다 듣고나서 뺨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다시 오겠대구?... 정말 뻔뻔스럽구만. 동문 사람들앞에 나설 체면이 있소?》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농장이 잘살게 되니 오겠다고 한대구 얼굴에 침을 뱉을줄 압니다.》

하지만 전 이제라도 사람이 되고싶습니다.》

《여기 와야 사람이 된다는 법이 있소. 그따위 말루 리기적욕망을 가리우지 마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문 달라진게 없구만.》

춘식은 맥없이 고개를 수그렸다.

《동문 떠나면서 리당비서의 가슴에 칼을 박

듯 못된 소리 한길 잊었소? 헌데 이제 다시 오겠사?!... 기가 막힌노릇이군.》

병윤은 노기편 어성으로 부르짖고는 그라는 존재를 무시하듯 무엇을 찾는지 책상서랍을 여닫고 서류를 뒤졌다.

춘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때 병원에서 리당비서에게 뇌까린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지금은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듯 했다. 그는 자기가 와야 할 곳까지 다 왔음을 느꼈다. 이제 한발 더 내질는다면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음을 소스라치게 깨달았다. 그는 문설주에 어깨를 부딪치며 맥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광철은 별관에서 농장원들과 거름퍼기작업을 하고있었다. 방금 벌에 나온 관리위원장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춘식이 왔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가 다시 오겠다고 했던 말입니까?》

광철은 걸이대질을 멈추고 물었다.

《예, 그 말을 들으니 사람같지 않더라 말입니다. 농장이 잘살게 되니 기여든 그 꼴이란 참... 보기도 흉해서 저레 쫓아버리고말았수다.》

《여하튼 정춘식이다운데가 있습니다. 배짱이 있거던요, 허허...》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설마 그를 받아주자는 말은 아니겠지요?》

《못 받아줄것도 없지요.》

《예?》

병윤은 눈을 크게 뜨며 뇌이였다.

《농장에 춘식이 십년나마 정들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농사군인데 잊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전보다 달라진 농장을 보니 생각이 많았을겁니다. 그가 다시 오겠다고 할 때야 바른길에 들어서고싶은 그 마음때문이라고봅니다. 그를 받아주는게 어떻습니까?》

병윤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갈린 음성으로 부르짖듯 말했다.

《비서동문 농장을 꾸리느라 얼마나 애를 태우고 무슨 고생인들 안했소. 언제한번 변변히 자고식사를 한적이 있소? 그래서 이젠 다른 농장들에서 우리를 부러워하게까지 됐수다. 헌데 정춘식이 농장을 버리고가면서 비서동무가슴에 칼질하듯 못된 소리를 한길 생각하면... 그래 그를 다시 받아준다 말입니까.》

한순간 광철의 얼굴이 희여꿈한 빛을 띠었다.

그의 가슴속엔 지금도 그때 춘식이 한 말이 비수처럼 박혀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를 떠나보낼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두고 늘 괴로왔었다.

헌데 정작 그가 돌아오겠다고 한다니 그 모든 시름과 괴로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반가움이 앞서는것이였다.

《농장에서 우리의 존재란 무엇이겠습니까. 농장원들을 위해서 필요한게 아닙니까. 한사람도 품어주지 못할만큼 속이 좁아서는 안된다고봅니다.》

우리한테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칠 권리만 있기때문이지요.》

광철은 말을 맺고나서 멀리 앞쪽에 숙연한 눈길을 주었다.

병윤은 고개를 수긏하고 잠시 말이 없었다.

부지중 그가 입을 열었다.

《제 비서동무한테면 면목이 없수다. 춘식이가 빼뺏어져나간건 내탓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겁니다.》

일을 잘한다고 그저 등을 두드려주다나니 버릇이 꺾혀져 나중엔 저밖에 모르는 리기주의자가 되었지요.》

이젠 그가 지각이 생겨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 한사코 막아나서고있으니 나는 확실히 그릇이 작은놈이었수다. 좋수다. 래일 당장 사람을 띄워 춘식을 데려오게 하겠수다.》

《허허... 급한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자면 집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땅이 열기 전에 새집을 번듯하게 짓도록 합시다.》

《아니, 그 못난 녀석한테 새집을요?...》

병윤은 눈을 떴듯하게 뜨며 어이없는 어조로 뇌이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을 줄줄 몰랐지요. 그래서 뿌리들린 나무처럼 됐던겁니다. 새집을 지어놓고 불려온다면 사람에게 제일 귀중한게 무엇인가를 더 똑똑히 깨닫게 될거란 말입니다.》

...

×

엿그제 관리위원회 부원이 춘식이한테 다녀왔다.

그가 하는 말이 춘식은 자기를 찾으러 올줄 어찌 알았겠는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리당비서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나서겠는가고 하면서 그냥 흐느껴울더라는것이다. 그날 복지리에 갔을 때 리당비서도 만나고싶었지만 마음이 끌리는것만큼 못내 두렵게 느껴졌다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농장을 무릉도원으로 꾸려놓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군불을 때며 구들을 덥히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모르고있는것이다.



# 눈에 보이는것, 심장에 미쳐오는것

백 현 숙

단편소설 《이 땅을 사랑하라》(오광천 작 《조선문학》 2013년 5호)에 대하여 누군가 도식적인 이야기같은데 감동깊게 읽었다고 말하였다. 도식적인 이야긴데 감동깊다니? 뒤가 뻔드러운 도식은 소설의 견인력을 말아먹는 금물이 아닌가.

나는 호기심을 안고 소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 눈에 띄인것은 역시 도식이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정하는 이야기... 그러나 소설을 계속 읽어나감에 따라 눈에 거슬리던 도식은 어느덧 뒤전에 밀려나고 심장에 미쳐오는 둔중한 충격을 느끼였다.

땅이란 무엇인가.

공기처럼, 물처럼 레사롭게 여겨왔던 땅에 대하여 나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반문해보았다.

작품을 다 읽었을 때에는 이미 이 작품에서 땅처럼 무거운 무게가 안겨왔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문제의 심오성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물론 형상수법과 기교를 떠나 소설의 특색을 논할수 없다.

그러나 소설창작에서 작가가 제일 선차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 소설의 격을 규정짓는 판건적인 문제는 주제의 발견이다.

주제의 가치를 떠나 소설의 우열에 대하여 논할수 없다. 아무리 구성이 특색있고 놀랄만 한 재치가 엿보이는 소설이라 해도 주제가 새롭지 못하고 의의가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눈맛만 좋고 심장에 와닿지 않는 소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작품으로 된다. 그래서 작가에게서 큰 재능은 주제를 발견하는것이라는 말도 있다.

단편소설 《이 땅을 사랑하라》는 주제발견의 견지에서 인상깊은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의 발견은 심각한 극을 내포하고있는 사회적문제의 제시에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땅은 그 땅이지만 땅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달라졌다.

해방전 나라를 잃어 땅 한뼘기에조차 명줄을 걸수 없었던 농민들에게 있어서 땅은 목숨보다 귀중하였다.

해방후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의 전부였다. 하기에 미체가 그 땅을 빼앗으려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그 땅을 지켜 죽음도 두려움없이 결사전에 나섰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 땅은 마치도 웅덩우리의 발밑에 있어야 하는것처럼 레사로운것으로 되어버렸다. 그 한치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더운 피가 숨배여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군 한다. 그래서 그 땅을 실무적으로 대하며 쉽게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있다.

어째서 같은 땅을 놓고 사람들이 땅의 귀중함을 다르게 느끼고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아닐수 없다. 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의 발견으로 하여 작품은 독자들에게 땅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심어주고 무게있는 충격을 주고있다.

그러면 이 소설은 그 누구의 말대로 도식적인 이야기인가.

눈에 보이는데로 본다면 이 소설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정하는 도식적인 이야기이다.

소설의 간단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방경모는 아들의 자연호흡식물길설계대로 하면 십여정보의 땅을 잃을수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가슴아파하기도 하고 통나무를 켜는데 날리는 톱밥이 새발의 피라고 하는 아들의 견해에 일순 공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경모에게는 제땅이 없어 이 땅을 안고 몸부림치던 해방전 아버지의 절규가 쿵쿵 가슴을 울린다.

경모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밤새 고심하여 땅을 찾을수 있는 방도를 찾아낸다. 이것으로써 경모는 자기 아들을 부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짚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모의 의견은 농업성 국장 강철길에 의하여 여지없이 거절당하고만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에 경제적타산도 없이 방대한 공사를 제기하는것은 옳지 않다, 또 성태의 설계안을 철회시키면 성태의 눈부신 발전전망도 막히고만다...

여기서 방경모는 주저한다. 자기에게 힘들게 태어난,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기적으로 안겨진 아들이였기때문에 결코 아버지로

서 그의 전망을 서슴없이 막아버릴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중학생들의 인민군대탄원모임을 계기로 경모는 색바랜 아버지의 편지를 상기한다. 땅이 있기에 죽음을 향하여 웃으며 맞받아나간 아버지의 마지막부탁, 이 땅을 사랑하라는 당부가 가슴에 미쳐오자 경모는 다시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걸음을 주저없이 내짚는다.

방경모는 강청길에게 폭탄이 작렬하는 속에서도 땅을 가꾸다 숨진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상기시켜 이 땅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준절하게 깨우쳐 준다.

보는바와 같이 소설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부단히 교차, 대조되고있다.

소설의 견인력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땅에 대한 관념의 극적인 대조속에 있다. 소설은 아들이 아버지와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방경모의 내면심리속에서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과정으로 극이 전개되고있다.

결국 이 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평범한 날 한치 땅을 지켜내는 이야기로 볼수 있다.

즉 어제날 피로써 찾았고 목숨까지도 바쳐 지켜낸 한치한치의 땅을 행복한 오늘에도 굳건히 지켜가는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아들의 전망까지도 희생시키면서 땅을 지켜내는것으로써 작품의 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다.

소설에서는 피로써 찾고 지켜온 땅은 아들의 전망에 비할수 없는 훨씬 더 귀중한것이며 그 어떤 대

가를 치르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영원한 채부임을 방경모의 말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하고있다.

《...땅은 천만금을 들여서도 살수 없는 이 하늘 아래의 가장 큰 채부야. 땅을 떠난 애국이란 있을수 없어. 내 아들의 행복도 이 땅이 있어 마련되는것이구.》

이렇게 놓고볼 때 이 소설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탐구된 주제와 문학적이야기가 깃든 작품이다.

이밖에도 작은 용적의 단편소설에서 사건적인 전환이 없는 회상들을 거듭 설정함으로써 땅의 역사를 함축하여 보여준것, 단역이라고 볼수 있는 과거시대 인간들의 축매적역할 등도 이 소설의 특색으로 들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속에서 안겨오는 도식의 느낌은 의연히 해소할수 없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설정으로 일정한 극적효과를 보았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로 하여 작품의 기본극이 다소 가리워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순수 기교를 위한 기교, 눈맛을 돋구려는 인위적인 극조작은 작품에 그늘을 지어준다는 교훈도 시사해주고있다.

기교는 눈에 보이지만 무게있는 주제는 심장을 진동시킨다.

눈으로 읽히우는 작품이 아니라 심장으로 읽히우는 소설을 쓰자.

그러자면 우리 작가들이 생활속에서 심오하고 특색있는 주제를 발견하여 소설작품에 깊이 심어놓아야 할것이다.

## 가 사

### 황해금강 장수산

#### 류 정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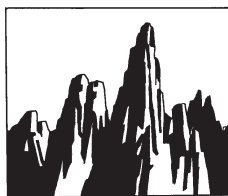
금강산 봉우리를 여기에 옮겨왔나  
둘러보니 일만경치 한눈에 안기누나  
병풍같은 기암절벽 볼수록 장관인데  
절벽끝의 달암절 그 모습이 신비롭네

만리화꽃송이 떨기떨기 수를 놓고  
3백년수 맑은 물은 장수보약 자랑하네  
은파호의 자라도 명산 찾아왔다가  
이 절경에 반하여 바위로 굳어졌네

천년세월 전설로만 전해지던 네 모습  
장군님은턱으로 명승으로 빛나누나

하늘같은 그 은정 봉이마다 새겨놓고  
후손만대 빛내가리 황해금강 장수산

에헤라 예가 바로 황해금강 장수산  
에헤라 예가 바로 황해명승이로구나





# 가을풍경

리 순 호

1

김우련은 날이 어슬해서야 일을 끝냈다.

오후 한껏동안 막내딸 복실이가 일하는 5분조담당포전에 손달구지로 거름을 실어나른 우련로인이었다. 분조에서 트랙또르나 소달구지로 퇴비를 날라준다지만 그의 승벽심으로는 그걸 기다려내기가 벅찼던것이다.

몇년전에 년로보장나이가 되어 집에 들어앉았지만 여전히 작업반농사에서 손을 떼지 않고있는 그였다.

담당포전에서 분때있게 농사를 지어 사람들을 놀래워보자는것이 그의 심산이었다.

그는 분조장과 작업반장뿐아니라 농장관리위원장까지 찾아가 만나 자기 심정을 토로하여 제 몫으로 더 많은 포전을 맡아안았다. 헌데 지난해엔 창피스럽게도 동갑이인 문창두령감네보다 담당포전의 알곡소출이 떨어졌다.

문창두는 우련이 분조장을 할 때 작업반장을 하던 령감이다. 우련이와 같은 해에 년로보장을 받고 물러났은 문창두는 낚시질 아니면 외손자 봐주는 재미로 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래 언젠가 김우련은 톱으로 소일거리로나마 포전에 나가보라고 충고를 주었었다.

그때 문창두는 딸, 아들 뒤바라지를 잘해주면 그것도 큰것이라고 대꾸했었다. 그 말 그른데는 없지만 왜선지...

헌데 글썄 그 문창두령감네가 자기보다 높은 수확고를 냈으니...

물론 아들 문순석이 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늘씬한 키에 용모가 준수하고 농업전문학교 최우

등졸업생으로서 아는것이 많은 문순석은 기라도 잘타는데다가 호방한 성격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있었다.

특히 딸가진 부모들의 선망어린 눈길이란...

농사일에 눈이 트고 손끝이 여물어서 사람들의 찬사속에 살고있는 막내딸 복실이를 내심 자랑으로 여기고있는 우련이까지도 은근히 넘보고있는 제대군인총각이다....

그러나 어쨌든 망신이다. 경험으로써야 어디... 헛참!

문창두령감네가 담당한 포전이 원체 지력이 높은 하지만 그게 문제랴. 부지런한 실농군한테 좋고나쁜 땅이 따로 없다는거야 예로부터 일러내려오는 말인걸.

제판의 금지감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문창두령감네가 논2모작농사로써 당당히 앞설수 있는것은 우련의 심혈이 깃든 우성계열의 올봄보리를 심었기때문이었던것이다.

우성올품종을 얻어낼 때 농장에 내려와있는 농업과학원 연구사의 방조를 많이 받긴 했지만 우련의 공로 역시 무시할수 없는것이였다.

문순석이 그 품종을 택했을 때 문창두는 반대했다고 한다. 파악이 없는것이라면서...

그 말을 전해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것만 같던 심정... 분조장시절부터 우성올품종을 얻어내려 애쓰던 우련을 반장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뒤다리만 잡아채더니 오늘까지도...

하지만 우련은 웃어버렸다. 《스트레스는 몸에 해로운거야.》하고.

순석은 바로 그 올품종으로 적지 않은 량의 봄

보리를 수확하여 농장일꾼들과 사람들을 놀래운 것이다.

《팬참은 너석이야.》

헌데 우련이 자신은 두벌농사를 짓지 못했다. 우련이네 담당전전은 점성이 강한 질흙땅이어서 논앞 그루보리농사적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 부라벌은 유기질비료원천이 제한되어 있어 지력과 알곡수확고를 다같이 높일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신통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속상했다.

우련이네가 한창나이일 때에는 풀퇴비원천이 적다는 데로부터 국가에 의존하여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다 싶이었다. 이제는 그것이 《소화장애》를 일으켜 논들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오늘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끼친 후과란...

담당전전농사를 멋있게 지어볼 욕망은 불같은 데 참.

하긴 년로보장나이가 될 때까지 10여년간이나 분조장사업을 하면서도 해결 못한 일인데야.

물론 분조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수행 못한 것은 아니다. 문제로 되는 것은 과학적 영농방법에 의한 높고 안전한 수확이 아니라 지원로력을 받아 간신히 생산계획을 맞추어냈다는 그것이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우련을 일을 많이 한 공로자로 내세워주었고 지금껏 우대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마움과 죄스러움, 보답할 일념...

나이가 한이다. 분조장 시절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게을리한 과학지식 습취, 때늦은 후회... 아니, 아직 너무 때가 늦은 것은 아니다. 우련이 년로보장으로 돌아왔은 그 몇해 사이 농장에서는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우련이도 그 방법들을 배워 실지 써먹으려고 애써온다. 자기네 개인퇴적장의 퇴비에 진거름과 과석을 혼합하여 어느 퇴비에 비해 린효과가 5배 이상이나 높은 새로운 생물활성퇴비를 만들었고 재에 물거름을 부무려 효능 높은 재거름으로 전환시켰으며 새벽마다 산분모으기를 정상화하여 많은 량의 산분을 수집해놓았다.

그래도 땅을 옥답으로 걸구려면 아직...

어떤 수로 제풀에 으쓱해진 문창두령감을 꼭 눌러놓는담.

그 령감한테 혼사말을 꺼내제도 그래, 또 나이와 함께 생겨난 《호사병》을 고쳐주제도 그래 결정적으로 높은 알곡소출을 내야 할텐데...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우련로인이었다.

헛간에 손달구지를 들여다세우고 덧저고리와 덧바지를 탕탕 털고난 우련은 숨장갑을 벗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확— 온몸에 느껴지는 아늑함, 파스함, 그로부터 환기되는 흐트함...

우련은 문득 눈이 대번에 커다래졌다.

격두룩한 키, 이제는 살이 내려 길쭉해진 얼굴, 코마루가 뭉툭한 코와 넓직한 입, 덧저고리와 덧바지를 잔뜩 끼입어 볼품없는 모양, 어리둥절해 서있는 어쭙은 모양의 령감이 방안에 세워진 커다란 평면경대에 비쳐진 것이었다. 복실이가 경대를 사오겠다고 하더니...

경대를 장식하던 어이딸이 동시에 돌아본다.

《아니, 령감, 제 방귀에 놀란 노루처럼 눈은 왜 그리 크게 뜨고 서있수?》

《혹시 우리 집에 김우련이가 둘이 아니야?》 하고 우련이 거울속의 자기를 가리켜보이자 거울속의 김우련이도 마주 손가락질한다.

《어, 저 령감 봐라, 제법 맞서는걸.》

우련의 해학에 방안에 즐거운 웃음이 일었다. 웃음속에 경대와 복실이를 엿갈아보니 새삼스러운 생각이 인다.

참, 우리 복실이 나이가 스물일곱살이지.

옛날같으면 과년한 나이다. 그땐 한살두살 나이를 먹는다고 필쩍 뛰며 처녀의 금새가 떨어진다느니, 큰일났다느니 했는데 지금 처녀총각들은 먹은 나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나이보다도 그 시절에 해놓은 일을 두고 더 가치를 묻는 것이다. 하긴 그래서 현대판이란게지. 어쨌든 맞춤형 상대를 골라줘야 할텐데...

다시금 떠오르는 순석의 준수한 모습, 눈이 좁작은 것이 흠이라면 흠일가...

《아버지, 어때요?》

복실의 명랑한 목소리가 우련의 착념을 깨쳤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키가 크고 몸매가 쭉 빠진 딸이었다. 이목구비도 큼직큼직한데다 손마저 커다래서 (원참, 처녀의 손이란게.) 하고 혼자 웃을 때도 있다.

우련은 딸이 가리키는 경대우의 장식에 눈길을 보냈다. 푸른 잎사귀들사이로 빨간 고추들이며 노르불그레한 감들이며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장식이였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장식도 있었을텐데 가을풍경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취미를 생각해서 저런것을 사왔을가? 허허, 딸이란 참.

마음이 험험해진다. 장식이 좋기는 한데... 뭔가 부족한듯싶다.

진짜 가을이라면... 그렇지!

우련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이윽해서야 들어오는 우련의 손에 들려있는 탐스런 벼이삭뭉치 두개와 방치같은 강냉이이삭 한개...

《이런게 있어야 진짜가을맛이 나는게지. 암, 그렇구말구.》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긍정하는 우련이였다.

《호호, 령감 아동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



구경에 빠하시더니 진짜 아이가 되려는게 아니시우?)》

악의없이 시끄르느 마누라다. 하긴 사실이기도 했다. 집에 들어앉으니 시간만 되면 다가앉게 되는것이 텔레비죤이고 아동영화가 나오면 더 좋아하군 한다.

한창 일할 때에야 어디... 향유하는 멋이란 참.

우련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모르는 소리, 아동영화가긴 해두 〈다람이와 고슴도치〉는 현대판이야. 사람이 나이들었다구 해서 현시대에 뒤떨어져서야 안되지. 암, 그렇구말구. 복실아, 이걸 잡아라.》

량견에 황금색의 깃털목음같은 벼이삭들을 매달고 가운데에는 강녕이이삭을 드리워놓고난 우련은 두걸음 뒤로 물러서서 경대우의 장식을 감상했다.

《어떠냐? 진품으로 장식해놓으니...》

파일남새에 곡식들까지 주렁주렁 드리웠으니 집안에 정말로 풍요한 가을이 찾아온듯싶었다.

《어마나, 아버지, 멋있어요. 〈우리 집안 가을 풍경〉! 정말 멋있어요, 호호호...》

봉긋한 가슴우에 두손을 모두며 탄성을 터치는 복실이였다.

《그렇지! 허허허...》

《꽤나 좋아들은 한다, 호호호...》 하고 마누라도 덩달아 웃음발을 날리니 밝은 대조화음을 이룬 유쾌한 웃음소리는 때아닌 겨울철에 가을풍경을 펼쳐놓은 집안에 유난스런 색채를 더해주었다.

## 2

다음날 아침 첫새벽부터 산분을 모으다가 들어온 우련은 식사를 마치고나서 일어나려고 서두르는 복실이를 정색해서 불러앉혔다. 로인의 표정은 자못 진중했다.

《복실아, 너한테 특별임무를 주련다. 그게 뭐고 하니 이번에 새로 분조장으로 선거된 문창두령감네 아들 문순석이한테 바짝 접근하여 어떤 방법으로 분조포전을 걸구려 하는지, 한해농사계획은 어떤건지 알아내는거다.》

《아이참, 아버지두. 그런거나 알아선 무얼하실려구요?》

곱게 눈을 할기는 복실이였다.

《알아야 한다. 작년처럼 또 망신을 해서야 안되지. 암, 그렇구말구. 말그대로 포전담당책임제인데 우리가 맡은 포전을 우리가 나라앞에 책임져야 할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논이 지력이 높지 못하거든. 2모작적지두 아니구. 이게 문제거든, 모르는게 너무 많으니...》

부엌에서 들어오던 마누라가 흐덕흐덕 웃는다.

《여보 령감, 들으니 무슨 중요한 경찰임무라도 주는것 같구려.》

《경찰임무래도 이만저만 중요한 임무가 아니지. 이 임무는 꼭 수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넌 순석이의 〈특별보좌관〉이 되여야 한다. 이제부터 네 대호는 〈방울꽃〉, 아버지는 〈은하수〉.》

어이말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마누라는 옷자락으로 눈굽을 찍어내기까지 했다.

《아유, 우스워라. 너의 아버지가 아예 〈다람이와 고슴도치〉에 환장을 했나보다. 내 젊었을적에 어떤 외국책을 불러니 돈 끼호테인지 미친 끼호테인지 하는 녀석이 무슨 기사책이라는걸 밤낮으로 읽다가 머리가 돌아서 나중엔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해괴망측한짓만 골라하더니, 호호호...》

그러거나말거나 우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아래눈시울이 약간 처질사 한 부리부리한 눈에 시종 심각한 빛을 띠우고앉아 웃고있는 딸을 여겨보고있었다.

《〈방울꽃〉, 성공을 바란다.》

《〈은하수〉, 알았다, 호호호...》

복실은 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그체서야 우련의 길쭉한 얼굴에 혈조가 피어나고 넓적한 입에서는 호호탕탕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헛헛헛...》

해학적인 김우련이였다. 언젠가 그는 마누라한테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여보 로친네, 내 이제부터는 말이요 하루 〈행동강령〉 5가지를 꼭꼭 지켜가지구 이 좋은 세월에 적어두 100살은 살자는거요. 건강해서 오래살아 농사일에 보탬줘야 한 일 적은 이 김우련이를 공로자로 내세워주신 우리 원수님의 사랑에 보답할게 아니요.》

그는 로친네도 하루 《행동강령》 5가지를 지킬것을 권유했다. 나이가 되여 일손을 놓은 늙은이들한테는 꼭 필요한것이라면서 로친네뿐아니라 문창두령감한테도 권고했었다. 그러나 그 령감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일부러스러워지는 령감의 해학에 마누라는 곧잘 맞장구를 친다.

어쨌든 딸보다 령감덕에 자주 웃을 일이 생기곤 하는 집안이였다.

《자 로친네, 오늘도 시작을 바로 뻗은즉 〈십소〉는 때론 당상인지라, 허허. 그렇다구 폭소만 다 좋은게 아니라니. 마음속의 잔잔한 웃음, 봄바람같은 미소, 이것두 잔근심을 없애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는 좋은거라니까. 중요한건 웃을줄 아는 거야. 암, 그렇구말구. 〈방울꽃〉의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세.》

그런데 복실이가 날라온 첫 정보는...

김우련은 아연해서 되물었다.

《뭐? 문창두령감네가 자기네 논을 우리 논하구

바깥 음모를 꾸민다구?)

《어마나, 아버지두 참. 음모가 뭐예요, 나쁜놈들이 하는짓처럼...》

《그게 바로 나쁜짓이지. 헌데 대체 누가 그런 얄은 수를 생각해냈던?》

망설이던 복실이는 해죽이 웃고나서 대답했다.

《아마... 순석동무 생각같아요. 우리 논상태가 나쁘니 우릴 돕자구... 농업전문학교 최우등졸업생이 아니나요. 또 분조장이구.》

《걸어치워라.》

김우련의 어성이 높아졌다. 깜짝 놀란 마누라가 황황히 중재해나섰다.

《아니 령감, 갑자기 소리는 왜 치시우. 순석이 그 사람 속이 깊기가 조선동해갈오니 공포자인 당신 생각을 해서 그랬을텐데 무슨 나쁜짓이라구 성을 내시우. 건강에 해되겠수다, 원.》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구요. 적당히 성을 내는 게 오히려 건강에 리로운거야. 나쁜 감정을 쌓아두면 그만큼 잔근심과 스트레스가 생겨 우울증에 걸린다는걸 몰라? 뭘 좀 아는것 같으면서두 영 모른다 말이야.》

팬스레 마누라한테 까박을 붙이는 우련이었다. 좀해 성을 내지 않는 그였지만 논을 바꾸려 한다는 말에 모욕을 느꼈던것이다.

《그러니 내용인즉 순석이 작간이렷다? 당장 만나 싸개봐야지. 복실아, 가자!》

아버지가 진짜 갈 차비를 하자 바빠난것은 복실이었다. 분조장에 대해 좋은 감정을 품게 하자던 노릇인데 오히려...

《야참 아버지, 그러다 〈방울꽃〉 정체가 드러나면 어쩔려구 그래요?》

복실이 애교를 부리며 매달렸지만 우련은 막무가내였다.

《꽃동산정찰병두 한순간을 위해 필요한거야. 〈방울꽃〉 정체가 탄로나면 본부로 소환하자꾸나.》

기다란 허리를 꼴끗이 편 김우련은 문순석이가 일하고있다는 작업반탈곡장으로 마치 정보로 건듯 위풍있게 격실격실 걸어갔다.

복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따라섰다. 길바닥으로는 바람맞은 눈가루들이 파도인양 이랑을 지으며 물결쳐가고 우르르 날아오르던 한무리의 참새떼가 바람에 밀리워 어디론가 사라졌다.

문순석은 탈곡장가까이에 만들어놓은 후민산염생산기지에서 분조원들과 함께 일하고있었다. 이 후민산염기지는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해 문순석의 발기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작업반에서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있었지만 작업장안은 한결 훈훈했다. 모두들 순석의 작업지휘에 성수가 나서 일손을 늘리고있었다.

《일을 치킨 칠 사람인데.》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 김우련이었다.

순석이한테로 다가간 복실이가 뭐라고 소곤거린다. 머리를 끄덕이고난 순석은 복실이한테 무슨 지시인가를 주더니 문꺼로 걸어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김우련이한테 굵석 인사를 했다.

《복실동무 아버지군요. 추운데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임자 덕분에 찬바람을 좀 쏘이네.》

우련은 짐짓 푸접없이 대척하고는 제잡담 물었다.

《우리 포전을 임자네 포전과 바꾸려 한다는게 사실인가?》

《예, 그 문제를 가지고 복실동무 아버지와 의논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건 왜서? 우리 논 지력이 낮기때문에?》

《그것때문이기두 하구 또...》

《안될 소리. 푹푹히 알아두게, 내 이래봬두 일구칠삼년도 제대군인이야. 제대군인이 그래 담당포전이란게 뭘지두 모를상싶나? 군대때루 말할라치면 조국이 병사 김우련이한테 맡긴 전호의 한구간이나 같은건데 그래 자기가 맡은 구간의 위치가 나쁘구 방어에 불리하다구 해서 다른 사람과 바꿔달라고 하는 군인을 본적이 있나 말일세.》

《...》

《임자가 제대병사 김우련이를 알길 우습게 아는 것 같아서 찾아왔네.》

김우련의 노여움에 문순석은 미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반성했다.

《제 그만 미처 옛 병사의 심정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심히 잘못됐네. 암, 그렇구말구.》

기고만장해하는 김우련이었다. 문순석은 입가에 미소를 그리며 공손히 자기의 의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 그 눈에 벼알그루로 감자를 심어볼가 해서 그랬던겁니다.》

《뭘, 감자농사?》

아래눈시울이 약간 처질사 한 김우련의 눈이 등싹해진다.

허, 이 사람 기세가 맹렬한걸. 점성이 강한 질흙땅에서 감자농사라니, 습해를 받기만 하면 십년공적 나무아미타불로 되고말텐데...

《그건 안되네.》

순간 저도 모르게 흠칫하고 떨려지는 몸. 추위때문일가? 언젠가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건 안되네.》하고 딱 잘라매던 일이. 언제드라? 그렇지. 순석이 아버지 문창두령감이 논2모작 봄보리파종면적을 대폭 늘이자고 했을 때였지.

그때 반대하는 우련을 쏘아보던 문창두의 싸늘한 눈빛, 우련의 정수리를 쇠몽둥이로 내려치는듯싶던 그의 차거운 목소리...

《자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외면하자는 건 아닐테지?》

얼음물을 들이킨듯 속까지 떨려난다.

마치 몇년전 그 논두렁우에 서있는듯 한 착각...

《왜 안된다는겁니까?》

조용히 묻는 순석의 목소리에 우련은 현실로 돌아왔다.

우련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입을 열었다.

《적지적작에 어긋나. 임자도 우리 포전상태를 알지?》

순석은 빙그레 웃었다.

《압니다. 그래서 보리가 아니라 감자를 심자는 겁니다. 수분이 많은 논이니 발이랑짓듯 하지 말구 두둑을 만들면 능히 습해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두둑을 만든다구?》

《예, 가뭄때는 물대기가 좋은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또 지력이 낮은 복실동무네 포전농사는 결정적으로 록비효과를 리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앞그루농사에서 생겨난 감자잎줄기를 논에 묻어주어 뒤그루벼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

《복실이 아버지, 지금은 전호 하나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격을 들이대야 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인 〈마식령속도〉로 내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에서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우련은 눈이 뻥해서 순석을 쳐다보기만 했다. 이미 지나간 몇년전 그날처럼 또다시 한방망이 되게 얻어맞은듯 머리가 뻥해졌다.

그러니 반복?... 인간생활에 이런 반복도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있을수 없다. 인간생활 그자체가 창조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꼭 그날 그 논두렁우에 서있는듯싶은걸가?

반복?... 아니다. 현상자체는 비슷한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그때에 비해 훨씬 높은 뜻을 안고있는 반복이다.

우련은 자기가 어떻게 순석의 결을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터벅터벅 밭당은대로 걸었다. 머리속에서는 그때의 일, 잊혀지지 않는 몇년전의 그 일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묵은 상처를 쭈시듯 매삼치고있었다.

...김우련은 리내초급일군모임에서 된비판을 받았다. 파악도 없는 올종봄보리를 분조논앞그루로 심었다가 실패한것이였다. 사실 기온이 낮은 서북부지대인 여기 부라벌에서는 여태 심고있는 봄보리가 잘 맞지 않았다. 해마다 미숙되는 현상을 극복할수 없었던것이다. 봄보리를 여물꾸려다가는 뒤그루는 벼농사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다나니 일부 사람들은 봄보리미숙현상을 어쩔수 없는것으로까지 여기게 되였다. 이런 패배주의가 우련은 싫었다. 속수무책으로 팔짱을 지르고 앉아있을수만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올종품종을 선택했는데 이미 퇴화된 종자다보니 그만...

《여보게 3분조장, 비판은 발전의 무기라고 하지 않던가. 참고하면 되는거지.》

그때 문창두반장은 제나름으로 우련을 위로하느라 하였다.

《그래서가 아닐세. 이 이상 두벌농사를 발전시킬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농사의 주인들이겠나. 내어떻게나 꼭 우성올품종을 얻어내고야말겠네.》

그 말에 문창두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자네가 무슨 연구사라구 우성올품종을 얻어낸단 말인가. 헛참, 그러지 말구 영농공정을 잘 짜고 들어서 분조계획이나 미달하지 말라구. 그 나이에 공연히 들떠가지구.》

그러나 우련은 제 주장대로 일을 펴나갔다. 농업과학원을 찾아다니고 올품종을 얻으려 며칠 시간을 받기도 하고. 그들사이에는 차츰 첨예화되여갔다. 게다가 우련이 얻어온 봄보리올품종은 부라벌기후풍토에 잘 적응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해 이른 봄날, 그들이 60나이를 이태 앞둔 때였다. 그날 날씨는 기막히게 따뜻했다. 호듯호듯 내려쬐이는 봄볕에 물기머금은 벼그루터기들이 눈이 시게 반짝거리고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논벌로는 알락할미새가 긴 꼬리를 초췌이며 포롱포롱 날아다니고있었다.

우련은 분조원들과 함께 논2모작포전에 재거름을 실어내고있었다. 여기로 문창두가 찾아왔다.

《3분조장, 나 좀 보세.》

왜서인지 신중한 기색이다. 앞서는 경계심, 이 사람이 왜 또...

창두는 논두렁에 오금을 꺾고 앉더니 우련에게 《평화》담배를 권했다.

담배를 즐기지 않는 우련이였지만 받아들였다.

《3분조장, 봄보리파종면적을 서너정보 더 늘려야겠네.》

창두가 켜주는ライター에 불을 붙이려던 우련은 꺾쩍 놀라며 기다란 허리를 꼴꼴이 폈다.

《뭘, 서너정보씩이나 더?...》

《그렇네. 우리도 이제 일을 놓고 물러날 때가 돼오는데 뭔가 나라에 기여했다는 말을 남겨야 할 게 아닌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을 다...

《일없을가? 그러지 않아두 지금 하고있는 논2모 작면적만으로도 두 헥타르하는 판인데 그러다 벼농사에 지장을 주면...》

《뭘 그러나. 자네답지 않게 옴니암니 재면서. 요새 난 밤잠이 다 오질 않네. 우리가 10여년째 반장사업두 하구 분조장두 해오지만 이렇다하게 남긴 게 없질 않나. 도일보에조차두 나보지 못했으니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자책이 드네.》

우련은 웃음집이 흔들리는것을 간신히 깨물었다.

허허... 그러니 명예를?... 물론 좋지. 범은 죽어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하지만 미숙되는 봄보리를 잔뜩 심어 소리만 크게 내고 오히려 벼농사에 손해를 준다면...

명예는 외적인 량심이고 량심은 내적인 명예라는 말도 있듯이 량심을 속이면서까지 명예를 산다는것은 아래돌 빼서 옷돌 고이거나 다름없는것이다. 조만간에 무너지고말테니까.

우련은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문창두의 작은 눈이 단박에 황소눈처럼 돼버렸다.

《3분조장, 이걸 군경영위원회 기사장의 지실세. 새로 온 그 기사장의 손탁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을 자네도 들었을테지? 간단칠 않네. 게다가 두벌농사는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이 아닌가. 그래서 크게 내밀자는건데...》

가빠나는 호흡, 착잡해지는 심정. 그러나...

《물론 두벌농사를 많이 지어야지. 그렇지만... 지금 심는 품종으로는... 봄보리가 미숙돼서 정보당 생산량이 시원치 않는데 아무런 타산과 준비도 없이 갑자기 논2모작면적을 서너정보씩이나 늘기놓으면 시기를 다루는 영농공정이 어떻게 되겠나? 그 후과는 어떡하구?》

문창두의 눈썹이 일순 사나와졌다.

《자네 집요하게 봄보리품종을 물고늘어지는데 물론 이름을 남기자는거겠지? 현대 논2모작농사엔 왜 관심이 적은가?》

이런것을 두고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까? 우련은 바로 논2모작농사를 책임적으로 짓기 위해 우성옴종을 얻어내려는것인데...

명백했다. 맹목적인 복종, 나이가 될 때까지 옷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무난히 넘기려는 현명한 타산, 안일한 사업태도...

《그건 안되네.》

단호히 잘라말하는 우련이었다.

《뭘, 안된다구?》

우련을 쏘아보는 싸늘한 눈빛, 입가에 어리는 차거운 미소.

《자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외면하자는 게 아닐테지?》

《뭘?...》

흠뻑지는 눈, 때아닌 천둥소리가 고막을 때린다. 쇠뿔등이로 정수리를 얻어맞은듯 머리가 뺨해지고 귀에서는 별뿔이 온다. 눈앞이 어질어질해났다. 논두렁우에 서있는 문창두가 마치 풍랑속의 쪽배우에 서있는 낯선 사람인듯 서름서름하니 안겨온다.

《그러니 나... 나를 반동으로?...》

《반동인지 아닌지는 현실이 증명해주겠지. 다르게 반동이겠나?》

매몰차게 쏘아붙인 문창두는 표표해서 가버렸다.

우련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늘뿔이 맞붙어 빙글빙글 돌아갔다.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았다. 흉곽속에서 들뛰는 격랑.

창두, 자네가 어쩌면 그런 말을. 종자혁명은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이 아니라던가. 적지적작, 적기적작이 바로 주체농법일진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이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자연기후풍토에 맞게 어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과학농사, 집약농사를 짓기 위한 방침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데 자넨...

칼로 남긴 상처는 아물수 있어도 말로 남긴 상처는 아물리기 힘들다. 그래서 관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것이다. 용서할수는 있어도 잊기는 힘들다고 막스르케 해댄 문창두의 말은 우련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었다.

뒤가 없고 속이 너른 우련이었지만 그후 오래동안 창두와 마주서고싶지 않았다.

그후 우련은 끝내 농업과학원 연구사의 도움으로 올봄보리를 여기 기후풍토에 적응시킴으로써 좋은 우성옴종을 얻어내게 되었다. 그 봄보리를 문순석이가 심어 적지 않은 량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던것이다....

바로 그 순석이가 지금 우련이네 논에서 앞그루 감자농사를 지을것을 바라고있다.

방도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우련이가 반대하다니. 빼심들여 땅을 개량할념은 앓고... 낫았어, 곧잘 현대판을 외우면서두... 록비효과라, 지력과 알곡수확고를 다같이 높일수 있는 록비효과! 엽은 아이 찾는다더니 내가 그 격이군. 밭에서 사이재배로 감자농사를 짓고 감자를 걷어들인 다음 감자잎줄기에 인분물을 끼얹고 묻어주면 강냉이 후반기



생육이 얼마나 좋아지곤 했던가. 그런데 농사경험이 많다고 자처하던 내가 언제 보수주의자로 둔갑하였는가, 허참.

자책속에 터벌터벌 걷고있던 김우련은 《이 사람 실성을 했나?》하는 가위눌린듯 한 목소리에 놀라 우뚝 멈춰섰다. 코앞에 문창두령감과 외손자녀석이 눈이 덩돌해서 서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받으려는 황소처럼 이렇게 하구 막 걸어왔다.》

애녀석이 고개를 짓수긋하고 마구 걸어오는 형용을 해보여서 우련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이녀석이 날 웃기는구나, 허허...》

그러자 문창두가 미심쩍게 바라본다.

《자네 나한테 또 그 하루행동강령 5가지라는걸 력설하자는건 아닐테지?》

《듣기 싫다는걸 자꾸 말해서 뭘하겠나.》

《허허... 헌데 어딜 갔다오나? 이 추운 날씨에.》

《탈곡장에 갔다오네.》

《탈곡장엘?》

이때 《할아버지, 가자.》 하고 애녀석이 보냈다.

《그래, 가자.》 하면서도 우련에게 할말이 있는 듯 창두가 정색해서 바라본다.

《왜 그러나?》

《여보게 우련령감, 이젠 오륙을 쉬울 때도 되지 않았나?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분조농사일에 너무 극성이니 손자녀석 손목잡고 다니기도 멋해져서 그러네. 우리가 나이 60이 되도록 일을 많이 한거야 사실이 아닌가. 이젠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고 누가 탓할텐가. 우리 순석이가 자네 소리를 할적마다 바늘방석에 앉은듯 하단 말일세.》

우련은 또 껄껄 웃었다.

《허허,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으면 일어서면 될게 아닌가. 허허허...》

우련은 창두의 결을 미련없이 지나쳤다.

마음속에 새 시름이 얹혀지는것 같다. 우련은 그와 내심 대화를 나누었다.

...문창두, 야단이군. 늙고 낡고 속병들고. 물론 나라에서는 나이가 되었다고 우리한테 설 권리를 주었구 분배도 년년이 주고있지. 게다가 공로자대우까지. 자넌 그 혜택을 웅당한것으로만 여기구있으니 참. 여보게 창두, 나날이 더해만지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것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도리구 의리가 아니겠나....

심란한 표정으로 집안에 들어서니 바느질하던 마누라가 반색을 하며 맞아준다.

《왜 이제야 들어오시우? 이 추운 날에... 만보행을 하셨수?》

덧저고리를 벗으려던 우련이 의아히 돌아본다.

《만보행?》

마누라는 아직 제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두눈만 뜨부럭거리는 령감이 우스워 호호 웃었다.

《아니, 왜 그렇게 소 닭보듯 하시우? 만보를 걸으셨나 묻는데. 령감이 철저히 지키는 행동강령 첫번째가 만보걸기가 아니나요.》

우련은 그제서야 시무룩이 웃었다. 로친네란게 제 령감 속알는것두 모르구....

마누라가 편하는 아래목에 앉으니 저도 모르게 경대에 눈길이 갔다. 여전히 이채를 띠고있는 경대우의 장식이다. 막내딸 복실이가 《우리 집안 가을풍경》이라고 명명했었지. 가을풍경이라. 헌데 가을을 노상 저렇게 매달아둘수야 없지 않는가.

자연의 가을은 한철이니 말이다. 그래, 한철이지. 군대가 백날 훈련하는것은 한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이고 농사군이 한해 팜흙리는것은 풍요한 가을 한철을 위해서지. 풍성한 가을을 안아올수 없다면야 백날천날 팜흙린들 무슨 의의가 있을고. 암, 그렇구말구. 순석이 말대로 우리 눈에 감자를 심어야겠어. 산분이랑 새로 만든 생물활성퇴비랑 재거름이랑 금강약돌이랑 있는것 죄다 내구 두둑을 잘 지어야지. 감자잎줄기를 정보당 10톤만 물어주면 논벼정보당 1톤이상은 더 낼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썩먹고 알먹기가 아닌가. 거름원천이 제한되어있는 별방지대라고 안타까와만 했지 록비효과생각은 전혀 못했거던. 순석이가 하는 일을 보면 같은 퇴비래도 비료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영양제생산을 앞세우고있는데 제법이거던. 역시 현대판이야.

이윽하여 우련은 복실이가 구해다준 영농잡지를 펼쳐들었다. 책읽기나 음악감상도 하루행동강령에 속하는것이긴 하지만 보다는 사유활동으로서 농사에 필요한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 영농잡지를 즐겨 읽는 우련로인이었다.

## 4

봄, 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우련은 트랙또르적재함이 터져나가도록 실은 새로운 생물활성퇴비를 담당포전에 부리우고나서 흐뭇한 눈길로 무지무지 쌓아놓은 퇴비더미들을 바라보았다. 여느 퇴비에 비해 5배이상이나 린효과를 보게 될 퇴비더미들이다. 질흙논에 보약처럼 쓰일 미량원소비료인 금강약돌도 비록 자그마한 무지이긴 해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리고 재거름...

이제 여기에 분조에서 생산한 흙보산비료와 후민산염까지 보탠다면 아마도 논이 풍성한 식탁을 마주한 나그네처럼 기분이 좋아 벅글거릴지도 모른다.

이쯤하면 감자농사는 때여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되던 벼농사 역시 먹어놓은 떡인거구, 허허... 올해엔 문창두령감네를 짹 눌러놓게 됐지.

문득 며칠전 문창두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갔던 일이 생각키워진다.

그때 보니 문창두는 아래목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꿀꿀 앓음소리를 내고있었다.

《하, 거 동갑이령감이 되겐 앓는군.》

우련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환자가까이에 다가앉으며 꿀병을 내놓자 그 집 마누라가 혀를 차며 하소연했다.

《젊었을적엔 몰랐는데 나이들어서 그런지 자주 앓지, 걸핏하면 성을 내지, 고집은 또 얼마나 세졌는지 하늘소발통갈아서 도무지...》

《말이 많군, 말이 많아. 령감 앓는데 구완할 생각은 앓구. 말이 약이 된다던가.》

언성을 높이는 문창두였다.

《사람두, 일생고락을 같이해온 가장 가까운 전우한테 성을 내다니, 원. 좀 일어나앉게나.》

우련은 문창두를 억지로 일으켜 앉히고 그의 마누라가 떠온 더운물에 꿀을 타서 먹여주었다. 그리고는 자리에 눕히고 이불깃을 푹푹 여며주었다.

우련은 창두의 안해에게 말을 건넸다.

《내 동갑이한테 여러번 한 소리네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행동강령 5가지를 꼭꼭 지켜야 마음이 늙지 않는 법이요.》

《또 또 력설이군.》

문창두가 시끄러워했지만 우련은 빙그레 웃고나서 계속했다.

《하루행동강령 5가지라는게 뭐고 하니 만보, 천자, 백작, 십소, 일행! 이진데 만보란 말그대로 하루 만보 즉 15리정도씩은 걸으라는 뜻이요. 천자는 매일 천자를 읽어야 나이드는 사람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흔히 생기게 되는 로인병인 사회관계심과 흥미가 적어지는것, 건망증이 생기는것, 교제범위가 좁아지구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감정을 앞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현상을 막을수 있다 이거우다. 백작이라는건 음식물을 백번 씹으라는건데 이진 소화흡수를 잘하기 위해서뿐아니라 미식, 편식, 과식을 하는 현상을 없애구 필요한 영양소를 즉시로 보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거요. 십소란 하루 10번은 크게 웃으라는 뜻이구요. 일행이란 큰 건작건간에 하루 한가지이상 창조적활동을 하라는 거우다. 발견이나 발명을 위한 착상두 좋지만 남새밭이나 화초를 가꾸구 톱이나 망치를 들고 간단한 작업을 하는것두 다 창조적활동으로 되는데 아니겠소, 허허...》

우련의 말을 듣고있던 문창두의 마누라가 호호한숨을 내신다.

《헌데 저 령감은 외손자녀석한테만 푹 빠져서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니... 글썽 식사때에는

또 어찌나 까다로운지 고추장단지 열두개래두 서방님비위맞추기가 험치 앓다더니 꼭 그 격이예요.》

《쨌쨌, 잘한다, 잘해. 남의 령감과 마주앉아서 제 령감 흉만 드립다 내고있으니 어디서 저런... 아이구, 골이야.》

우련은 더 앓아있을 재미가 없어졌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하고싶던 말을 내쳐 쏟아놓았다.

《동갑이, 치료를 잘 받게나. 그리구 내 말을 잔소리로만 듣지 말게. 나이드는 사람이 마음까지 병들게 되면 그뎨 다 된거야. 암, 그렇구말구. 어흥!》

이렇게 그 집 문턱을 넘어섰지만 문창두의 일속에 걸려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다. 아들은 잘 두었는데 헛참, 망랑하기란...

그때 일을 상기하고난 우련은 스적스적 논판을 껴질려 문창두네 담당포전으로 갔다.

퇴비를 얼마큼 실어냈나 보자는거다. 일어서 땡땡 붙어난 벼그루터기들이 우련의 두툼한 숨신발바닥 밑에서 터져나가며 빠드득빠드득 눈밭히우는듯한 소리를 냈다.

문창두령감네 담당포전에 다달은 우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상외로 퇴비가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이상하군. 보리농사엔 물거름을 버무린 재거름이 제일인데 재거름두 얼마 안되구.

분조원들의 담당포전도 빙 둘러보았다. 그만하면 퇴비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역시 재거름이 적다. 이 주변논들은 모래기가 많아서 논 앞그루로 봄보리농사를 지어야 할텐데... 안되겠군. 우리 집터발 농사를 지으려고 남겨두었던 재거름도 몽땅 내다줘야지. 포전담당책임제라고 해서 내 포전만 내 포전이라고 해서야 안되지. 땅과 농민은 나라가 딛고선 터전이나 다름없는데 모든 포전들에서 다같이 농사가 잘되어야 강성국가를 만드는 터전이 더 든든해질게 아닌가. 암, 그렇구말구.

김우련은 제 생각에 자못 흡족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식사시간이다.

우련은 천천히 음식을 씹고있었다. 분조장시절에는 밥먹는 시간도 아까와 찬물이나 국에 말아 흘렁 흘렁 넘기고나서 이내 자리를 일군 하던 그였다. 새벽에도 일찍 벌에 나갔다가는 때없이 들어와 부뚜막에 걸터앉아 대충 요기를 하고는 또 벌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야 점심 겸 저녁을 먹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음식물을 꼭꼭 씹어먹는다. 늦게나마 건강관리를 잘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였다.

이윽고 저녁상을 물리자 뜨끈한 승냥을 후후 불어가며 마시고난 우련은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띠

우고 팔을 바라보았다.

《〈방울꽃〉, 문창두령감네가 어제 퇴비반출이 늦어지는지 알고있나?》

복실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은하수〉, 나 〈방울꽃〉. 순석동무네는 트랙포르며 소달구지를 비롯한 모든 운수수단들을 분조원들의 담당포전퇴비운반에 돌리고 자기네는 인력으로 나르고있음.》

듣고있던 마누라가 끼어들었다.

《순석이 그 사람 지내볼수록 마음에 든다니까요. 아는게 많지, 기타 잘 타지, 과학적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모범이라구 속보판에 대문짝같이 이름이 나지. 거 순석이가 한다는 후민산염이라는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우련은 생각깊은 안색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지, 모판밀비료로 쓰면 모가 잘 서구 원판밀비료로 쓰면 모살이, 아지치기, 벼생육에 아주 좋다더군. 뭐니뭐니해도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두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과학적영농방법을 많이 받아들이는게 기본이야. 우리편 한랭전선하구 싸웠는데 지금은 이상기후현상하구 전쟁을 하고있으니까.》

《그게 다 지구난방화때문이라면서요?》

아는체 하는 마누라였다.

《엄마두 참, 지구난방화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예요.》

복실이가 깨우쳐주었으나 마누라는 지려 하지 않았다.

《난방화가 온난화구 지구가 더워진다는 말이야 갈구같은거겠지.》

《허허, 로친네가 제법이야.》

겉겉 웃으며 마누라를 추어주고난 우련은 이내 심중해졌다.

《복실아, 안되겠다. 오늘 밤부터 집에 있는 재거름을 몽땅 손달구지로 실어내야겠다.》

《어디루요?》

《어디긴 어디겠나, 순석이네 담당포전이지. 그 사람이 분조장사업두 할래 꽤나 바쁜 모양이구나. 그리구 선복아주먼네랑두 퇴비반출은 끝낸것 같은데 재거름이 씨원칠 않아. 우리 집 터밭감자농사에 쓰려구 남겨두었던걸 몽땅 손달구지로 실어내야겠다.》

《예, 그렇게 하자요.》

복실이 섣뚱 찬성하자 마누라가 밋지 않게 혀를 찼다.

《쫓쫓, 어쩌면 그리도 신통한지. 물은 물과 합해지구 기름은 기름과 합해진다더니.》

자리에서 일어선 우련은 덧저고리와 덧바지를 꺼입기 시작했다.

《추운 밤중에 나섰다가 감기들면 어쩌시려

우?》

중내 마음을 놓지 못하는 마누라였다. 두툼한 솜장갑을 찾아주며 넘려했다.

《허허, 너무 걱정말라니.》

우련은 솜옷을 차려입고 목도리를 두르며 경대앞에 다가서는 막내딸을 돌아보았다.

금시 우련의 입가에 웃음발이 피어올랐다. 처녀는 역시 처녀군, 별작업을 나가면서도 맵시니, 허허...

눈이 억실억실하고 얼굴이 달덩이같은 복실의 모습이 잔잔한 호수갈기도 한 거울에 보름달마냥 환하게 비껴 경대우의 《우리 집안 가을풍경》을 더욱 유난히 돋구어주고있었다.

## 5

가을이다. 남알털기가 끝났다.

우련이네는 농장적으로 제일 높은 수확고를 냈다. 우련이네뿐아니라 모든 농장원들의 담당포전들에서도 다 농사가 꽤잘게 되었다. 순석이네 분조는 군적으로 장훈을 불렀다.

말은 담당포전에 대한 책임성과 생산의욕이 보다 높아진 웅당한 결실이었다.

사람들마다 이태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좋구나 하고 찬탄하며 일에서 더욱 성수를 냈다. 식량분배를 탄 날 우련은 토방에 쌓아놓은 쌀가마니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자신을 진정하지 못했다. 나라에 보탬을 주자고 육신을 좀 놀렸을따름인데 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련은 밤새도록 뒤척거렸다. 나라의 은덕이 고마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정말 생각이 많은 밤이었다. 한줌의 쌀이 그림던 고난의 행군나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나온 한생도 더듬어지고...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배품은적은 있어도 사람다운 삶, 창조의 삶을 누려온 한생이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복만을 받으며 살아온 내가 그 덕을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지. 암, 그렁구말구. 분배몫의 일부만을 남겨두고 나라에 애국미로 바치자, 나라의 공민된 도리를 지켜야지.

다음날 아침 우련은 리당위원회를 찾아갔다. 애국미를 바치는 날 김우련은 10년은 젊어진듯싶었다. 긍지감, 자부심...

그날부터 더우기 기분이 흥떠서 새벽에는 산분을 모으고 부엌아궁에서는 흙을 구워내고 개인퇴적장의 퇴비도 생산하면서 오록을 쉬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김우련은 뜻밖의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분배몫을 애국미로 바친 김우련로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사를 보내주신것이였다.

군대책임일군이 내려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전달했다.

우련은 주체 못할 격정으로 하여 심장이 푹 멎는 듯싶었다. 눈물이 콧 솟았다.

이런 일도 있더니, 나에게 이런 영광이 차례지다니, 이 땅에서 나는 낱알을 먹고 이 나라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이 나라의 푸른 하늘을 향해 버섯이 머리를 들고 살아온 이 나라의 공민으로서 나라의 은덕이 고마와 조금이나마 보답하려 했을뿐인데 그 소행을 이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니...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

우련은 갈퀴진 손으로 입을 싸쥐고 험험 흐느꼈다.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우련로인네 집으로 모여들었다. 사진사도 찾아왔다, 농장연혁사에 남겨야 한다면서.

집안팎에서 사람들이 들레니 눈치빠른 강아지가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해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쿵쿵 뽕새말으며 돌아가고 조무래기들은 대사집에라도 온듯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운다.

아래웃방에 뺨곡이 들어앉은 사람들이 흥이 올라 엮어대는 이야기판으로 하여 흥성거리는 집안풍경은 참으로 볼만 했다. 순석이며 복실이는 우련로인의 사진을 찍느라고 법석했다.

《복실동무 아버지, 자, 여기 이렇게... 경대를 배경으로 찍어야 해요. 〈우리 집안 가을풍경〉이 나타나게 말이예요.》

순석이 사진찍을 자리를 잡아주자 우련은 기분이 좋아 꺄꺄거렸다.

《허, 이 김우련이 황공하게두 농장연혁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가, 허허...》

그는 마누라와 딸도 곁으로 불렀다.

《여보 로친네, 이 기쁜 날 가족사진도 한장 남겨야지. 복실이랑 이리 오너라.》

마누라는 질겁하여 손사래를 쳤다.

《아유, 나같이 다 시든 호박꽃이 무슨 사진을...》

《모르는 소리, 시든 호박꽃대신 나날이 커가는 호박은 볼수록 흐뭇하지. 암, 그렇구말구.》

우련의 말에 모두 그 옳은 말이라고 긍정하며 가족사진도 찍으라고 떠들었다.

순석이 한마디 했다.

《옳습니다. 자연의 열매는 한철이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바치는 보답의 열매, 충정의 열매는 나날이 커지고 풍만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실동무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보면 복실동무 아버지야말로 진짜 〈우리 집안 가을풍경〉이 아닐가

요? 자, 박수!》

왁자그르 박수가 터졌다.

《복실동무 아버지, 축하합니다!》

《고맙네!》

웃음이 함뿍 넉즈러진 말로 인사를 받는 우련의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들고있었다.

이때 구석쪽에서 《이보게, 동갑이!》 하는 갈린 소리가 울리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문창두가 앉은 사람들을 헤집으며 우련이한테로 다가섰다. 그의 낮에는 심심한 자책의 빛이 어려있었다.

《동갑이, 내 그새 동갑이 말을 귀등으로 흘리면서 우리 순석이랑 로친네속을 좀 태웠네. 자네 가슴에 못박는 말두 꺼리낌없이 해뒀으니... 내 죄를 지었네. 용서해주게.》

《허허, 나한테 지은 죄야 뭐라나. 자네가 점점 호사를 부리면서 나라의 은덕두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가는것 같아 그제 더 가슴아팠더랬지.》

《옳네, 그런 놈이 뉘번 했네. 내 이제부터라도 자네처럼 보답의 마음을 안고 살려네.》

우련은 꺄꺄 웃으며 문창두의 어깨를 툭 쳤다.

《동갑이 그 한마디 말 정말 잘했네. 암, 그렇구말구. 충정과 보답의 마음이란 끝이 없어야 하구말구, 허허... 그런데 말이야, 자네 낡았어두 아들 하나만은 참 잘 두었어.》

군사복무를 잘해서 조선로동당원이 됐겠다, 사회에 나와서두 제대군인답게 앞장에 서서 분조농사, 작업반농사를 이끌거던. 열매루 말할라치면 크고 단 참외라니, 허허...》

문창두도 이때라는듯 제격 응수한다.

《자네 딸은 어떻다구. 인사성 밝지, 손끝이 여물었지. 꼭 봄제비 한가지라니까, 허허. 럽치없는 말갈네만 자네만 반대없다면 복실이를 내 집 머느리로 들여세우고싶은데...》

《내 말이 그 말일세. 나두 자네 아들을 사위로 맞고싶다니, 헛헛허...》

우련이 호호탕탕한 웃음을 터뜨리자 방안이 터져나갈듯 흥소가 일었다.

앉은자리에서 혼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복실은 낮빛이 파리처럼 새빨개져서 황황히 부엌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순석의 등을 떠밀었다. 뒤다수기를 굶으며 싱글거리던 순석이 문밖으로 사라지자 사람들은 다시금 즐겁게 웃었다.

좌중을 둘러보는 두 로인의 얼굴에는 감개무량한 빛이 어려있었다.

보다 큰 래일의 행복이 마중해오고있는 좋은 저녁이었다.



## 두 목수

오늘의 평안북도 의주군 금광리에는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지었다는 정각이 있는데 정각의 한 기둥에는 깊이 패인 자귀(자루에 가로 선 넘적한 쇠날이 달린 목수도구의 한가지. 나무를 깎아 다듬는데 쓴다.)자국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천마와 의주일대에서 금광을 운영하던 광주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흐뭇이 바라보던 광주는 여기에 정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황금 백냥을 걸고 정각을 지을 목수를 모집하게 하였다.

이 소문을 듣고 유명한 목수 두사람이 찾아와 일에 착수하였다.

한씨, 리씨성을 가진 두 목수는 능란하고 세련된 솜씨로 한달남짓한 사이에 아찔한 벼랑끝에 정각을 거의 완성하게 되었다.

정각건설의 마감공정으로 지붕씩우기를 하던 어느날이었다.

리씨성을 가진 목수는 은연중 들어서 정각을 다 세우면 황금 백냥을 절반씩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 황금 백냥을 다 가지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욕심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그의 나쁜 심보 주머니를 계속 건드려놓았다.

그는 드디어 한씨성을 가진 목수가 더 일을 못하게 부상을 입혀야 공사의 마무리를 혼자서 할수 있고 황금 백냥도 독차지할수 있다는 심보사나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회를 엿보던 리가는 기둥에 의지하여 들보에 자귀로 흠을 파고있는 한씨성을 가진 목수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실수하는척 하면서 팔꿈치로 그를 툭 쳤다.

순간 뜻밖의 충격에 중심을 잃은 한씨성을 가진 목수는 떨어지려는 찰나에 손에 들었던 자귀날을 정각기둥에 힘껏 박았다.

날렵한 동작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한씨목수는 마루바닥에 훌쩍 뛰어내려 당황한 기색으로 우에서 자귀를 지켜보는 리씨목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자기편에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한씨목수를 바라보며 어쩔줄 모르던 리씨목수는 그의 사람됨과 공구쓰는 솜씨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얼마후 정각이 완성되자 광주는 두 목수의 재간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그들에게 각각 황금 백냥씩을 주도록 하였다.

한푼의 돈도 아까워한다는 린색한 광주도 너무나 절묘한 그들의 목수솜씨에 감동되어 계약했던 돈의 두배나 내놓았던것이다.

그후 리씨목수는 다시는 저만을 생각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고 한씨목수와 함께 의 좋게 지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도 늘 고운 마음씨를 가져야 좋은 재간이 빛을 낸다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옥 성 일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5호 (루게 제799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3(2014)년 5월 1일
발 행	주 체 103(2014)년 5월 5일

ㄱ-46159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